

제3권 제1호(통권7호)
1997 봄

여리춘남 리 논 문

The Chungnam Review

특집 · 충남농업의 VISION과 대응전략

특집 · 충남농업의 VISION과 대응전략

충남농업의 어제와 오늘/ 이종상

21세기 한국농업의 발전전략과 미래모습/ 조재환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충남농업의 대응전략/ 최병익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태호

정 책 제 언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방안/ 김재필

서산기지 민항취항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이인배

사 칼 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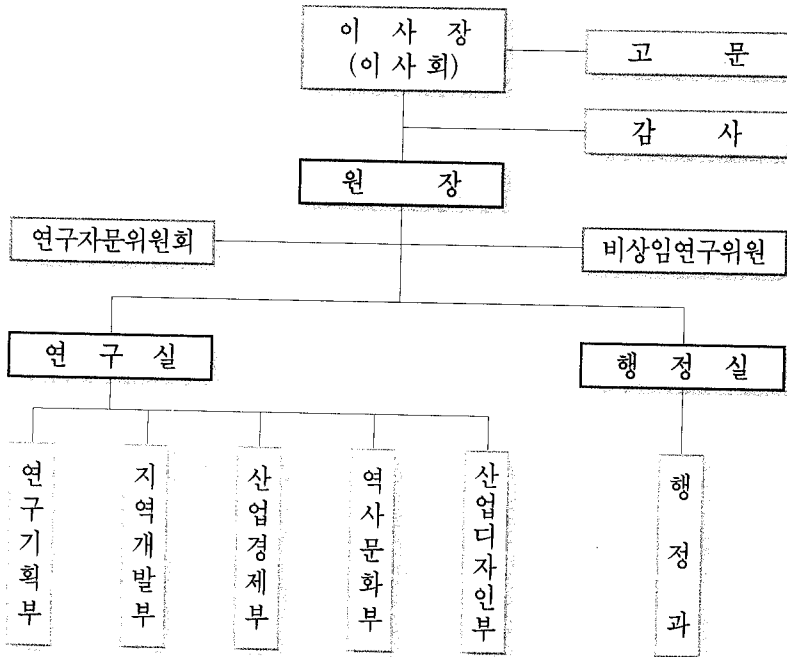
충남농정의 전개방향/ 남궁 영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과 도내 각 시·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연구기관으로서
세계속의 충남을 열어가는 최고의 전문 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연구기획부

연구사업의 기획·조정·총괄
각종 연구계획 수립
도·시·군정 주요 현안과제 연구

지역개발부

·도·시·군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농촌·도시개발계획 및 정책연구
·사회복지 관련연구

산업경제부

지역경제·산업개발연구
지역의 환경계획 수립·정책연구
농·어촌 현안문제의 장·단기 대책연구

역사문화부

역사문화의 조사·연구
문화재 발굴·보전·관리방안 연구
문화행사 및 이벤트 관련연구

산업디자인부

·중소기업의 발전방안 연구
·산업디자인 개발 및 홍보, 지원방안 연구
·도·시·군 홍보표지판 디자인 연구

행정과

연구사업 지원
인사·예산 및 일반행정업무
자료실 관리 및 안내
각종 행사계획 수립

여리춘남 리 논 중 남

The Chungnam Review

목차 CONTENTS

특 집 충남농업의 VISION과 대응전략

- ❶ 충남농업의 어제와 오늘 이종상
- ❷ 21세기 한국농업의 발전전략과 미래모습 조재환
- ❸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충남농업의 대응전략 최병익
- ❹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태호

정책 제언

- ❺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방안 김재필
- ❻ 서산기지 민항취항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이인배

시사칼럼

- ❽ 충남농정의 전개방향 남궁영

연구원소식

- ❿ 연구원사업
- ⓫ 원장동정
- ⓬ 연구원활동

특 집

충남농업의 VISION과 대응전략

충남농업의 어제와 오늘 / 이종상

21세기 한국농업의 발전전략과 미래모습 / 조재환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충남농업의 대응전략 / 최병익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 정태호

충남농업의 어제와 오늘

이 종 상
(李鍾相)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부장



- I. 서언
- II. 충남농업의 개황
- III. 충남의 농가·인구 및 농가경제
- IV. 충남의 농산물 생산현황
- V. 요약

I. 서 론

최근 수년간 한국농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국내적으로는 농업과 비농업부문간에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자치시대의 본

격적인 개막과 함께 농업의 산지간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WTO의 출범과 함께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농업에 대한 지원책도 국제적인 룰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농업이 불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영농의욕을 상실하여 농촌을 떠나고 있으며,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와 더불어 농업의 신규취업자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농업담당자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한계농지는 황폐화 되고 있으며, 우량 농지인 경우에도 적당한 작목을 선택하지 못하여 경작을 포기하는 농지가 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농업은 지역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농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충남농업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를 조망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충남의 농가, 농경지, 부문별 농업 생산 등의 변화를 대전광역시와 분리된 1989년 이후의 농업관련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를 조망을 하고자 한다.

II. 충남농업의 개황

1. 충남농업의 비중

충남농업은 전국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고도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라서 경제적인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1995년 충남의 농가는 전체가구수 552천호의 34.9%에 해당하는 193천호이며, 1994년에 총취업인구의 43.2%를 점하고 있다. 1989년 이후 농가수는 2.8%, 농업취업인구는

1.4%씩 감소하여 탈농과 농업노동력의 이농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경지 면적은 1995년에 전체면적의 31.9%에 해당하는 272천ha이며, 도시의 급속한 팽창과 도시시설의 확충 등 비농업부문의 이용이 증가하여 매년 0.5%씩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충남지역은 급속한 산업화와 비농업부문의 토지수요는 더욱 증대되어 농경지의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간척자원이 풍부하여 농지확보의 가능성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의 농업총생산액은 2,614억원으로 도내 총생산액의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의 28.8%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졌다.

2. 전국대비 충남농업의 위치

충남농업의 위치를 농가수, 농가인구, 농경지면적을 중심으로 전국과 대비해서 살펴보면, <표 2>

<표 1> 충남농업의 비중

연도	가 구(호)			취업인구(천명)*			면 적(ha)			총생산(백만원)**		
	전체	농업	%	전체	농업	%	전체	경지	%	전체	농업	%
1990	478,463	225,447	47.1	834	410	49.2	831,812	279,794	33.6	6,170,956	1,778,181	28.8
1994	533,852	197,815	37.1	907	392	43.2	836,765	274,940	32.9	12,528,387	2,613,581	20.9
1995	552,450	192,992	34.9	-	-	-	854,686	272,337	31.9	-	-	-
증감률***	2.7	-2.8	-	2.3	-1.4	-	0.3	-0.5	-	-	-	-

* 농림어업, ** 농림어업(경상가격), *** 1989년부터 1995(4)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자료 : 「충남통계연보」, 각 연도.

〈표 2〉 전국대비 충남농업의 위치

연 도	농 가(호)			농가인구(인)			농 경 지(ha)		
	전 국	충 남	%	전 국	충 남	%	전 국	충 남	%
1990	1,767,033	225,447	12.8	6,661,322	901,333	13.5	2,126,721	279,794	13.2
1995	1,499,329	192,992	12.9	4,838,170	641,118	13.3	2,032,706	272,337	13.4
증감률	-15.2	-14.7	-	-27.4	-28.9	-	-4.4	-2.5	-
순 위	경북, 전남, 충남			경북, 전남, 충남			전남, 경북, 충남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1990 · 1995.

에 제시한 바와 같이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경지면적 등에서 13%내외이며, 전국에서 경북과 전남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변화는 농가수와 농경지는 전국의 감소율보다는 낮은 편이며, 농가인구의 감소율은 전국보다 상회하고 있어 충남지역 노동력 유출현상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 시군별 농업현황

시군별 농업현황을 농가구수, 농가인구, 농지면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농가구수는 당진군이 17,389호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논산시, 서산시, 부여군 순이었으며, 농가수의 상대적인 구성비는 청양군이 60.3%로 단연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여군, 당진군, 태안군, 금산군 등이 약 50%정도이다. 농가인구는 시군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인구수나 구성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농가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농경지면적은 서산군이 29,044ha로 가장 많고,

당진군, 금산군 순이었으며, 전체면적에 대한 농경지의 구성비는 당진군이 45.4%로 제일 높고, 서천군, 아산시, 서산시 순으로 높았다. 농가수, 농업인구, 경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는 당진군, 서산군, 논산시, 부여군 등이, 상대적으로는 청양군과 태안군 등이 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III. 충남의 농가인구 및 농가경제

1. 농가 및 농가인구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4년 현재 20세 미만이 180천명으로 전체의 26.8%, 20세 이상 60세 미만이 323.8천명으로 48.2%, 60세 이상의 인구가 167천명으로 24.9%를 점하고 있다.

연령별 농가인구의 변화를 연평균 증감률로 살펴볼 때 15세 이상이 20세미만이 -13.37%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5세 미만 -10.52%, 20세 이상 50세 미만 -7.30%, 50세

〈표 3〉 시군별 농업의 현황(1995)

연 도	가 구(호)			인 구(인)			면 적(ha)		
	전 체	농 가	%	전 체	농 업	%	전 체	농경지	%
충청남도	552,450	192,776	34.9	1,855,346	641,118	34.6	854,686	272,377	31.9
천안시	103,222	12,405	12.0	334,800	44,905	13.4	63,650	18,738	29.4
공주시	40,415	14,072	34.8	138,202	47,640	34.5	94,098	17,628	18.7
보령시	36,451	12,060	33.1	123,023	39,849	32.4	56,128	14,653	26.1
아산시	48,348	13,160	27.2	158,737	46,883	29.5	54,268	21,414	39.5
서산시	41,462	15,716	37.9	142,331	51,001	35.8	73,905	29,044	39.3
논산시	45,288	16,721	36.9	150,190	57,446	38.2	57,526	9,639	17.4
금산군	20,837	10,172	48.8	70,897	32,985	46.5	36,159	22,445	39.0
연기군	24,357	7,907	32.5	80,931	26,938	33.3	55,407	10,105	27.9
부여군	31,245	15,385	49.2	103,605	49,457	47.7	62,485	20,566	32.9
서천군	25,785	11,469	44.5	85,241	36,201	42.5	36,405	14,422	39.6
청양군	13,631	8,217	60.3	45,736	25,139	55.0	47,957	11,209	23.4
홍성군	29,261	13,277	45.4	101,549	43,967	43.3	44,382	17,166	38.7
예산군	31,395	14,168	45.1	110,045	47,049	42.8	54,347	0,689	38.1
태안군	20,718	10,071	48.6	72,206	32,111	44.5	50,325	16,695	33.2
당진군	35,469	17,389	49.0	122,182	57,408	47.0	61,583	27,964	45.4
계 통	4,566	587	12.9	15,671	2,139	13.6	6,062	-	-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1996.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6.

이상 60세 미만 -3.98%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은 연평균 1.14%씩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인구가 더욱 감소하고 있어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형태별 농가수는 1994년에 전업이 58.0%로

가장 많고, 2종겸업 26.1%, 1종겸업 15.9%로 아직까지 겸업농가보다는 전업농가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업농가와 1종겸업농가는 줄어 들고 있으나, 제2종겸업은 대단히 증가하였다. 취업형태별 농가인구수는 취업형태별 농가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994년의 전업농가의 비율이 58.0%인 반면, 인구

〈표 4〉 연령별 농가인구

연 도	총 계			15세미만	15이상 20세미만	2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계	남	녀					
1990	901,333 (100.0)	477,478 (53.0)	453,855 (47.0)	192,318 (21.3)	106,393 (11.9)	304,012 (33.7)	145,398 (16.1)	152,672 (16.9)
1994	671,291 (100.0)	325,579 (48.5)	345,712 (51.5)	115,116 (17.1)	65,303 (9.7)	201,437 (30.0)	122,405 (18.2)	167,030 (24.9)
1995	641,118 (100.0)	315,801 (49.3)	325,317 (50.7)	94,368 (14.7)	-	-	-	-
증감률*	-6.05	-6.58	-5.50	-10.52	-13.37	-7.30	-3.98	1.14

* 1989년부터 1995(4)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자료 : 「충남통계연보」, 각 연도.

〈표 5〉 취업형태별 농가 및 농가인구

연 도	농 가 수(호)				농 가 인 구(명)			
	계	전 업*	1종겸업**	2종겸업***	계	전 업	1종겸업	2종겸업
1990	225,447 (100.0)	135,142 (59.9)	51,930 (23.0)	38,275 (17.0)	901,333 (100.0)	496,121 (55.0)	233,257 (25.9)	171,955 (19.1)
1994	197,815 (100.0)	114,745 (58.0)	31,528 (15.9)	51,541 (26.1)	671,291 (100.0)	340,303 (50.7)	124,163 (18.5)	206,826 (30.8)
1995	192,922	-	-	-	641,118	-	-	-

()안은 구성비

* 전업농가 : 농업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와 농사이외의 돈벌이 또는 영업에 종사하였

더라도 연간 누계일수가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 1종겸업농가 : 농가전체로 보아 농업수입이 겸업수입보다 많은 겸업농가

*** 2종겸업농가 : 농가전체로 보아 겸업수입이 농업수입 보다 많은 겸업농가

자료 : 「충남통계연보」, 각 연도.

수는 50.7%로 겸업에 비해서 전업농가의 가족수가 적었다.

농가가구와 농가인구 변화의 차이점을 살펴보

면, 전업의 경우 농가수의 감소율보다는 농가인구의 감소율이 높은 데 이러한 현상은 고령자 층은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가구성원의 일부가 비농업부

문으로 유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전업농가가 감소하고 겸업, 특히 2종 겸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충남지역의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비농업부문의 취업기회의 확대에 의한 농업노동력의 비농업분야로의 유출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지역내의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전업농은 점차 감소하고 농업의 겸업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농경지

충남도의 농경지는 1995년에 272천ha로 그 중 논이 193천ha로 7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밭은 29.1%인 79천ha이다. 농가 호당 평균경지면적은 141.2a로 논이 100.1a, 밭이 41.1a를 차지하고 있다.

경지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경지면적은 매년 0.53%씩 감소하였으며, 논이 0.59%, 밭이 0.36%씩 매년 감소하여 밭에 비해서 논의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당 경지면적은 경지면적이 매년 0.53%감소한

데 비해서 총농가수의 감소율은 2.76%나 되어 매년 2.25% 증가하고 있으며, 논에 비해서 밭의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지면적의 변화는 충남지역의 공업화의 촉진과 비농업용 토지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경지면적의 감소보다는 농가수의 감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당 경지면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지이용률은 1995년에 101.1%이며, 1989년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지면적의 감소율은 0.53%, 경지이용면적의 감소율은 1.37%로 경지이용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농촌인구의 유출, 농업노동력의 겸업화로 인하여 기인된 것으로 생각한다.

경지면적 규모별 농가수는 1995년에 0.5ha~1.0ha규모의 농가가 57,626호로 전체의 29.1%를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0ha~1.5ha규모의 농가가 38,674호로 19.6%를 점하고 있으며, 3.0ha이상의 농가도 8,444호로 4.3%를 점하고 있다.

〈표 6〉 경지면적의 변화

연 도	총 농 가 수	경 지 면 적(ha)			호 당 경 지 면 적(a)		
		합 계	논	밭	합 계	논	밭
1990	225,447	279,794 (100.0)	199,040 (71.1)	80,754 (28.9)	124.1 (100.0)	88.3 (71.2)	35.8 (28.8)
1995	192,992	272,377 (100.0)	193,032 (70.9)	79,345 (29.1)	141.2 (100.0)	100.1 (70.9)	41.1 (29.1)
증감률*	-2.76	-0.53	-0.59	-0.36	2.25	2.12	2.41

* 1989년부터 1995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자료 : 「충남통계연보」, 각 연도.

〈표 7〉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면적의 변화(ha)

연 도	경 지 면 적(A)	경지이용면적(B)	경 지 이 용 률
1990	279,794	295,006	105.4
1995	272,377	275,399	101.1
증 감 률*	-0.53	-1.37	-

* 1989년부터 1995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자료 : 「충남통계연보」, 각 연도.

〈표 8〉 경지규모별 농가

연도	총면적 (ha)	총농가	경지없는 농가	0.1ha 미만	0.1- 0.3ha	0.3- 0.5ha	0.5- 1.0ha	1.0- 1.5ha	1.5- 2.0ha	2.0- 3.0ha	3.0ha 이상
1990	279,794	225,447 (100.0)	2,064 (0.9)	1,651 (0.7)	21,862 (9.7)	29,128 (12.9)	71,143 (31.6)	49,528 (22.0)	26,596 (11.8)	17,690 (7.8)	5,785 (2.6)
1994	274,940	197,815 (100.0)	2,592 (1.3)	1,541 (0.8)	24,216 (12.2)	26,363 (13.3)	57,626 (29.1)	38,674 (19.6)	21,727 (11.0)	16,632 (8.4)	8,444 (4.3)
연평균 증감률*	-1.37	-2.82	-7.04	-1.70	0.92	-3.36	-5.40	5.29	-1.89	3.73	14.83

* 1989년부터 1994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자료 : 충남통계연보, 각 연도.

경지면적 규모별 농가의 1989년부터 1994년까지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농가수의 감소와 더불어 각 규모별 농가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2ha-3.0ha, 3.0ha이상 규모의 농가는 각각 연평균 3.73%, 14.83%씩 증가하고 있어 아직 수적으로는 미미하지만, 점차 대규모 영농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겸업화의 진전, 영농의 기계화로 인한 영농기술체계의 변화, 전업농육성사업의 영향으로 점차 대규모 농가의 비율은 증가할 것이나, 농업

소득을 중요시하지 않는 0.5ha이하의 농가는 현재까지의 변화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점차 농가수는 감소하더라도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1995년도 충남의 총 재배면적은 275.4천ha로 전국의 작물 재배면적의 12.5%를 점하고 있으며, 그 중 식량작물이 181.4천ha로 충남재배면적의 65.9%를 점하고, 그 중에서도 미곡이 167.5천ha로 식량작물의 92.3%를 점하고 있으며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은 거의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작물별 재배면적(ha)의 변화

구 분		1 9 9 0 년					1 9 9 5 년				
		전국(A)	충남(B)	%	B/A×100	특 화 수 계	전 국	충 남	%	B/A×100	특 화 수 계
총 계		2,409,360	295,006	100.0	12.2	-	2,196,640	275,399	100.0	12.5	-
식량작물	소 계	1,668,730	205,033	69.5	12.3	1,003	1,346,163	181,361	65.9	13.5	1,075
	미 곡	1,244,341	182,504	61.8	14.7	1,198	1,055,868	167,464	60.8	15.9	1,265
	맥 류	159,609	1,873	0.6	1.2	0.096	89,814	317	0.1	0.4	0.028
	잡 곡	37,030	962	0.3	2.6	0.212	28,097	1,068	0.4	3.8	0.303
	두 류	187,696	18,024	6.1	9.6	0.784	132,535	10,705	3.9	8.1	0.644
	서 류	40,060	1,670	0.6	4.2	0.340	39,849	1,807	0.7	4.5	0.362
채 소		276,610	32,741	11.1	11.8	0.967	371,782	34,429	12.5	10.7	0.853
특 용 작 물		130,071	20,195	6.8	15.5	1.268	122,450	16,976	6.2	13.9	1.106
과 실		131,517	9,947	3.4	7.6	0.618	172,367	13,159	4.8	7.6	0.609
뽕 발		7,532	626	0.2	8.3	0.679	2,059	314	0.1	15.3	1.216
기타수원지		15,607	1,714	0.6	11.0	0.897	25,941	3,625	1.3	14.0	1.115
시 설 작 물		44,613	4,166	1.4	9.3	0.736	92,498	9,236	3.4	10.0	0.796
기 타		134,674	20,584	7.0	15.3	1.248	113,380	16,299	5.9	14.4	1.147

자료 : 농림수산부, 「1990·1995 농림수산물통계연보」.

그리고 채소 34.4천ha(12.5%), 특용작물 17.0ha(6.2%)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과실, 뽕발, 기타 수원지, 시설작물 등은 전체 작물재배면적 중에서 미미한 부분을 점하고 있다.

또한 충남지역의 작물재배의 특화정도는 미곡이 1.265, 뽕발 1.216, 특용작물 1.106 등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 시설작물 등은 특화지수가 1보다 낮게 나타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지역에서는 상대적, 절대적으로 미곡 중심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작물 재배면적의 변화를 1990년과 1995년의 살펴보면 총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설작물의 재배면적이 121.7%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잡곡, 서류, 채소, 과실 등의 면적은 다소 증가하였다

3. 농가경제

1995년도 충남의 농가소득은 호당 22,516천원으로 전국평균 21,803천원보다 높고, 경기도, 제주도에 이어 3번째이다. 농가소득의 구성은 농업소득

이 11,988천원으로 53.2%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의 48.0%와 비교해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감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제주도 다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외소득은 6,931천원으로 27.5%로 금액에 있어서 경기, 경남, 제주, 전북에 이어 5번째이다.

농가 호당 평균가처분소득과 경제잉여는 각각 22,353천원, 7,402천원으로 전국평균보다는 많고, 경기도와 제주도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부채는 8,928천원으로 전국평균보다는 적은 액수이지만, 전북, 전남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의 원천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농업조수익의 구성을 보면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축산이 39.3%인 7,859천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양축비가 3,026천원으로 경영비가 많이 들었고, 미곡이 7,156천원으로 35.8%, 그 다음으로 채소, 특작, 과수가 각각 16.3%, 4.7%, 과수가 1.7%를 점하고 있다.

Ⅳ. 충남의 농산물생산 현황

1. 벼

충청남도의 벼는 전체 작물 재배면적의 61.8%를 차지하고, 농업조수익에 있어서도 35.8%를 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작물이다. 재배면적은 1995

<표 10> 농가경제 주요 지표

(단위 : 천원)

구 분	농 가 소 득								가처분 소 득	경제잉여	농가부채
	합 계	%	농업소득	%	농외소득	%	이전수입	%			
전국평균	21,803	100.0	10,469	48.0	6,931	31.8	4,403	20.2	21,629	6,299	9,163
충남평균	22,516	100.0	11,988	53.2	6,185	27.5	4,344	19.3	22,353	7,402	8,928
충남/전국	1.03	-	1.15	-	0.89	-	0.99	-	1.03	1.18	0.97

자료 : 농림수산부, 「1995 농림수산물통계연보」.

<표 11> 농업조수익의 구성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미 곡		채 소		특 작		과 수		축 산		기 타	
		%		%		%		%		%		%		%
전국평균	16,012	100.0	5,450	34.0	3,386	21.1	805	5.0	1,542	9.6	3,981	24.9	848	5.3
충남평균	19,998	100.0	7,156	35.8	3,269	16.3	938	4.7	341	1.7	7,859	39.3	435	2.2
충남/전국	1.25	-	1.31	-	0.97	-	1.17	-	0.22	-	1.97	-	0.51	-

자료 : 농림수산부, 「1995 농가경제통계」.

년에 167,432ha로 전국의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에 이어 두번째 넓은 면적이다. 재배면적의 변화는 1989부터 1995년에 걸쳐서 연평균 15%씩 감소하여 전국의 감소를 2.9%보다는 낮으나, 충남지역의 산업화의 진전으로 점차 재배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벼의 생산량은 1995년에 995,477 M/T로 전국 생산량의 15.6%를 점하고 있어, 전남과 전북에 이어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지만 재배면적의 감소와 단위당 수량의 감소로 연평균 3.1%씩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평균 감소율과 비교할 때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95년에 595kg/10a로 전국평균 605kg/10a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예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노동력의 감소와 조방적인 재배로 인하여 매년 감소하고 있고, 연평균 감소율은 1.6%로 전국의 감소를 0.9%보다 높은 편으로 충남의 벼 생산량의 증가를 위해서는 재배면적의 확대 못지 않게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증대가 필요할 것이다.

벼의 생산비는 충남의 자료를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10a당 쌀 생산을 위한 비용의 합계는 218,713원으로 그 중 노

〈표 12〉 충남도의 벼(논벼) 재배면적과 생산량

연 도	재 배 면 적(ha)			생 산 량(M/T)			10a당 수량(Kg)		
	전 국	충 남	비 중	전 국	충 남	비 중	전 국	충 남	비 교
1990	1,241,803	182,358	14.7	7,713,754	1,191,134	15.4	621	653	105.2
1995	1,055,337	167,432	15.9	6,387,301	995,477	15.6	605	595	98.2
증감률*	-2.9	-1.5	-	-3.9	-3.1	-	-0.9	-1.6	-

* 1989년부터 1995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자료 : 농림수산부, 「각 연도 농림수산물통계연보」.

〈표 13〉 10a 쌀 생산비 비목합계

연 도	비목합계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기타제재료비	영농광열비	수리비	농기비	영농시설비	축력비	위탁영농비	노력비
1990	175,895	5,539	15,531	12,394	1,788	1,014	2,380	40,994	1,089	1,007	0	94,159
	100.0	3.1	8.8	7.0	1.0	0.6	1.4	23.3	0.6	0.6	-	53.5
1995	218,713	6,826	16,436	14,971	1,930	1,423	3,536	59,949	1,270	318	1,838	110,216
	100.0	3.1	7.5	6.8	0.9	0.7	1.6	27.4	0.6	0.1	0.8	50.4

자료 : 농림수산부, 「1990·1995 농림수산물통계연보」.

력비가 50.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기구비가 27.4%, 그 다음으로 비료비, 농약비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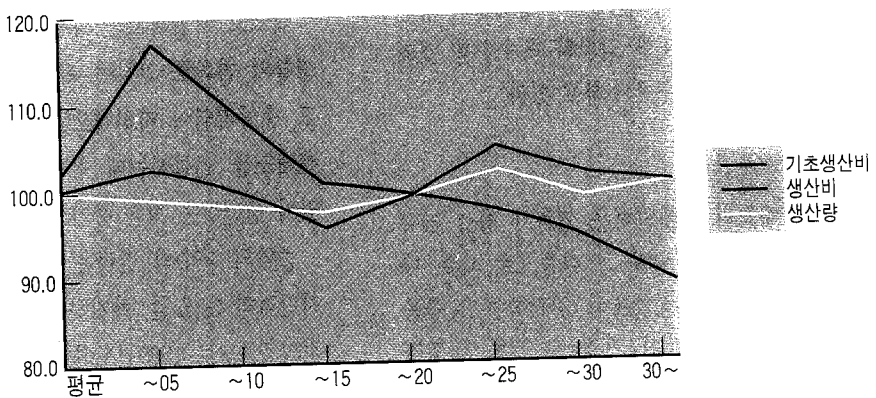
비목합계의 구성비의 변화를 보면, 노력비가 1990년에 53.5%이었던 것이 1995년에는 50.4%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으며, 그 대신 농기구비가 23.3%에서 27.4%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기구의 보급·이용의 증가에 따라서 노동력이 농기구로 대체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작업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1990년에 80%내외이었던 것이 1995년에는 100%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작규모별 10a당 벼 생산비를 1995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초생산비는 규모가 커질수록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주로 농기구비와 노력비의 절감에서 기인되었다.

생산비는 1.5~2.0ha규모의 생산농가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a당 생산량은 1.0~1.5ha규모의 생산농가가 가장 적고, 2.0~2.5ha규모의 농가가 가장 많았다. 기초생산비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에서 있어서 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토지용역비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증가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상의 규모간의 생산비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기술체제하에서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규모의 확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앞으로 규모 확대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농가가 토지용역비에서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규모 기계화 기술체제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 「농림수산 통계연보」, 1996.

<그림 1> 규모별 10a당 쌀생산비

〈표 14〉 주요 식량작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작목	면 적(ha)									생 산 량(M/T)								
	1990			1995			증 감 률			1990			1995			증 감 률		
	전국	충남	%	전국	충남	%	전국	충남		전국	충남	%	전국	충남	%	전국	충남	
보리	159,135	1,741	4.3	87,497	288	1.6	-45.0	-83.5		574,490	6,331	4.2	392,952	1,000	1.2	-31.6	-84.2	
감자	21,091	774	3.7	24,941	951	3.8	18.3	22.9		370,520	11,398	3.1	592,182	18,599	3.1	59.8	63.2	
고구마	18,969	896	4.7	14,908	856	5.7	-21.4	-4.5		431,689	16,585	3.8	304,806	15,656	5.1	-29.4	-5.6	
옥수수	25,987	593	2.3	17,541	636	3.6	-32.5	7.3		119,868	723	0.6	74,465	782	1.1	-37.9	8.2	
콩	152,265	13,776	9.0	105,035	7,848	7.5	-31.0	-43.0		232,786	19,975	8.6	159,640	11,380	7.1	-31.4	-43.0	
팥	21,687	2,366	10.9	18,225	1,632	9.0	-16.0	-31.0		23,013	2,461	10.7	18,973	1,697	8.9	-17.6	-31.0	
녹두	5,003	647	12.9	2,675	368	13.8	-46.5	-43.1		5,291	679	12.8	2,821	394	14.0	-46.7	-42.0	

자료 : 농림수산부, 「1990·1995농림수산물통계연보」.

2. 식량작물

충남지역의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은 1995년에 290천ha로 전체재배면적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콩, 팥, 조를 제외하고는 식부면적이 1,000ha 이하이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생산량의 비율도 10%이상 되는 것은 녹두 뿐으로 식량작물의 생산은 미약한 상태이며, 또한 감자와 옥수수를 제외하고는 매년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3. 원예

1995년도 채소의 재배면적은 고추가 가장 많아 7,962ha를 재배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배추, 마늘, 생강 순이었으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를 차지하는 생강이 가장 높으며, 배추가 31.2%, 다음으로 딸기, 마늘, 파 등이 높았다.

채소의 재배 면적은 매년 변동이 큰 작물로서 단지 2개년도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1990년과 1995년의 재배면적을 비교하면, 양파가 381.2%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생강, 호박, 토마토 등도 50%이상 증가한 반면, 딸기가 48.3%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마늘, 참외, 배추, 무 등도 감소하였다.

앞으로 시설채소는 사계절 재배가 가능하고, 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충남지역이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하여 신선채소를 공급하는데 유리한 시장조건을 가지고 있어 생산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충남의 과수의 면적은 1995년에 13,159ha로 경지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과수면적의 7.6%로 1990년도와 비교해서 32.3% 증가하였다.

과수 중에서 사과와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1995년에 4,727ha를 재배하여 85,201M/T를 생산하였

〈표 15〉 채소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작목	면 적(ha)									생 산 량(M/T)								
	1990			1995			증 감 률			1990			1995			증 감 률		
	전국	충남	%	전국	충남	%	전국	충남		전국	충남	%	전국	충남	%	전국	충남	
오이	3,022	437	14.5	2,600	426	16.4	-14.0	-2.5		71,650	11,261	15.7	77,206	12,320	16.0	7.8	9.4	
호박	2,444	176	7.2	4,124	276	6.7	68.7	56.8		42,899	3,307	7.7	79,962	5,647	7.1	86.4	70.8	
참외	3,951	379	9.6	2,254	268	11.9	-43.0	-29.3		69,419	6,723	9.7	38,288	4,803	12.5	-44.8	-28.6	
수박	20,277	2,414	11.9	26,230	2,372	9.0	29.4	-1.7		446,876	55,329	12.4	588,022	60,296	10.3	31.6	9.0	
토마토	493	26	5.3	593	46	7.8	20.3	76.9		14,386	798	5.5	19,080	2,247	11.8	32.6	181.6	
딸기	2,142	410	19.1	1,193	212	17.8	-44.3	-48.3		26,822	5,141	19.2	16,151	1,993	12.3	-39.8	-61.2	
배추	43,822	4,896	11.2	39,977	3,749	9.4	-8.8	-23.4		3,240,987	486,996	15.0	2,637,806	401,565	15.2	-18.6	-17.5	
시금치	3,013	140	4.6	4,353	168	3.9	44.5	20.0		36,278	1,743	4.8	55,386	2,083	3.8	52.7	19.5	
상추	2,497	66	2.6	2,751	64	2.3	10.2	-3.0		42,807	1,135	2.7	51,142	1,219	2.4	19.5	7.4	
양배추	3,933	235	6.0	6,651	447	6.7	69.1	90.2		144,334	7,844	5.4	261,787	15,797	6.0	81.4	101.4	
무	34,642	4,306	12.4	31,052	4,154	11.7	-10.4	-15.9		1,686,228	225,902	13.4	1,289,823	141,706	11.0	-23.5	-37.3	
당근	4,270	128	3.0	5,890	174	3.0	37.9	35.9		86,610	2,264	2.6	158,694	3,433	2.2	83.2	51.6	
고추	62,759	5,644	9.0	87,469	7,962	9.1	39.4	41.1		132,748	10,320	7.8	192,331	14,427	7.5	45.6	39.8	
마늘	43,643	7,284	16.7	39,636	4,967	12.5	-9.2	-31.8		416,774	53,173	12.8	461,735	40,630	8.8	10.8	-23.6	
파	18,548	1,847	10.0	23,010	2,756	12.0	24.1	49.2		465,510	44,513	9.6	553,163	56,746	10.3	18.8	27.5	
양파	7,602	85	1.1	15,817	409	2.6	108.1	381.2		407,353	3,791	0.9	974,619	16,654	1.7	139.3	339.3	
생강	3,741	2,462	65.8	6,429	4,626	72.0	71.9	87.9		34,326	21,198	61.8	52,752	35,759	67.8	53.7	68.7	

자료 : 농림수산부, 「1990·1995농림수산물통계연보」.

으며, 1990년과 비교할 때 면적은 감소하였지만 생산량은 11.9%증가하였다. 배는 전국생산량의 12.4%에 해당하는 21,166M/T를 생산하였으며, 1990년에 비해서 104.8%나 증가하여 3,035ha이다. 그 밖의 과수는 포도가 1990년에 비해서 면적이 113.4%나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감의 재배면적이 증가했지만, 자두와 복숭아는 감소하였다.

4. 축 산

1995년도에 한육사육 농가수, 두수, 호당 사육두수는 각각 70,952호, 396,912두, 5.6두이었으며, 젓소는 3,798호, 83,258두, 21.9두, 돼지는 14,176호, 1,201,213두, 84.7두, 닭은 27,311호, 11,600,143마리, 424.7마리였다.

전국대비 충남의 사육현황은 한육우가 15.3%,

〈표 16〉 과수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작목	면 적(ha)									생 산 량(M/T)								
	1990			1995			증 감 률			1990			1995			증 감 률		
	전국	충남	%	전국	충남	%	전국	충남		전국	충남	%	전국	충남	%	전국	충남	
사과	48,833	4,932	10.1	50,103	4,727	9.4	2.6	-4.2		628,947	74,701	11.9	715,982	85,201	11.9	13.8	14.1	
배	9,058	1,482	16.4	15,752	3,035	19.3	73.9	104.8		159,335	16,162	10.1	178,321	22,166	12.4	11.9	37.1	
복숭아	12,333	1,355	11.0	10,241	978	9.5	-17.0	-27.8		114,578	13,144	11.5	129,640	12,606	9.7	13.1	-4.1	
포도	14,962	1,519	10.2	26,030	3,242	12.5	74.0	113.4		131,324	15,129	11.5	316,443	35,143	11.1	141.0	132.3	
감	13,581	318	2.3	25,009	464	1.9	84.1	45.9		95,758	2,560	2.7	194,585	4,123	2.1	103.2	61.1	
자두	3,191	46	1.4	2,693	19	0.7	-15.6	-58.7		25,211	263	1.0	25,263	128	0.5	0.2	-51.3	

자료 : 농림수산부, 「1990·1995 농림수산물통계연보」.

〈표 17〉 주요 가축의 사육현황

연 도	한 육 우			젖 소			돼 지			닭		
	농가수	두 수	두수/가구	농가수	두 수	두수/가구	농가수	두 수	두수/가구	농가수	두 수	두수/가구
1990	78,314	223,359	2.9	5,103	64,109	12.6	31,141	737,946	23.7	14,335**	9,402,722	655.9
1995	70,952	396,612	5.6	3,798	83,258	21.9	14,176	1,201,213	84.7	27,311	11,600,143	424.7
증감률*	-1.3	12.0	13.3	-4.6	5.3	9.9	-18.0	8.6	26.6	7.2 (-5.2)***	6.2 (4.3)	-1.0 (9.5)

** 1989년부터 1995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 1990년의 닭 농가수는 비정상적으로 적음.

*** 1991년 이후의 증감률임.

자료 : 농림수산부, 「각 연도 농림수산물통계연보」.

육우가 15.0%, 돼지가 18.6%, 닭이 13.5%로 대체적으로 15%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돼지 사육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국평균 가구당 마리수는 한육우 5.0두, 젖소 23.5두, 돼지 140.8두, 닭 421.8마리로, 한우와 닭은 전국평균보다 많았지만, 젖소와 돼지의 경우에는 전국평균보다 적었다.

주요 가축의 사육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육우의 경우 농가수에 있어서는 매년 평균 1.3%씩 감소하였으며, 사육두수는 12.0%씩 증가하여 가구당 사육두수는 13.3%씩 증가하였으며, 젖소의 사육농가수는 매년 평균 4.6%씩 감소하였으며, 사육두수는 5.3%씩 증가하여 가구당 사육두수는 9.9%씩 증가하였다.

돼지의 사육농가수는 매년 평균 18.0%씩 감소하였으며, 사육두수는 8.60%씩 증가하여 가구당 사육두수는 26.6%씩 증가하였다. 닭은 1990년도 통계에서 사육농가수가 14,335호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농가호수와 사육두수의 증가율이 각각 7.2%, 6.2%로 가구당 사육두수는 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91년이후의 통계로 한정했을 때에는 농가호수와 사육두수의 증감율이 각각 -5.22%,

4.3%, 가구당 사육두수는 9.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비교해 볼 때, 농가수의 감소율은 돼지가 가장 높고, 사육두수의 증가율은 한육우가 가장 높았으며, 가구당 사육규모의 증가율은 돼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부문은 모든 축종에서 사육농가수의 감소, 사육두수의 증가로 인하여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가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사육규모별 농가수의 변화를 1990년과 1995년을 비교해 보면 <표 18>과 같다.

<표 18> 주요 가축의 사육규모별 농가수의 변화

(단위 : %)

	연도	총가구수	1~2	3~4	5~6	7~9	10~14	15~19	20~29	30~49	50이상
	연도	총가구수	1~2	3~4	5~6	7~9	10~14	15~19	20~29	30~49	50이상
한육우	1990	79,329	74.0	12.8	5.2	3.0	2.7	1.1	0.7	0.4	0.2
	1995	70,952	44.0	20.8	10.8	9.2	7.2	3.1	3.0	1.5	0.4
	증감	-8,377	-30	8.0	5.6	6.2	4.6	2.0	2.3	1.1	0.2
젖 소	연도	총가구수	1~2	3~4	5~6	7~9	10~14	15~19	20~29	30~49	50이상
	1990	5,148	10.2	8.1	11.6	16.6	23.2	13.8	10.5	4.6	1.4
	1995	3,798	4.3	5.2	5.1	6.5	14.8	16.9	24.7	18.2	4.4
	증감	-1,350	-5.9	-2.8	-6.5	-10.2	-8.4	3.0	14.3	13.6	3.0
돼 지	연도	총가구수	1~4	5~9	10~19	20~29	30~49	50~99	100이상	-	-
	1990	32,170	67.4	7.1	8.9	3.9	3.7	4.3	4.7	-	-
	1995	14,176	45.3	9.5	13.7	4.2	5.1	6.7	15.5	-	-
	증감	-17,994	-22.1	2.4	4.8	0.3	1.4	2.4	10.8	-	-
닭	연도	총가구수	1~19	20~49	50~499	500~999	1000~1999	2000~4999	5000~9999	10000 이상	-
	1990	15,500	81.8	7.6	2.5	0.4	1.2	2.5	1.9	2.1	-
	1995	27,311	91.1	4.9	1.2	0.1	0.3	0.2	0.6	1.6	-
	증감	11,811	9.2	-2.7	-1.2	-0.3	-1.0	-2.2	-1.3	-0.6	-

자료 : 농림수산부, 「1990 농업총조사(총농가)」.

농림수산부, 「1995 농림수산물통계연보」.

한육우는 1990연도에는 1-2마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74.0%나 되었으나, 1995년에는 44.0%로 30%감소하였으며, 1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1990년에 5%를 점하고 있으나, 1995년에는 10.2%로 총 사육가구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점점 사육규모의 확대가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육우를 전업적으로 사육하기보다는 부업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대부분으로 앞으로 점차 규모의 확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젖소는 한우와는 달리 역축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출몰하였기 때문에 1990년에 10두 이상 사육농가수의 구성비는 53.5%를 넘었으며, 30두 이상의 사육농가수도 1990년에 6.0%에서 1995년에는 22.6%에 이르게 되었다.

돼지는 사육농가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으로서 1990년에는 1-4마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67.4%를 점하고 있었으나, 1995년에는 45.3%로 줄어들었으며, 1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도 1990년에는 4.7%에 불과했지만, 1995년에는 15.5%로 증가하여 돼지도 규모의 확대가 매우 급

〈표 19〉 시군별 가축사육현황(1995)

시·군	한 육 우			젖 소			돼 지			닭		
	두 수	%	증가율*	두 수	%	증가율*	두 수	%	증가율*	마리수	%	증가율*
충남도	380,726	100.0	71.7	76,770	100.0	20.8	1,136,750	100.0	69.4	12,092,286	100.0	25.5
천안시	10,982	2.9	21.8	13,870	18.1	-1.8	118,758	10.4	169.1	1,758,123	14.5	25.5
공주시	39,256	10.3	64.5	3,990	5.2	8.2	62,706	5.5	83.0	530,395	4.4	1.4
보령시	24,866	6.5	132.5	4,175	5.4	41.7	68,823	6.1	184.0	748,522	6.2	-13.1
아산시	12,731	3.3	29.3	11,728	15.3	-0.1	74,571	6.6	49.4	1,326,482	11.0	-3.4
서산시	38,521	10.1	92.4	4,121	5.4	11.9	52,702	4.7	69.3	1,010,205	8.4	88.8
논산시**	20,518	5.4	32.8	2,501	3.3	8.5	17,385	8.8	22.1	1,371,733	11.3	92.1
금산군	10,328	2.7	36.8	1,406	1.8	66.6	44,357	1.5	23.1	159,615	1.3	45.5
연기군	16,962	4.5	35.5	3,010	3.9	55.2	100,498	3.9	67.1	818,011	6.8	42.5
부여군	24,475	6.4	101.2	2,194	2.9	24.0	23,781	2.1	-5.7	616,430	5.1	-13.2
서천군	7,864	2.1	106.1	1,504	2.0	21.4	19,038	1.7	11.7	588,370	4.9	195.6
청양군	25,718	6.8	90.8	1,132	1.5	10.1	34,219	3.0	59.9	421,482	3.5	58.9
홍성군	54,918	14.4	87.1	4,726	6.2	29.4	261,258	23.0	111.9	853,498	7.1	-18.7
예산군	38,522	10.1	71.8	10,901	14.2	39.3	77,163	6.8	63.5	708,173	5.9	42.2
태안군	13,064	3.4	91.2	3,337	4.3	181.1	12,819	1.1	22.3	109,107	0.9	59.7
당진군	42,001	11.0	69.9	8,175	10.6	45.9	167,672	14.8	40.4	1,072,140	8.9	37.8

* 증가율=(1995년 마리수 - 1990년 마리수)÷1990년 마리수×100

** 계통출장소 포함

자료 : 농업수산부, 1990 농업총조사 ; 1995 농업총조사 속보.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닭은 1991년이후에는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1990년의 통계가 평년에 비해서 매우 이상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표만 제시하였다.

시군별 주요가축의 사육현황은 <표 19>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육우는 홍성군이 54,918두로 도 전체 사육수의 14.4%를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당진군, 공주시, 서산시 등이 10%이상을 점하고 있다. 1990년과 1995년의 사육두수의 증가율은 보령시가 132.5%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서천군, 부여군이 각각 106.1%, 101.2% 증가하여 농촌지역일수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젖소는 천안시가 13,870두로 도 전체 사육수의 18.1%를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아산시가 15.3%, 예산군이 14.2%를 점하고 있어 한육우와는 다르게 시 지역에서 많이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과 1995년의 사육두수의 증가율은 태안군이 181.1.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금산군과 연기군이 각각 66.6%, 55.2%씩이었으며, 도시 지역인 천안시와 아산시는 근소하지만 감소하였다.

돼지는 홍성군이 261,258두로 도 전체 사육수의 23.0%를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당진군과 천안시가 14.8%, 10.4%씩 차지하고 있다. 1990년과 1995년의 사육두수의 증가율은 보령시, 천안시, 홍성군이 10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부여군은 오히려 5.7% 감소하였다.

닭은 천안시가 1,758,123마리로 도 전체 사육수의 14.5%, 그 다음으로 논산시가 11.3%, 아산시가

11.0%를 점하고 있다. 1990년과 1995년의 사육두수의 증가율은 서천군이 195.6%로 제일 높으며, 홍성군, 부여군, 보령시는 10%이상 감소하였다.

V. 요 약

농업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의해서 타 산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또한 국제간, 국내의 산지간의 경쟁심화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충남지역의 농업은 지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기회나 지역내 총생산측면에서 매우 높은 편으로 아직까지 농업산업의 진흥은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충남지역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충남지역 농업의 변화과정과 현황과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의 충남농업의 변화와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충남의 전체 산업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수에 있어서 34.9%, 취업인구는 43.2%, 경지면적은 31.9%, 총생산액은 20.9%에 해당한다. 최근의 감소율은 농가수, 취업인구, 경지면적의 순이었으며, 앞으로 충남지역의 급진전되는 산업화와 함께 농업부문의 비중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전국에서 충남농업은 농가호수, 농가인구, 경지면적 등에서 13%내외를 점하고 있으며 경북, 전남에 이어 3위이다. 도내 시군은 농가수, 농업인구, 경지면적 등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는 당진, 서산, 논산, 부여, 상대적으로는 청양, 태안 등이 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충남의 농가호수는 1990년부터 1995년에 걸

쳐서 14.7%, 농가인구는 28.9% 감소하였는데, 연령별 농가인구의 구성은 50세 미만층은 감소하였으며 50세 이상층은 증가하였는데, 특히 60세 이상층 연령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형태별 농가수는 1994년에 전업이 58.8%, 2종겸업이 26.1%, 1종겸업이 15.9%로 아직까지 겸업에 비해서 겸업농가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전업농가와 1종겸업농가는 줄어들고 있으나 2종겸업은 매우 증가하였다.

3. 충청남도의 농경지는 1995년에 272,337ha로, 논이 70.9%, 밭은 29.1%이며, 가구당 경지면적은 141.2a로 논이 100.1a, 밭이 41.1a를 차지하고 있다. 총 경지면적은 매년 0.53%씩 감소하였으며, 밭에 비해서 논의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규모별 농가수의 변화는 0.5ha~2.0ha는 감소하였고, 0.5ha미만과 2.0ha이상의 계층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3.0ha이상의 농가수가 급증하여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작물의 재배면적은 275.4천ha로 전국의 12.5%를 점하고 있으며, 미곡이 60.8%로 제일 많고, 맥류와 두류의 재배면적은 감소하였고, 시설작물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4. 농가소득은 22,516천원으로 그 중 농업소득은 53.2%, 농외소득은 27.5%, 나머지 19.3%는 이전수입으로, 전국평균치와 비교해서 농가소득은 많지만 농외소득은 적었다. 농업조수익의 구성은 축산이 39.3%, 미곡이 35.8%로 가장 많았다.

5. 벼재배 면적은 167천ha, 생산량은 995천M/T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9%, 15.6%

이며, 매년 면적은 1.5%씩, 생산량은 3.1%씩 감소하고 있다. 규모별 생산비를 볼 때 기초생산비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지만, 생산비로 비교할 때는 1.0~1.5ha의 규모에서 가장 적었다.

6. 1995년도에 한육우의 경우 사육 농가수, 두수, 가구당 사육두수가 각각 70,952호, 396,912두, 5.6두, 젖소는 3,798호, 83천두, 21.9두, 돼지는 14,176호, 1,201천두, 84.7두, 닭은 27,311호, 11,600천마리, 424.7마리였다. 가축사육 농가수의 감소율은 돼지가 가장 높고, 사육두수의 증가율은 한육우가 가장 높았으며, 호당 사육규모의 증가율은 돼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사육두수는 한육우와 돼지는 홍성군이 각각 14.4%, 23.0%, 젖소와 닭은 천안시가 각각 18.1%, 14.5%로 가장 많았다. **열린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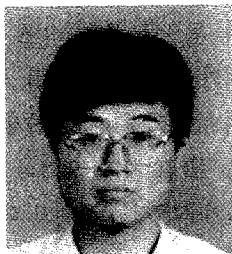
참 고 자 료

- 농림수산부, 1990 농업총조사, 1991.
- _____, 농림수산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농가경제통계, 1990·1995.
- 충청남도, 충청남도 농업종합센터 조성 기본계획, 1996.
- _____, 농어촌 활성화 10대시책, 1996.
- _____, 지역백서, 각 연도.
- _____, 충남통계연보, 각 연도.

21세기 한국농업의 발전전략과 미래모습

조 재 환
(曹在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I. 한국농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 II.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발전전략
- III. 21세기 한국농업의 미래모습

I. 한국농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70년 중반까지 농업은 공업부문에 비해 투자 우선순위에서 열위에 있었지만, 식량생산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식량생산이 부족하고 외환이 부족하였던 이 시기에는 주곡을 자급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이 농정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농·공간 생산성과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농가소득 문제가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가격정책이 농정전면에 부상하였으나, 양특적자로 인한 양정전환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경제정책 기조 역시 가격정책의 후퇴와 물가안정이라는 쪽으로 선회하는 「개방농정」을 등장시켰다. 과거와는 달리 외환사정이 호전되어 필요한 식량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이 농산물의 국제가격이 장기적 하락추세가 나타나자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은 그 중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개방농정」은 수입농산물이 국내 농산물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농업은 식량공급능력의 쇠퇴와 농가경제의 부실화를 계속 겪게 되었다.

8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90년 초반까지는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본격화된 시기로 한국농업의 국내외 여건변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농정 전환기」인 이 시기에는 89년 GATT의 BOP조항 졸업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 계획이 발표되었고, 93년 UR 농산물협정으로 국경보호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보조방식에서도 제한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내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어촌종합대책」이 마련되었으며 농업구조개선사업이 농정시책 전면에서 부상하였다.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은 이제부터 「개혁 농정기」를 맞게 되었다. 국제무역기구(WTO)의 출범은 세계경제가 하나의 교역규범과 하나의 국제무역기구에 의해 규율되는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 분야에서도 자유무역체제가 확립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점차 국경이 없어지면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할 것이며 한국농업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개혁 농정기인 21세기는 우리의 능력과 대처노력에 따라 한국농업의 생존여부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다.

II.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발전전략

1.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개혁

「개방농정」이 대두된 이래 한국농업은 경제논리로 존립기반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경제논리 이전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한국농업은 경쟁력이 없기때문에 과감히 축소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속되어 왔다. 이 두 가지 주장은 모두 한국농업은 하나의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없다는 데에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농

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21세기의 한국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같은 패배주의적 인식을 타파하고 한국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인식의 합의」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가. 농업발전에 대한 자신감 회복

지난 1세기 동안 세계 각국은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호관세, 수량규제를, 그리고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조금지원 등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였다. 또한 자국 농민의 소득지지를 위해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수매가격 지지, 최저가격 보장, 생산비 보조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UR 농산물협정과 국제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은 이제 보호주의 아래 길들여진 세계 각국 농업에게 벅찬 도전이 될 것이다.

현재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저개발국가들도 조만간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발전단계에 도달하면 이 같은 교역질서의 대변혁은 극복할 수 없는 제약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 개도국은 물론 농산물 수입 선진국들에게도 이 같은 대변혁은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같은 교역질서의 대변혁은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간에도 큰 파장과 마찰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세계적인 기상 이변과 식량위기 등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국제무역기구체제의 출범은 어느 향로를 거쳐 항해를 해 나갈 지에 대한 문제

가 계속 남게 된다.

한편 UR 농산물협정과 국제무역기구(WTO)의 출범은 한국 농업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속에서도 한편으로는 한국농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농업의 미래는 국내외 농업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주어진 환경변화속에서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간의 모든 교역문제가 국제무역기구(WTO)에 의하여 관리조정되므로 강대국의 불공정한 수입규제나 개방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축소되어 우리 농산물의 수출이 그 만큼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이 반드시 우리 농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세계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축소되어 농산물 교역이 확대될 경우 세계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 또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향상되는 결과

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농산물이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데에는 가격 경쟁만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과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소비자들의 그러한 차별적 기호를 개발함으로써 가격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 농산물 교역환경 변화에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경우 UR 농산물협정과 국제무역기구(WTO)의 출범은 한국농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농업역할에 대한 인식전환

농업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야말로 농업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한국농업의 역할은 식품 유통업, 가공업, 농기업을 포괄하는 산업연관적 측면과, 그리고 농촌환경과 생태계보전이라는 환경조화적 측면보다는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범주에 국한되어 평가되어 왔다. 1970년대 중반이후 20여년 동안 세계 곡물 재고량의 증가와 가격하락은 「개방농정」 등장과 함께 「식량안보」의 중요성마저 반감시켰고,

〈표 1〉 세계 주요곡물의 재고율 변화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쌀	16.7	17.7	17.1	17.0	11.6
밀	25.0	25.6	34.8	25.9	19.2
사료작물	14.9	17.1	27.3	16.6	11.5

주) 1. 기말재고가 총소비에 차지하는 비율.

2. 사료곡물은 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호밀 등을 포함.

자료 : USDA FAS, Grain - World markets and Trade.

그 만큼 농업의 중요성은 퇴색되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곡물 생산이 감소한 반면, 인구증가와 소득증대에 힘입어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85년에 비해 1995년 세계 곡물재고율(총소비량 대비 재고 비축분 비중)이 밀과 사료곡물의 경우 15% 정도, 그리고 쌀의 경우 5%정도 감소하였다. 이 같은 95년의 상황은 세계적인 식량위기로 곡물가격이 폭등하였던 1972~73년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쌀과 사료곡물의 경우 재고율이 FAO의 권장수준인 17~18%보다 약 5~6%정도 크게 밑도는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식량사정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망하면 비관적인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징후가 발견된다. 세계 식량사정에 대한 비관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로는 첫째, 농업자원의 집약적 이용으로 자연생태 환경의 파괴문제를 심각히 경험한 바 있는 미국과 EC 등 선진국들이 「지속적 환경보전적 농업」을 농정 전면에 부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식량 수출국이었던 이들 국가들이 농업자원 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저투입 농업, 유기농법, 휴경제 등 조방적 농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세계 식량사정은 낙관적일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세계적으로 경지면적의 외형적 확대가 이미 한계에 달하였고, 아프리카, 중국, 미국 등의 사막화 현상과 함께 지구환경의 악화로 기상재해의 빈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이므로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증가가 식용곡물의 생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비료, 농약 잔류에 대한 식품유해 논쟁이 거세짐에 따라 저투입 농산물 소비증가 추세에 맞춰 농업생산체계 역시 저투입 농업이 도입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의 세계식량 사정하에서 한국농업의 역할은 「식량안보」 보장, 즉 “세계 식량사정이 어떠한 변화와 충격에 빠지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칼로리를 공급할 수 있는 농업생산수준 유지”라는 양적인 안전성과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식품소비 보장”이라는 질적 안전성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한편 21세기에는 한국농업이 일차적으로 담당해야 할 「식량안보」 보장이라는 역할 이외에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역문화 유지라는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영농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하여야만 자연생태계 역시 보전된다. 한국과 같은 몬순기후 지역의 경우 그리고 수전농업이 중심이 되는 경우 논이 항상 담수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강우량이 일시적으로 저장되거나 하천유입속도를 완만하게 하여 범람의 피해를 줄이고, 표토의 유실을 방지하는 등 수자원 및 토양보존이 가능하다. 농촌지역의 산과 들에 나무, 작물, 목초 등이 자라고 또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정비작업이 영농활동에 의해 수반되므로 자연공간 또한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인간에게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업의 자연생태계 유지기능은

최근 선진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관광, 휴양, 그리고 민박활동 등이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잘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 마다 크고 작은 문화재가 있고, 또 설화, 음악, 무용, 놀이, 생활양식 등 전통문화가 면면히 전해내려 오고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 민박, 농촌지역의 관광이나 휴양은 단순한 「즐거운 여가」 이상의 의미 - 교육적인 의미 - 가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농업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 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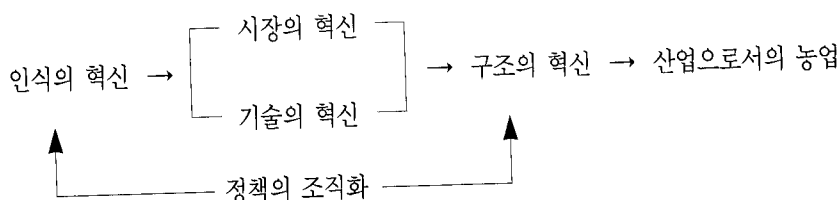
다.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개혁」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의 원리가 관철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보완되고 개선되는 「시장혁신」이 필수적이다. 「시장혁신」이 이뤄진다는 것은 이제까지 농업정책에 혼합되어온 산업정책으로서의 정책개념과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정책개념이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에서 산업정책과 사회복지

이 혼동되면 농업의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며, 결국에는 한국농업의 성장잠재력 감퇴뿐만 아니라 농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정치 사회적 문제로 말미암아 국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장혁신」과 아울러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기술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꾸준한 기술혁신에 의하여 경쟁의 씨앗이 농업에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않으면 경쟁은 불모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생명공학, 반도체 분야 등 첨단기술의 응용으로 토지나 기후 등 자연자원에 대한 절대 의존으로부터 기술과 자본 등의 인위적 요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술 혁신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시장혁신」, 「기술혁신」과 함께 효율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농가에게 농업자본과 농지가 집적되어 이들이 농업생산의 중심이 되는 「구조혁신」이 촉발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같은 혁신의 연쇄반응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정책, 소비정책, 구조정책, 교역정책, 그리고 환경정책이 하



〈그림 1〉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개혁의 개념

나의 체계속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집행되기 위해서 농업정책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2. 한국농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21세기의 한국 농업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은 크게 4부분으로 나뉘질 수 있다. 생산부문에서는 농업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구조개선과 기술개발 전략이, 그리고 소비부문에서는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상품개발 전략과 유통체계 능률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부문에서는 농촌환경 및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하며, 통상 부문에서는 세계 농업정보 수집·분석으로 대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 농업발전을 위한 이같은 전략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들의 우선 순위와 사

업들간 연관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농정주체의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경쟁할 수 있는 터전을 넓혀 주는 일 - 교역정책, 구조정책, 기술정책 등에 주력하고, 그리고 시장기능에 의해 소외되는 시장실패 부문을 보완하는 일 - 자원정책, 환경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에 국한하여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제도와 정책을 기초로 해서 지방자치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한편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간에 우선순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중앙정부의 정책 의도를 벗어 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농정기획 조정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표 2〉 선택적 농가지원 프로그램

구 분	프 로 그 램	내 용
상업적 전업농	○ 농지구입자금 지원 ○ 농지임차 알선 및 임차료 용자 ○ 경영수탁 알선	○ 전업농 중심의 지역생산 조직의 결성지원 ○ 종합금융지원 ○ 기술교육과 경영지도
전직희망 탈농	○ 전직교육 및 보조금 지원 ○ 취업알선	○ 농지신탁 혹은 임대알선과 장려금 지급 ○ 장기임대시 임대료 일시 지급
사회보장 탈농	○ 농지신탁 혹은 임대알선과 장려금 지원 ○ 장기임대차시 임차료 일시 지급	○ 자녀학자보조금 지급(자녀대책) ○ 의료부조금 지급(질병대책) ○ 연금 혹은 최저생계비 보조(생활대책)

가. 농업구조 개선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는 취업구조 조정과 농지유동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구조 조정은 농가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전업농, 전직 탈농, 사회보장 탈농 등 대상 농가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제도를 선택적으로 마련해서 궁극적으로 취업구조 조정과 농지 유동화 촉진이 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업적 전업농에게는 농지구입 지원자금 또는 농지임차 알선과 임차료 용자 등을 지원하고, 사회보장 탈농(노령화된 농가)에게는 임대알선과 경영이양 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지유동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직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전직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촌탈농의 촉진과 농지의 유동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한편 농업구조개선 투자는 농업진흥지역의 수도작 전업농가 또는 농업법인 중심으로 집중되어 그 효과가 타 부문에 파급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쌀은 한국인의 식습관상 식량으로서의 중요성이 다른 어떤 농산물과도 비교될 수 없고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UR 농산물협상에서 쌀은 예외적으로 2004년까지 개도국 우대조치를 받은 품목이며, 또한 쌀이 우량농지 대부분에서 생산되므로 이 부문이 능률화되어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식량안보는 물론 농촌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유지기능 또한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5년 이후 쌀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다시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따라서 쌀에 관한 한 앞으로 통상마찰의 중심 핵으로 부상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검토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앞으로도 수도작 농업은 구조개선 정책의 중심적 관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나. 농업기술 개발

기술개발은 농산물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양적인 측면과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앞으로 국민의 식생활은 고급화되고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도 위생적인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가공식품형태로 소비되는 부문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기술도 이러한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다수확·고품질 품종개발과 비용절감을 위한 재배기술의 개발, 비료와 농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투입재 신제품 개발, 그리고 농산물 가공기술의 개발 등에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

기술개발 체제는 기존의 공공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연구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기술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일부 채소 육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업기술개발이 공공연구기관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다양한 첨단기술의 응용이 필요해지고 농가가 요구하는 기술이 다양해질수록 민간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연구기관만으로는 그와 같은 다양한

기술분야, 다양한 기술개발수요를 전부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의 참여가 가능해지려면 기술개발의 성과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육종법을 개정하여 민간이 농축산물 품종을 개발하여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신품종 등 농업기술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부여하여 개발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분야별로 기술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면, 쌀은 수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동시에 수입미와 맛의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소비자의 기호에 가장 잘 맞는 품종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리는 앞으로 답리작을 중심으로 생산되어 대가축용 사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초다수확이면서 숙기가 빠른 극조생종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답리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습성이 강한 품종육성이 필요하다.

채소와 과일은 특히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도록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기호조사, 시장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농약잔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물농약을 개발하고 바이러스에 강한 내병성 품종을 육성하도록 한다. 또한 시설재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자동제어장치와 열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우에서는 번식능력이 뛰어난 품종육성과 쌍자우 생산기술개발 등으로 값싼 소우를 생산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수입육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미있는 품질의 고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기술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젓소는 개체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돼지와 닭은 비육 혹은 산란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지방질이 적은 고품질 고기를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농산물 수요 촉진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그리고 맛, 멋, 예술을 중시하는 쪽으로 식품소비 형태가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주부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구매 행태도 소형화, 편의화, 개성화, 다품목화 경향을 띄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품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생산 공급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 소비자의 식품 소비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에 주력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 생산·공급이야말로 한국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이 같은 기본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통과 물류기능의 능률화를 꾀하면서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게 농산물의 등급화, 표준화, 품질인증, 안전성 보증제도들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농산물의 수요촉진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면 농산물 수출 역시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과

일, 시설원예, 양계, 양돈, 버섯, 인삼 등의 경우 국제적 비교우위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구미지역에 수출이 가능할 수 있으며, 특히 유통과 물류기능의 능률화와, 농산물의 등급화, 표준화, 품질인증, 안전성 보증제도 등이 정착될 경우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은 더욱 더 용이할 수 있게 된다.

라. 농업의 환경보전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으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과 대기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자원의 환경보전이 매우 긴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비농업부문은 자연을 훼손하고 수질과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된 환경오염원으로 인식된 반면, 농업부문은 토양보존 기능, 수자원 보존 기능, 홍수조절 기능, 대기정화 기능, 그리고 자연생태계 보존 기능을 담당하여 온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어 왔던 전통적인 농법에서 집약적인 농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촌지역에서도 환경보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농업은 살충제, 제초제에 의해 노동생산성을, 그리고 화학비료에 의해 토지생산성을 높여 왔지만 반면에 이에 대한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해충은 물론 익충까지 멸종시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한국농업은 환경보전을 위해 이 같은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본래 갖고 있는 순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

다. 지금의 한국농업은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할 처지이므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하위에 머물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농업구조 개선사업이 완결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탈락되는 한계농지를 대상으로 造林을 하거나 또는 유기농법을 도입하여 가격경쟁력 보다는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방법, 그리고 자연생태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지역개발(예 관광, 휴양, 민박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보전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개발 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료와 농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입재의 신제품 개발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한편 농업구조 조정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농업이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서, 그리고 농촌 지역이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전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 농업 통상정책

WTO 출범과 더불어 향후 UR 무역자유화 논의를 가속화시킬 APEC의 결속, OECD 가입, 뉴라운드, 그린라운드 등에 얼마나 적절히 대처하고 적극 참여하느냐가 개방화, 국제화 속에서 한국농업의 생존여부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농산물 교역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안전한 농산물을 값싸게 수입하거

나 또는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요 농산물 수출·입국의 수급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둘째, 각국의 농업정책의 변화를 상세히 조사 분석할 뿐만 아니라 셋째, 각국의 이해관계와 국제농산물 교역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 농업정보 수집·분석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UR 이후 새로운 다자간 협상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농산물 교역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계 농산물 교역협상은 한국농업이 적어도 EU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때까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농산물 협상은 국내 농업정책과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Ⅲ. 21세기 한국농업의 미래 모습

세계 교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한 농림수산업 경쟁력 제고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농림수산업의 부가가치액(1995년 불변기준)은 2000년에 23.7조원, 그리고 2020년에 가서는 25조원으로 이 기간동안 연평균 0.3%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고도 산업화 사회에서는 생산·가공·유통 및 관련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업 및 관련산업의 생산규모(1995년 불변기준)가 2000년에 65.3조원에서 연평균 3.2%씩 성장하여 2020년에 가서는 124.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다. 그 결과 농림수산업 및 관련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13.4%에서 2020년에 10.0%수준이 될 것이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2000년에 205만명에서 연평균 5.2%씩 감소하여 2020년에는 7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을 통한 고령농가의 경영이양 촉진으로 소수 정예화된 기업적·전문경영체가 농림수산업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농어가 호수는 2020년에 50만호에 이를 것이며, 그 중 전업 농어가는 12만호를 차지할 것이다.

농경지 면적은 기초식량의 자급기반 확보를 위한 농지자원 보전정책에 힘입어 2020년에 가서는 164만h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호당 경지규모는 2000년에 1.4ha에서 계속 확대되어 2020년에 3.3ha수준이 유지되고, 농지 임대차 등 유동화 촉진으로 수도작 전업농가의 영농규모는 10ha가 될 것이다. 농업 구조조정의 장기적인 효과로 인해 농어가소득은 2000년에 2,350만원에서 연간 5.1%씩 상승하여 2020년에 6,460만원이 될 것이다.

한편 21세기 농어촌은 환경보전정책에 의해 쾌적한 자연생태 공간을 유지하고,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2·3차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업인과 타 산업 종사자가 혼주하는 산업공간을 보장할 것이다. 지역간 균형개발로 상하수도 보급, 도로포장 등 사회 기반시설과 그리고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 복지·후생시설 투자가 확충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 못지않은 주거환경 속에서 쾌적한 삶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에서 비농가인구는 2000년에

〈표 3〉 농림수산업 농어촌의 주요지표 전망

구 분	1995	2000	2010	2020	연평균 변화율	
					00/10	00/20
농림수산·관련산업 생산(10억원)	55,648	65,307	92,973	124,846	3.5	3.2
(GDP대비 비중)	15.9	13.4	11.0	10.0		
- 농림수산업 생산액 (10억원)	23,069	23,682	26,202	24,970	1.0	0.3
(GDP대비 비중)	6.6	4.9	3.1	2.0		
농림어업 취업자수 (천명)	2,541	2,050	1,220	730	-5.2	-5.2
- 총취업자 비중 (%)	12.5	9.2	4.8	2.7		
농어촌 인구 (천명)	9,572	8,580	8,110	8,070	-0.6	-0.3
- 농어가 인구 (천명)	5,210	4,050	2,590	1,660		
- 비농어가 인구 (천명)	4,362	4,530	5,520	6,410		
농어가 호수 (천호)	1,610	1,350	780	500	-5.5	-5.0
- 전업농어가 (천호)	-	90	120	120		
농경지 면적 (천ha)	1,985	1,880	1,740	1,640	-0.8	-0.7
- 논 면적 (천ha)	1,206	1,150	970	940		
- 호당면적 (ha)	1.2	1.4	2.2	3.3		
농어가 소득 (만원)	1,740	2,351	4,140	6,460	5.7	5.1
- 그 중 농업소득 (만원)	1,047	1,411	2,463	3,790		
- 그 중 농외소득 (만원)	693	940	1,677	2,670		
(농외소득률) (%)	(39.8)	(40.0)	(40.5)	(41.3)		
농림수산물 수출액 (억불)	30.5	60.0	110.0	150.0	6.1	4.6
농어촌 생활환경						
- 상수도 보급률 (%)	39	57	90	100		
- 도로 포장률 (%)	25	39	85	100		
- 현대식 주택개량률 (%)	31	46	80	100		
- 병상시설 (인구/병상)	600	400	300	300		

주 : 농외소득에는 이전소득 미포함

420만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 640만명으로 증가하고, 농가인구는 재춘탈농 및 비농업부문 취업증가로 인해 2000년에 405만명에서 2020년에 166만명으로 계속 감소될 것이다. 2020년에 농어촌 인구는 807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충남**

참 고 문 헌

- 이정환,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역할과 발전지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산업연구자료, 1987.
- _____, 한국농업의 선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 농정자료시리즈, 1988.
- _____, 두 부문 모형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 조재환·성명환·사공용, 농업부문 총량지표 중장기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 이정환·조덕래·조재환, 경제사회발전과 농림수산업의 역할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 한국개발원, 신경제 장기구상(초안), 199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경제 장기구상 : 농림수산 장기발전 구상(안), 1995.
- 한두봉·김병률,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충남농업의 대응전략

- 염소산업과 애완견산업을 중심으로 -

최 병 익
(崔秉翼)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교수

조 규 석
(曹圭錫)

공주대학교
축산학과교수



- I. 머리말
- II. 한국농업의 대응전략과 전망
- III. 사료증산과 염소산업의 진흥
- IV. 애완견의 산업화
- V. 지역 이미지 통합 및 제언

I. 머리말

널리 주지된 바와 같이 1996년말 기준으로 외채 1,000억불, 무역적자 230억불을 초과하였으며, 무역적자 230억불 가운데 농림수산물 무역적자가 약

80억불에 달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른 수입개방의 가속화는 농업분야의 수입을 급증시켰다. 1994년에 87억불이던 농산물 수입액은 1995년에 150억불, 1996년에 120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적자를 가속시켰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 노동법 파동, 한보사태, 국내 식량생산의 장기전망, 세계의 곡물 생산과 식량곡물, 사료용 건초의 가격양등 등을 살펴볼때 이와 같은 무역역조의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90년대의 세계 식량사정을 살펴보면 생산량이 소비량을 밑돌고 재고량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따라서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국내의 식량증산과 이를 위한 한국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로마선언의 행동 계획 가운데 “기아 박멸의 노력을 계속” 할 것을 천명한 것도 우려할 만한 식량사정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 상당수의 국민이 과소비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1인당 일일 식량이 100g에 불과한 북한은 이미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

르러 식량문제를 강 건너 불로만 볼 수 없겠다.

그런데 한국의 식량증산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흔히 말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품목, 동일한 방법, 동일한 생산품을 가지고는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180ha에 달하는 미국의 농가와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위 “신농정”이나 “구조개선”을 한국보다 먼저 추진해 온 일본의 오늘을 보아도 자명한 일이다. 특히 축산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경쟁할 수 없는 것은 이들 국가에 비해 사료자원의 부족이 도입 농후사료에 과다히 의존케 하여 높은 생산비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1996년 9월 1-7일의 아태식량비료기술연구소(FFTC)의 연례세미나에서 각국 대표들이 염소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은 유의할 만한 일이다.

한국은 우선 지난날의 농정을 검토하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 노력이 있어서, 토지이용률 제고, 생산비 절감, 부가가치 증대 등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한국 농정의 동향을 개괄하고 충남농업의 새로운 전략작목으로서 염소와 애완견을 중심으로 산업적 전망 및 접근 방안으로서 이미지통합(CI)운동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국농업의 대응전략과 전망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 이르러 농업의 경쟁

력 강화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농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그런데 1980년대말까지는 농어업이 구조조정보다 농어가부담 경감대책과 농촌 공업화를 통한 농외소득 기회확충에 치중하여 왔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농어촌의 근본적인 발전을 목표로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4년 4월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 1991년 7월 농어촌구조개선 대책
 - 1993년 7월 신농정 5개년 계획
 - 1994년 6월 농어촌발전 대책 및 농정개혁 과제
-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른 개방화 시대의 대응전략으로 농업구조개선과 품목별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지난 1991년 7월에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42조원의 재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1993년 7월에 “신농정 5개년 계획”을 통해 당초 투자기간을 3년이나 앞당겼다. 1994년 6월에는 “농어촌발전 대책 및 농정개혁 과제”를 수립함과 동시에 15조원 규모의 농특세를 신설하여 농촌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요미우리신문, 1997. 1. 29; 농림수산부,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1994).

-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율사업)
- 전업농 육성(자율사업)
- 농가 경영규모 적정화(자율사업)

- 농업기계 구입자금 지원(자율사업)
- 농업 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자율사업)
-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자율사업)
-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자율사업)
-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자율사업)
-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자율사업)
-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자율사업)
- 토양개량제 공급(자율사업)
-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자율사업)
- 양념채소 생산 유통 지원(자율사업)
- 고냉지채소 생산 유통 지원(자율사업)
- 과실 생산 유통 지원(자율사업)
- 화훼 생산 유통 지원(자율사업)
- 특작 생산 유통 지원(자율사업)
- 잠종 및 원잠종 생산(자율사업)
- 인삼산업 육성지원(자율사업)
- 농산물 규격출하(자율사업)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자율사업)
- 임도정공장 통폐합 및 시설대책(자율사업)
- 한우경쟁력 제고(자율사업)
- 젓소경쟁력 제고(자율사업)
- 돼지경쟁력 제고(자율사업)
- 닭경쟁력 제고(자율사업)
- 기타 가축 육성(자율사업)
- 꽃 직판장 설치 지원(자율사업)
-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자율사업)
- 받기반정리(자율사업)

- 일반경지정리(자율사업)
- 대규모경지정리(자율사업)
- 농림수산 기술개발(자율사업)
- 지역특화 및 새기술 시범(자율사업)
- 농업경영자금 지원(자율사업)
- 일반 정주권 개발(자율사업)
- 문화마을 조성(자율사업)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자율사업)
- 농수산물 수매지원(자율사업)
- 출하촉진 자금지원(자율사업)
- 해외시장 개척(자율사업)
-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자율사업)
- 농산물 공판장 건설(자율사업)
-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자율사업)
- 인삼 종합처리장 설치(공공사업)
- 농수산물 가공사업 육성(공공사업)
- 축산 경영여건 개선(공공사업)
- 축산 분뇨시설 설치(공공사업)
- 양축자금 지원(공공사업)
- 축산단지 조성(공공사업)
- 가축 계열화(공공사업)
-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공공사업)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들과 같이 거듭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은 영세적인 소농체제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농어촌 공업화와 생활환경 개선은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다.

물론 그 성과를 평가하기엔 아직 때 이른 감이 있으나, 종래의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에 투입물량만 막대한 규모로 증대한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위에서 고찰한 각종 구조개선 사업들은 각 읍면에서 시군을 통해 선정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투자재정 규모가 도, 시군, 읍면등으로 할당되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차별화의 미흡과 중복투자문제 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다음 <표 1>의 한국농업 관련 장기전망 지표에서와 같이 한국농업의 해외 의존도가 증대해 가는 것도 그동안의 대안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가능케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농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도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한 원인의 일단을 찾을 수 있겠다.

Ⅲ. 사료 증산과 염소산업의 진흥

천문학적인 규모로 재원을 투자해도 한국농업의 전망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한국농업의 영세한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면 어떤 품목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 먼저 그 방향을 가늠해 보면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 호주 등지와 같은 조방농업에 대응하려면 같은 수준으로 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축산의 경우 답리작(예 : 호

<표 1> 주요 품목별 자급률 전망치

(단위 :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쌀	96.1	96.5	96.5	96.5	96.1	96.6	96.3	95.8
콩	8.5	7.6	6.8	6.1	5.1	5.1	5.0	4.9
옥수수	1.1	1.1	1.0	1.0	0.9	0.9	0.9	0.8
감자	81.5	78.9	76.8	73.7	72.7	71.3	70.1	68.1
고구마	79.3	76.7	74.0	72.0	69.3	68.1	66.5	64.9
쇠고기	43.4	40.2	37.6	35.3	20.2	19.2	18.2	17.2
돼지고기	91.0	90.0	89.5	88.8	86.2	85.3	84.2	83.0
닭고기	93.9	93.9	93.93	93.7	92.8	92.4	92.1	91.8
우유	85.2	82.6	80.2	78.1	76.2	74.0	71.8	69.6
달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맥)을 통해 양질의 값싼 조사료 생산을 증대해야 한다. 낮은 경제성 때문에 집약초지의 조성이 80년대 이후 거의 포기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둘째, 높은 가격으로도 경쟁이 되려면 고품질이 나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재 소수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가격과 품질 모두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그같은 품목의 개발이 가능한 것인가? 예컨대, 한국의 여건으로 이루어 볼 때 가장 바람직한 품목은 염소를 들 수 있겠는데 염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태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염소에 대한 일반 소비자는 대부분 보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염소를 식육자원으로 일반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70년대 이후 대기업 제품 선호로 사라진 염소젖의 유가공 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적인 먹거리 문화에서 전승보전할

부분은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고, 새로히 도입할 부분은 사회교육과 병행하여 국민의 태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왜 염소이어야 하는가는 다음과 같은 염소의 장점 때문이다.

- 소득증대에 따른 건강식품 수요증대에 부응하는 젓과 고기의 영양구성
- 소자본 투자로 가능하며 위험 부담이 적음
- 타 작물과 연계가 용이
- 저질 조사료까지 소화하고 심한 경사지에서도 사육이 가능하여 한계환경 적응력이 우수
- 염소 및 염소젖 가공식품의 고부가가치¹⁾

특히 충남의 경우 염소가 전락작목으로 육성될 가능성은 최근 염소의 사육두수가 <표 2>와 같이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충남의 염소 사육두수가 108,912두로 전국에서 경남의 124,240두에 이어 2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염소 사육두수의 증가

(단위 : 두, 호)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젓 산 양	307	114	1,875	1,285	7,517
혹 염 소	346,051	501,809	555,742	601,916	673,244
계	346,308	501,203	557,617	603,201	680,761
사육농가	65,646	76,842	81,169	82,575	82,719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 연도.

1) 맨하탄의 Muray's 치즈 상점 주인인 Robert Kaufelt는 치즈 품질 평가를 염소젖 치즈 1위, 양젖 치즈 2위, 우유 치즈 3위로 평가하고 있다(Japan Times, 1997. 1. 23).

최근 영농종합법인, 농협 등에서 염소 육골즙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염소산업의 전망을 가늠케하는 것이다. 다만 약용에 편중된 것이 그 한계라 하겠는데 예산의 무한농산(영농조합)에서는 염소고기의 상품화를 시도하여 염소 식육화를 촉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농정에서는 염소산업이 간과되어 왔는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충남의 도정차원에서라도 염소를 전략 작목으로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예컨데, 직접지불제를 도입할 경우 휴경에 대한 보상보다는 답리작 사료생산에 대한 지원, 한계농지(산지)에서의 염소사육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염소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 염소육 가공 제품화(소시지, 햄 등)를 추진해야 하며 또한 소비자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통해 염소고기의 소비를 촉진시켜 염소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겠다.

IV. 애완견 산업의 육성

한국에서는 그동안 개(犬)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식용가축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구조 변화측면에서 앞으로는 애완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최근에 공주대 축산학과(예산 소재)에 애완동물학을 교육과정에 개설하고 공주전문대학에 애완동물과를 신설한 것도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애완동물의 산업화가 증대되는 것은 소득의 증

가, 독신자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 중심으로 애완동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산업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애완견을 산업적으로 육성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잔반의 사료화로 환경산업에 기여
- 일본 및 구미 각국에 수출증대로 무역역조 개선
- 보신탕을 먹는 부정적 이미지 해소

그러면 애완견 관련 산업화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일본의 애완견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사료(펠렛, 캔)와 영양소 관련 제품의 생산 유통
- 견사(犬舍), 견구, 의류, 실내장식 악세사리 등
- 약품(치료 및 예방) 및 탈취제 등
- 출판(단행본 및 월간)
- 각종 협회(혈통등록 사업 등)
- 각종 학교(대학 및 전문대학 관련 학과)
- 사회교육기관(동물학교, 훈련소 등)
- 각종 이벤트
- 장례 및 관련 사업
- 공제사업
- 애완견 사육, 번식, 판매

한편 애완견의 수출전략 품목으로서의 가능성은 <표 3>과 같이 일본의 애완견과 고양이의 소비자 가격을 중심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충남의 경우 애완견의 산업화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충남의 입지요인 때문이다. 충남은 대전을 둘러싸고 있으며 서울, 대구 등 대도시에 서 2시간 정도의 양호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천혜의 관광자원 등을 도처에 보유하고 있으며, 태안과 중국의 태안, 예산과 일본의 사가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활용하면 국내·외에 애완견의

〈표 3〉 애완용 동물의 일본 소비자 가격

(단위 : 천엔)

개			고 양 이		
품 종	원산지	가 격	품 종	원산지	가 격
포메라이안	포메라니아	180~450	포메라이안	포메라니아	180~450
쉬 이 추	티 베 트	100~380	아메리칸쇼트헤어	아메리카	120~400
마르테스	아 시 아	120~350	히말라얀	아메리카	20~300
라브라도리트리버	뉴틀란드	160~400	친칠라골든	페르시아	120~350
퍼 그	중 국	150~400	친칠라실버	페르시아	100~280
미니치어롱헤어낙스	독 일	120~400	페르시아	페르시아	120~300
미니에처핀처	독 일	150~380	삼	타일랜드	50~100
쉬바	일 본	70~300	스코티시포르트	영 국	120~400
스피츠	일 본	120~300	러시안블루	러 시 아	150~300
요크사테리어	영 국	180~500	아비시니안	에티오피아	120~300
카발리어킹찰스	영 국	120~400	노마리	에티오피아	150~350
스파니엘	영 국	120~100			
골든리틀리버	잉글랜드·스코틀랜드	100~480			
비글	프 랑 스	100~300			
그레이트페레니즈	프 랑 스	180~450			
쉬틀랜드쉽도그	스코틀랜드	100~350			
알라스칸말라뮤트	알 라 스 카	150~400			
아메리칸코커스파니엘	아메리카	150~350			
롱치와와	멕 시 코	150~400			
시베리안허스키	시 베 리 아	150~400			
토이푸들	도이치·러시아	100~480			

자료 : 고지마(일본의 애완동물 전문점).

판로개척을 촉진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위에서 고찰한 염소산업과 애완견 산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선 충남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각 시군 단위에서 각종 지역사업과 종합적인 이미지통합(CI)운동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이미지통합운동을 시도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와 특산품을 연계한 이미지통합운동은 이미 정착된 성공 사례들이 적지 않은데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거의 유일하게 정착되어가고 있다 하겠다.

V. 지역 이미지통합운동 및 제언

제주도를 가보지 않은 사람도 한라산과 돌하루방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진도라는 지명에서 진도개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와 같은 특정지역의 이미지는 천혜의 것으로 주어진 것도 있으나 주민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적지않다. 불티모어의 바닷가재가 하나의 사례이다.

태안지역을 예로 들면, 중국 태안과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중국원산의 퍼그견을 마스코트로 선정, 육성하여 중국에 대한 수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과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지역사회 이미지통합운동을 추진해야 하겠다.

현재 각 시군의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대표적인

여러가지 상징물을 가지고 있다. 새, 꽃, 나무 등과 명승고적들로 되어있는 상징물들을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흔히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과 심지어는 대학생들에게조차 주지되어있지 않다. 이것은 결국 지역이미지 통합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예산은 사과와 명산지이다. 그런데 예산의 경우 사과를 가지고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상품개발도 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예산군의 군계 가까이에 사과 조형물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이미지통합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예산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한 시군지역에서도 당해 시군의 이미지통합 노력과 그 확산 노력이 매우 미흡한 만큼 농산물의 유통개선에 대한 기여도가 미흡하다 하겠다.

그러면, 충남의 각 지역(시군 또는 읍면)별로 농산물을 포함한 각종 유형·무형의 상품을 어떻게 지역사회 이미지통합운동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여덟가지의 이미지통합운동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준거틀로 각 지역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주민/생산자 주도로 농업생산, 생활환경/삶의 질 및 지역활성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civilian initiative).

둘째, 창조적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계획수립·생산·판매 등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creative idea).

셋째, 협동의 유인을 통해 참여 및 생산성을 제고하여 영농법인과 같은 경제의 규모화를 구현한다(cooperative incentive).

넷째, 독창적 상품의 개발로 차별화를 지향한다(commodity identity).

다섯째, 상품을 하나의 경제 자체에 머물게하지 않고 지역사회 문화로 승화시킨다(culture identity).

여섯째, 이상의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증대시킨다(competitiveness increase).

일곱째, 지역 정보센터의 설립 및 활성화를 통해 유통을 촉진하고 상품을 포함한 지역문화의 정보화를 구현한다(community/cultural informationization).

여덟째, 이들 모든 노력과 환류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쾌적한 지역사회를 건설한다(ideal community).

지금까지 한국 농정의 농촌구조 개선사업 및 충남농업의 대응전략으로서 염소산업 및 애완견의 산업화 전망 등을 살펴보고 지역이미지통합운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첨언할 것은 작은 사업(start small)을 장기간 긴 안목으로 추진(start slowly)하도록 할 일이다. 해방이후 많은 정책들이 당대의 정권, 기관장의 짧은 임기중에 일거에 추진하려는 조급함이 얼마나 많은 자원낭비로 귀결되었는가를 돌이켜 볼 때 더욱더 그러하다. 이 또한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역이미지통합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생산과 연결되지 않는 상징물로서 까치, 갈매기 등을 선택한 시군이 한두 곳이 아니다. 염소나 애완견, 청둥오리 등을 시군의 마스코트로 선정함만 못하다 하겠다. 요컨대, 수십년 반복되어 온 동일작목, 동일농정에서 충남만이라도 탈피해야 하겠다.

그리고 염소젖 가공, 육가공과 그 제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사회교육을 포함한 일련의 지원과 애완견의 산업화와 수출에서 이미지통합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두뇌집단(brain people)을 확보해야 하겠다.

한국 또는 충남이 하지 않으면 일본이 앞으로 애완견을 한국으로 세계로 수출할 것이다. 최근에 일본이 김치에 이어 전주 비빔밥 자동화 기계를 한국에 수출하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관련 분야의 실증적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하겠다. **열린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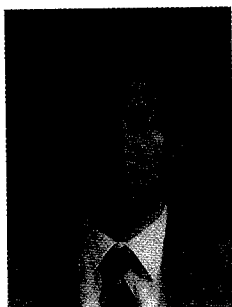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1. 농림수산부,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1994.
2.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 통합실시 요령(요약집), 1996.
3. 디자인 하우스, 월간 디자인, 1996. 6.
4. 描の手帖社, 描の手帖, 誠文堂, 東京: 描の手帖社, 1997. 2.
5. 誠文堂, カルモ, 東京: 新光社, 1997. 2.
6. 誠文堂, 愛犬の友, 東京: 新光社, 1997. 2.
7. Choe, Pyeong Ik, "Crop-Animal Integration in Sloping Land of Korea", Taipei : FFTC, 1996.
8. Devendra, C., "Potential Integration of Small Ruminants", World Animal Review66, Rome: FAO, 1991. Jan, pp.13~2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 태 호
(鄭胎鎬)

농협중앙회
양곡유통과장



- I. 머리말
- II.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 III. 농산물 유통의 현황
- IV. 농산물 유통개선의 당면과제
- V. 맺음말

I. 머리말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단행된 유통시장의 개방조치로 우리의 농산물 유통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도래로 소비자의 구매패턴은 고급화, 다양화되며, 신유

통업체의 등장으로 규격화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등 소비자의 유통양상은 급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개방화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산지 및 소비자 유통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는 여전히 공동선별이나 공동출하가 미흡하고 숙박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과물의 유통구조는 여전히 다단계인데다 불공정거래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우리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선진 유통기법과 막강한 자본을 무기로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유통업체에게 우리 농산물의 설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우리의 유통현실과 유통여건의 변화, 정부의 유통개선 노력과 성과 및 미비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유통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II장에서는 생산구조와 소비구조 그리고 대외여건의 변화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농산물의 유통현실을 청과물과 양곡으로 나누어 살

펴본다. 그리고 IV장에서는 1994년 정부가 수립해 추진한 [유통개혁대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과물과 양곡의 유통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II.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1. 생산구조의 변화

농산물시장과 유통시장의 개방 그리고 상업영농의 진전과 정부의 투융자대책으로 농업생산 부문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농업 내적으로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의 양적·질적 감소가 심화됨으로써 농작업 기계화가 크게 촉진되고 위탁영농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¹⁾. 또한 상업영농의 진전으로 생산의 전문화, 단지화가 촉진되

고 있다. 그리고 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작목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수입이 개방되거나 경쟁력이 약한 작목에 투입되던 토지나 노동이 경쟁력 있는 일부 품목으로 집중됨으로써 이들 품목의 가격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발전대책의 추진으로 인한 포장센터, 간이집하장 등 산지 유통시설의 확충과 생산기반의 정비 역시 생산부문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유리온실 등 첨단시설의 도입으로 자본·기술집약적인 영농이 확산되고 생산의 주년화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또한 쌀의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의 등장으로 벼의 수확후 관리가 수월해지자 영농의 규모화가 진전되고, 또한 쌀의 브랜드화로 양질의 생산이 촉진되고 있다.

〈표 1〉 주요 작목의 재배면적 변동추이

(단위 : 천ha)

구 분	1970(A)	1980	1990	1995(B)	B/A(배)
식 량 작 물	2,699	1,982	1,669	1,346	0.50
	쌀	1,203	1,233	1,056	0.88
	보 리	833	360	90	0.11
과 실 류	60	99	133	174	2.90
채 소 류	258	377	317	403	1.56
	양념채소류	56	178	143	2.55
	시설채소류	4	18	40	20.50

자료 : 농림부, 「농림수산 주요통계」, 1996.

1) 농작업을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맡기는 위탁영농 추세는 특히 벼농사에서 현저하다. 1995년의 벼농사 주요 작업별 위탁영농비율을 살펴보면 방제작업 이외에는 모두 1990년보다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논갈이의 경우 1990년의 50.9%에서 1995년에는 56.9%로 6% 증가했으며, 모내기 역시 동기간동안 58.4%에서 62.5%로 늘어났다. 또한 벼베기는 63.6%에서 78.3%로 그리고 탈곡 작업은 75.2%에서 80.6%로 5.4% 늘어났다(농림부, 「농업총조사」, 각 연도 참고).

2. 소비구조의 변화

농산물 소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수준, 핵가족화, 노령가구의 증대 등과 같은 인구특성의 변화와 맞벌이 가구의 증대, 아파트생활의 보편화와 같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소득 1만불 시대의 도래로 농산물 소비는 양을 중시하는 경향에서 모양, 색깔, 향, 맛 등을 중시하는 질적 소비형태로 바뀌는 등 소비구조가 고급화 및 다양화되고 있으며 또한 편의성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행태의 변화는 유통측면의 변화를 가져온다. 소비패턴의 고급화로 <표 2>와 같이 곡

류 등 전분질 식품의 수요는 줄어들고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품목별 유통량이 변하고 있다. 또한 저장성이 약한 신선과채류의 소비증대로 저온·예냉시설이 갖춰진 저장시설과 수송시설이 필요해 지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바램은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와 유기농산물의 유통채널 구축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편의성 추구경향으로 인해 포장, 선별, 배달과 같은 유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의 전통 가공식품이나 조리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며 외식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표 2> 주요 농산물의 1인당 소비량 추이

(단위 : kg)

구 분	1970	1980	1990	1995
곡 물 류	219.4	195.2	167.0	160.6
쌀	136.4	132.4	119.6	104.3
채 소	59.9	120.6	132.8	153.4
과 일	10.0	16.2	29.0	55.7
육 류	6.6	11.3	19.9	27.4
쇠고기	1.6	2.6	4.1	6.7

자료 : 농림부, 「농림수산물유통계」, 1996.

3. 시장구조의 변화

농산물의 시장구조는 생산구조와 소비구조 그리고 대외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데, 이러한 시장구조의 결정요인 중 WTO체제 출범과 OECD가입에 따른 농산물시장과 유통시장의

개방 등 대외적인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통시장 개방은 농산물 도소매업 등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를 변화시켜 농업생산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시장 개방의 효시는 1981년 7월 단행된 개방조치(단일품목 취급 100평 이하의 점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유통시장 개방은 1988년 10월의 [유통시장개방 3단계계획]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특히 1993년의 3단계 개방조치시 매장 면적을 3000㎡평방미터 미만 그리고 점포수를 20개 이하로 확대하는 동시에 1993~97년 5년동안 외국인 투자개방계획을 제시하였다. 동 개방계획에 의해 <표 4>와 같이 1994년부터 농약도매업과

채소도매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었으며, 1995년부터는 종자도매업, 과실도소매업, 채소소매업이 개방되었다. 또한 1996년에는 점포수와 점포면적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철폐되고 연쇄화 사업이 개방되었으며, 올해 비료도매업과 고기소매업이 개방되어 이제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 3단계 유통시장개방의 주요내용

개 방 단 계	기 준 연 도	개 방 내 용
제 1 단계	1989년	· 기술도입 및 도매업 투자폭 확대 · 외국지사에 대한 규제완화
제 2 단계	1991년	· 소매업의 선별개방 · 점포수 11개, 매장면적 300평 이하로 제한 완화
제 3 단계	1993년	· 소매업태 3종, 소매업태 4종에 대한 신규참여 허용 · 점포수 20개, 매장면적 907평 3,000㎡ 이내 허용

자료 : 상공부, 「도소매업진흥 5개년계획」, 1988. 10.

<표 4>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계획

일 정	개방허용 도매업	개방허용 소매업
1994. 1	농약도매업	채소소매업
1995. 1	곡물도매업, 종자도매업, 과실·채소 도매업, 서적 기타인쇄물 도매업	과실소매업, 화장품 화장비누 소매업, 액체연료소매업, 가스연료 소매업
1996. 1	상품연쇄화사업	
1997. 1	비료도매업, 무역업 등 6개업종	고기소매업, 차량용 가스충전업

자료 : 상공자원부, 「유통시장개방에 대한 종합대책」, 1993. 6.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외국 유통자본의 유입으로 국내 유통구조에 큰 변화가 야기되며, 특

히 규모가 영세한 도소매업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유통시장 개방으로 외국의

선진경영기법이 전수되고 신유통업체의 도입이 가속화되어 유통업 전반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유통시장이 농산물시장과 동시에 개방되므로, 농업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무역업을 겸하거나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는 외국유통업체도 적지 않아, 국내진출로 구축한 유통망이 자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앞으로 확산될 신유통업체도 구색이나 가격 파괴의 측면에서 수입농산물을 대량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외국 유통업체에 대항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우리 농산물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Ⅲ. 농산물 유통의 현황

1. 청과물 유통

청과물의 유통구조는 품목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작목반이나 농협을 통해 주로 공동출하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농가 개별로 출하하거나 산지에서 주로 발매기로 거래되는 품목도 있다. 또한 소비지 도매시장이나 산지의 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지와 직거래하는 품목도 있다. 그리고 통명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포장규격화가 진전된 품목이 있는가 하면, 포장되지 않거나 도매시장에서 재포장되는 품목도 있다.

그러나 청과물은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대개 5~6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며, 유통과정에서 수집상, 반출상, 위탁상, 중간도매상 등 여러 유형의 상인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다단계여서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거래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청과물 유통의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유통의 주품목이나 유통구조

〈표 5〉 농산물 유통구조의 발전단계

구 분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생산 및 유통	곡물중심	과실·채소중심	가공·편의식품
유통구조	- 곡물이외의 도매시장 기능 취약 - 도·소매 미분화	- 도매시장기능 주축 - 대형소매점 출현	- 도매시장기능 위축 - 직거래 증대

에 따라 농산물 유통의 발전단계를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주로 곡물이 유통되는 시기로 곡

물 이외의 도매시장기능이 취약하며, 2단계는 도매시장이 크게 확충되고 과실과 채소의 도매시장

유통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3단계는 가공·편의식품의 유통비중이 증가하고 도매시장 대신 산지·소비지간의 직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청과물 유통은 산지의 경우 도매시장 중심의 2단계인 반면 소비지 유통은 신유통업태의 등장으로 3단계에 진입하는 등 불균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양곡유통

미곡유통경로는 크게 정부경로와 민간유통경로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민간유통경로는 다시 농협경로와 민간상인 경로로 구분된다. 1980년 이후 쌀의 유통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기록이 있으나 <표 6>과 같이 1993년까지는 정부수매

의 확대로 상품화량 중 시장출하량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85년산의 시장출하량은 20,854천석으로 상품화량의 72.3%를 차지했으나 93년산의 경우 62.5%(16,655천석)로 동 기간동안 9.8%나 줄어 들었다.

한편 유통주체별 비중을 살펴보면 민간도정업자나 양곡상의 점유비는 줄어든 반면 농협을 통해 판매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즉 1985년의 산지농협의 판매실적은 1,285천석으로 상품화량의 4.5%, 시장출하량의 6.2%에 불과했으나 1993년에는 8,283천석으로 상품화량의 31.1%, 시장출하량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1년 이후 농협을 중심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대폭 확충된데 기인한다.

현재 미곡수매는 농협과 정부가 분담하고 있으

<표 6> 쌀의 유통경로별 비중(1980~1993)

연 산	생산량 (천석)	상품화량(천석)				상품화량 중 구성비(%)		
			정부수매	산지농협	민간매입	수 매	농 협	민 간
1980	24,655	13,854	3,790	222	9,842	27.4	1.6	71.0
1985	39,071	28,861	8,007	1,285	19,569	27.7	4.5	67.8
1990	38,932	30,813	8,357	2,132	20,324	27.1	6.9	66.0
1993	32,981	26,632	9,977	8,283	8,372	37.5	31.1	31.4

주 : 정부수매량에는 농협 일반벼 (차액)수매량 포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농협의 역할」, 1994. 12, p.40.

나 국가조절용은 전량 농협을 통해 공매방식으로 방출하고 있다. 1996미곡연도(1995. 11~1996. 10)의 유통경로별 쌀 유통량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1995년산 생산량 32,601천석 중 자가소비, 연

고미, 종자용 등을 제외한 24,129천석이 판매되어 상품화율은 74%이며, 상품화량 중 수매량 9,550천석을 제외한 14,579천석(상품화량의 60.4%)이 시장에 출하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6미국연도 중 정부는 군·관수용과 가공용을 제외한 곡가조절용 전량을 농협에 인도해 조곡으로 공매하였다. 연도 중 공매된량은 모두 10,140천석(정곡기준)으로, 이 중 40.7%인 4,126천석은 농협 그리고 59.3%인 6,014천석은 민간업자에게 경락되었다. 한편 농가가 시장출하한 물량의 38.2%인 4,126천석은 산지농협이 직접 매입하였고 나머지 61.8%(9,003천석)는 민간상인이나 도정업자가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산지단계에서의 농협의 쌀 점유비는 39.2%로 1995미국연도(1994. 11 ~ 1995. 10)의 31.6% 보다 크게 높아졌다.

농협이나 민간업자가 구입한 쌀은 대다수 도매상이나 대량수요처, 소매업자에게 직접 판매되며 도매시장의 경유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한편 소매단계는 크게 농협계통 소매점과 민간소매점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데다 20kg 이하의 소포장이 판매가 자유화되어 기존의 양곡전문소매점이 퇴조를 보이는 가운데 신유통업체와 같은 대량소매점과 슈퍼 등 소량소

매점으로 양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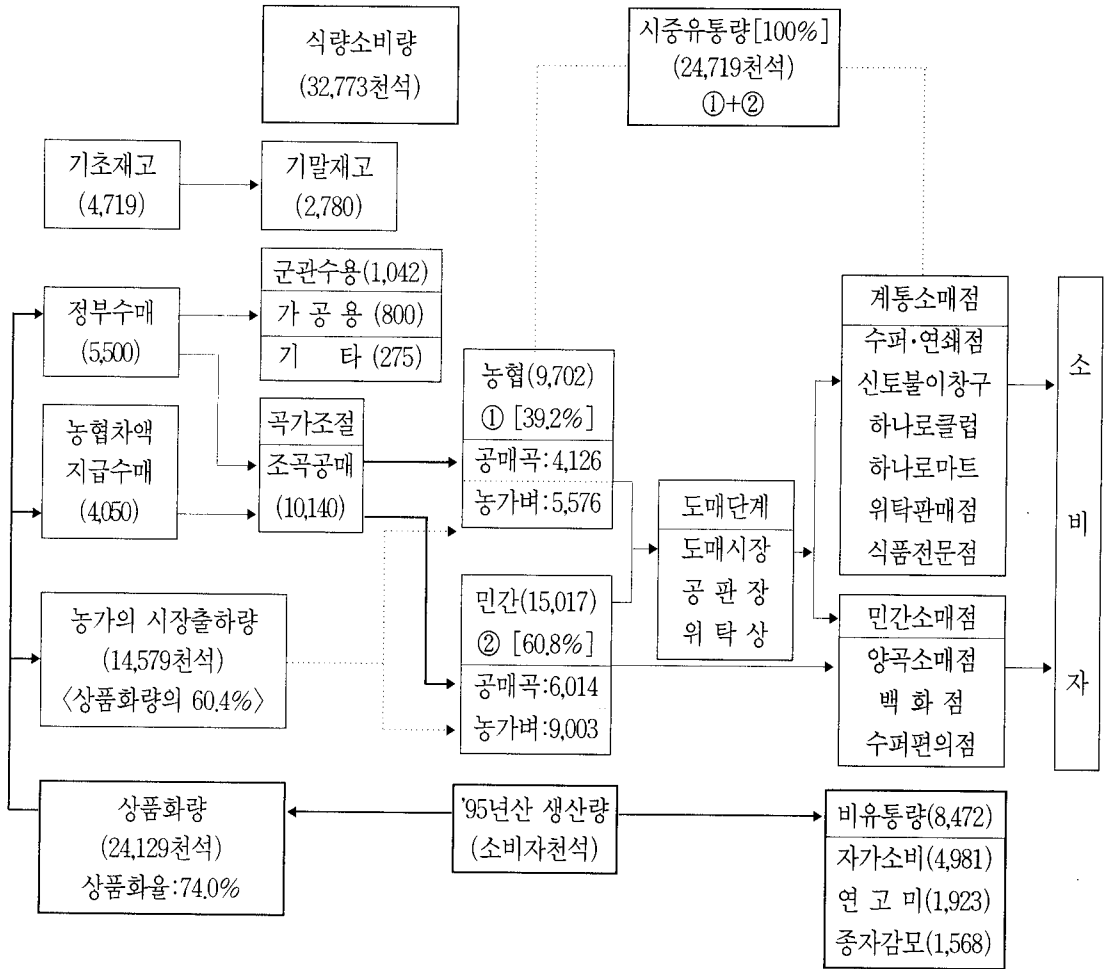
또한 1990년대 들어 설치된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인해 미곡의 산지유통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표 7>과 같이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도정업자가 농가판매량의 56%를 취급하는 등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집반출상 역시 점유비가 20.9%로 산지유통에서 아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의 경우는 민간도정업자나 수집반출상의 점유비는 각각 18.6% 및 7.5%에 불과한 반면,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조합의 점유비가 66.2%로 전체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축으로 산지유통이 집중화, 규모화되며, 이는 나아가 미곡유통체계 전체를 재편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표 7> 미곡종합처리장 유무별 미곡의 판매실태(96미국연도)

(단위 : %)

구 분	합 계	산지농협	민간도정업자	수집반출상	도소매상·기타
전 체	100.0	37.6	37.1	17.5	7.8
설 치 지 역	100.0	66.2	18.6	7.5	7.7
미설치지역	100.0	17.9	56.0	20.9	5.1

자료 : 농협중앙회, 「96 미국 산지유통실태조사」, 1996. 3.



〈그림 1〉 쌀의 유통경로별 유통량 추정(96미곡연도)

주 1) 농가의 시장출하량 중 농협취급량(5,576천석)은 1996미곡연도(1995. 11 ~ 96. 10)의 종합.

농협 계통미 판매실적(12,100천석)에서 동 기간중의 타조합 출하분(2,398천석)과 공매곡 매입량(4,126천석)을 차감한 량임.

2) 조곡공매량(10,140천석)은 1996미곡연도 중 경락된 물량으로 9할인 8,698천석이 신곡(95년산)이며, 구곡은 1,442천석임.

3) 식량소비량과 종자·감모량 등은 농림수산부 양정자료에 의거하였음.

4) 농가 자가소비량은 1995년의 농가인구(4,838천인)와 농가 1인당 소비량(149.2kg)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5) 연고미는 생산량의 5.9%로 가정(농림부, 「쌀 민간유통실태조사」, 1994.7).

Ⅳ. 농산물 유통개선의 당면과제

1. 유통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가. 청과물 유통개선 노력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해 우리의 농산물 유통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정부는 1994년에 [유통개혁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출하와 포장규격화를 촉진하고 가공 및 유통단계의 부가가치를 농가에 환원하는 동시에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품목별 전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

였다. 또한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 소비지 유통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동시에 도매시장의 운영정상화를 통해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마을단위로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산지수집 및 출하기능을 강화하고, 엄격한 포장 선별을 통해 청과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포장센터를 설치하는 등 산지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표 8〉 산지 포장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설립계획

구 분	사업비 부담비율(97, %)				2004년까지 설립계획	
	보 조	지방비	용 자	자부담	개소수(개)	사업비(억원)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	40	20	20	20	160	15,500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20	20	40	20	170	5,559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20	20	40	20	900	14,042

자료 : 농림부, 「199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6. 11.

또한 도매단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8년까지 공영도매시장을 34개소로 확충하며 특히 서울에 제2 제3의 도매시장을 최단기간내 건설하여 가락도매시장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운영정상화로 공정거래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전품목에 대한 상장경매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출하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지정도매법인에 대한 평가제를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

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소비지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출하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유통경로간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까지 대도시 외곽에 16개소의 농산물 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유 유희지 등에 농어민장터 개설을 정기화하고 소비자단체의 결성을 지원하는 등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 및 가격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농가의 출하시기 조절과

재배면적 자율조정을 유도하고자 농림수산 유통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나. 양곡유통개선 노력

양곡의 생산 및 유통대책으로 정부는 1993년 [양정개혁안], 1994년 [쌀산업경쟁력제고대책] 그리고 1996년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중 양곡유통개선을 주요 목표로 한 양정개혁안의 경우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고 현행 수매방출제도를 시장기능에 맞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

고 있다. 양정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생산정책과 유통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유통정책의 경우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적정수준의 계절진폭을 허용하고 정부수매를 정부 직접수매와 농협 차액수매로 이원화하는 동시에, 수매곡의 방출방식을 기존의 정가방출에서 농협을 통한 조곡공매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정업자 중심의 산지유통구조를 미국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1991년부터 미국 종합처리장의 설치를 적극 지원하였다.

〈표 9〉 미국종합처리장의 연도별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합 계
전 체	2	30	50	64	42	33	221
농 협	2	30	31	45	22	17	147
민 간	0	0	19	19	20	16	74

주 : 95년의 농협 개소수에는 파주군에서 전액 투자해 설치한 후 파주농협에 운영을 탁한 파주미국종합처리장이 포함되었음.

2. 청과물 유통개선의 과제

가. 유통개선의 미흡한 점

대량판매점 등장으로 규격품의 대량, 안정적인 공급이 요청되는 등 소비자 유통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다, 인건비, 교통체증 등으로 물류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유통구조개선 노력의 가속화가 요청되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생산조직은 많이 결성되었으나 공동선별이나 공동계산이 미흡해 여전히 유통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간이집하장이나 포장센터와 같은 산지

유통시설이 대폭 확충되었으나 활용도가 낮고 운영도 부실한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포장규격화율이 높아졌으나 대량으로 유통되는 무우, 배추, 수박의 경우 무포장비율이 각각 91%, 99% 및 98%에 이른다. 그리고 농산물 포장규격 115개 중 74개 품목이 물류표준규격에 맞지 않으며, 저온 저장고나 창고와 같은 유통시설의 출입구나 보관선반이 규격화되지 않아 물류비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²⁾. 또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온보관 및 수송체

계가 구축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도매시장의 경우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아직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즉 당초 1998년까지 공영도매시장을 34개소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1996년 현재 14개소만이 개장되었다. 또한 유통개혁의 조치로 공영도매시장의 상장거래 비율은 1985년의 40% 미만에서 1995년에는 93.5%로 크게 높아졌고 경매가 어려운 무, 배추도 상장경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도매법인의 형식적인 기록상장이 근절되지 않는데다, 경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산경매가 실시되지 않아 경매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의 하역작업이 기계화되지 않아 과다한 하역비가 농가부담으로 귀착되고 있다.

나. 청과물 유통개선의 과제

대량판매점 등 신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소비지에서는 규격화된 농산물을 대량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산지에서는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농어촌발전대책의 추진으로 최근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농산물 포장센터와 같은 산지 유통시설이 대폭 확충되었으나,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선별, 공동출하로 규격화된 농산물은 대량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5~6단계인 현재의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줄이지 못한다

면 결국 외국의 유통업체에게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과물 유통상 당면한 문제는 생산자조직을 내실화해 표준규격품의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확대하며, 물류센터를 축으로 소비지와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물류표준화와 물류자동화로 물류비를 대폭 줄이고 유통효율성을 높이며, 도매시장의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화와 Cold Chain System의 구축으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해 나가는 것도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1) 산지의 유통체계 확립

농가의 청과물 판매처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산지에서 상인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소비지에 개별출하하는 비중이 전체의 45~70%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공동출하하는 경우에도 도매시장에서 농가별, 등급별로 구분해 경매해야 하는 등 매우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수송만 공동으로 이루어질 뿐 선별이나 정산은 개별농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과물의 산지 유통개선은 생산자조직의 내실화로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두어져야 한다.

최근 산지유통시설은 대폭 확충되었으나 운영은 미흡한 실정이다. 마을단위로 설치된 간이집하

2) 1994년의 우리나라 국가물류비는 43조2천억원으로 국민총생산액의 15.0%를 차지해 미국의 10.5%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산물 물류비는 3조5,000억원으로 농업 GDP의 18.1%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교통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정책의 방향」, 1995. 7. ; 농림수산부, 「농산물 물류표준화 추진계획안」, 1997. 2.)

장 3,032개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권역별로 설치된 산지포장센터와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간이집하장에 포장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예냉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상품성과 신선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격출하와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조직을 중심으로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표 10〉 농가의 청과물 판매처별 판매비중

유 형 별	합 계	산지판매 (상인판매)	소 비 지 출 하				
			소 계	개별판매	공동판매	계통판매	기 타
과 일 류	100.0	15.1	84.9	30.5	13.4	41.0	-
채 소 류	100.0	29.9	70.1	40.2	16.2	13.2	0.5

자료 : 허길형 외, 「주요청과물의 시장유통체계 개선방향」, 1992, p.132에서 재편집

〈표 11〉 산지유통시설과 생산자조직 현황(1996)

산지유통시설(개소)				생산자조직(개)			
간 이 집하장	농 산 물 포장센터	산 지 가공공장	매곡종합 처 리 장	작 목 반	영농조합 법 인	농업회사 법 인	지역조합
3,032	49	1,231	220	23,300	2,465	1,179	1,452

2) 도매시장의 확충과 공정거래의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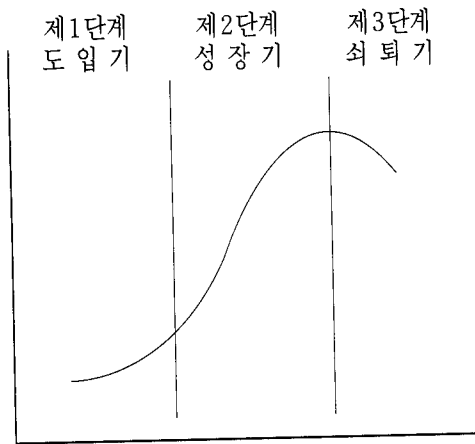
도매시장의 증설이나 강제상장방식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신유통업태의 등장으로 조만간 직거래가 크게 늘어나므로 현재 계획대로 도매시장이 증설된다면 시설과잉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도매법인의 물량수집능력이 취약한 현실에서 경매를 고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도매상을 중심으로 한 위탁거래방식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완배, 1994).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도매시장의 의존도를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의 발전단계를 〈그림 2〉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도매시장의 도입기로 농산물의 도매시장 경유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단계라면, 2단계는 도매시장의 정착단계로 도매시장의 확충이 마무리되고 도매시장 경유비율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이다. 그리고 3단계는 농산물 유통구조가 개선되면서 직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유통경로가 형성되어 도매시장 의존도가 줄어드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청과물 유통은 도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

는³⁾ 성장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도매시장의 확충 없이 유통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⁴⁾

도매시장경유량



〈그림 2〉 도매시장의 발전단계

다시말해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분산적이며 표준화·규격화가 미흡하고 유통정보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거래쌍방이 만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가격을 발견하는 場으로서의 도매시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매시장에서는 다수 매매자간의 경쟁을 통해 적정한 가격이 발견되고 수급이 조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가격은 개별농가가 생산 및 출하의사를 결정하는 기준지표가 된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시설 확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 기반의 정착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최대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조차 기록상장이나 위탁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기록상장을 단속하는 동시에 전산경매의 조기도입으로 경매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 3) 현재 청과물의 경우 80% 가량이 법정도매시장이나 유사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특히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물량 중 40% 가량이 법정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으로 출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성배영 외, 「주요청과물의 시장유통체계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12., pp.142~3).
- 4) 일본의 경우 현재 도매시장으로의 반입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나, 청과물의 경우 여전히 8할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앙도매시장에서의 경매비율은 1985년의 74%에서 1991년에는 59%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지난 30여년 동안 도매시장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도매시장에서의 경매정책으로 청과물의 포장개선과 표준화가 크게 촉진되었으며, 그 결과 건본거래와 예약상대매매 등 경매 다음단계로 이행할 수 있었다.

〈일본의 청과물 도매시장 경유율 추이〉

	1975	1985	1989	1991
과 실	88%	82%	78%	77%
채 소	88%	87%	86%	83%

자료 : 農林水産省, 「賣市場の現状と課題」, 1994. 12.

〈표 12〉 한국과 일본의 도매시장 현황

구 분	전 체	내 역
한 국(1991)	1,674개소	중앙도매시장(88개), 지방도매시장(1,586개)
일 본(1996)	147개소	법정도매시장(47개), 농수축협공판장(100개)

자료 : 農林水産省, 「賣市場の現状と課題」, 1994, 12

3) 농산물 물류센터의 확충과 물류비 절감

정부는 농산물의 집하, 저장, 가공, 포장, 배송 등의 기능을 수행할 농산물 물류센터를 2004년까지 16개소 확충할 계획이며, 농협은 1996년 현재 5개소의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농협물류센터는 기존의 도매시장이 갖는 수집·분산·가격결정 및 대금결제기능 뿐만 아니라 저장, 소포장, 단순가공과 집배송기능도 수행한다. 이러한 물류센터가 건설될 경우 유통경로의 다양화로 출하자의 선택폭을 넓혀 주고, 기존의 도매시장경로는 보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지의 포장센터나 가공공장과 소비자 판매점의 연계를 통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비용을 크게 절

감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물류센터를 축으로 물류를 표준화, 자동화할 경우 물류비가 대폭 절감된다. 각종 유통시설을 규격화하고 파렛트, 수송트럭 등 물류기기를 표준화하며 하역작업을 기계화함으로써 파렛트를 공동이용(pallet pool system)하고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파렛트단위로 유통될 수 있는 단위화물 적재시스템(unit load system)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류센터는 얼굴있는 농산물과 신선농산물의 공급으로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산지나 생산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포장재에 기재하는 등 얼굴있는 농산물 만들기에

〈표 13〉 농산물 물류센터와 도매시장의 차이점

구 분	도 매 시 장	물 류 센 터
가 격 결 정	상장경매원칙(가격의 불안정성)	생산자와 협의결정(안정된 가격형성)
물량의 수집	농민이 출하하면 지정도매법인이 수탁 판매	계약된 물량만 수집, 판매
물량의 분산	중매인 및 불특정다수의 소매상	직영점·가맹점 등 등록회원
물 류 기 능	소매상이 도매시장에 와서 구입	배송체계에 의해 물류센터가 배달
소비자정보 전달	소비자정보의 산지전달이 늦음	소비자정보가 산지에 신속히 전달
주취급 농산물	대포장 또는 산물 소품목 대량생산 농산물	다품목 소량생산 포장농산물 고품질의 얼굴있는 농산물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예냉시설이나 저온수송차량의 확보로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출하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로 안전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바람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유통정보의 수집 분산체계 구축으로 활용도 제고

현재 농림부 정보센터를 축으로 농업관련 통합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나 활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농가의 영농의사결정과 출하 및 분하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유통정보가 보다 내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농업관측을 내실화해야 한다. 현재 고랭지배추를 비롯한 몇몇 품목에 대해서만 재배의향, 시기별 파종면적 등이 온라인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종자판매동향, 정식면적과 시기별 재배면적, 작황, 저장량 등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도매시장의 지역별 등급별 출하량이나 가격과 같은 세부적인 정보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자의 출하시기 조절이나 출하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소비자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와 산지를 연계하는 정보망을 조기에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⁵⁾.

다. 양곡유통개선의 과제

쌀의 경우 품질이 균일하고 규격화가 용이해 거래시마다 가격을 발견하거나 현물을 확인할 필요성이 적다. 따라서 쌀 유통에서 도매시장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낮은 등 청과물과는 유통양상이 크게 다르다. 더구나 미곡종합처리장의 등장으로 쌀 포장단위가 20kg, 10kg, 5kg 등으로 규격화된 데다, 포장재에 어느 지역의 어떤 품종인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표준화 등급화로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유통능률이 높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산지의 집산체계 구축으로 소비지 대량수요처와의 직거래가 보다 용이하다. 당연히 유통단계가 줄어 들고 유통마진이 절감되는 등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인해 양곡유통은 보다 능률적이고 투명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1997년)부터 이루어진 20kg 이하 소포장미의 판매자유화 조치와 유통시장 개방 등으로 앞으로 소비자 유통양상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신규 유통업체와 대량거래처의 확대로 기존 양곡소매점이 퇴조하는 한편으로, 슈퍼, 편의점, 약국 등에서도 쌀을 소량 취급하는 등 소비자 판매점이 양곡

5) 일본의 경우 산지와 도매시장간의 정보시스템으로 1984년부터 가동된 “青果物 賣買・決算情報시스템(일명 DRESS시스템)”을 들 수 있다. NTT의 VAN(Value Added Network : 부가가치통신망)을 이용해 각 도매시장에서의 거래결과를 산지에 신속히 전달해 줌으로써 산지의 원활한 출하조절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1989년부터 산지의 출하정보를 도매법에 전달하는 “青果物 出荷情報시스템(逆Dress시스템)”이 가동되었는데, 도매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산지의 출하정보를 전달해 예상경락가격을 예측하는 모의 실험을 통해, 농가의 출하시기나 출하처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山本博信, 「現代日本の生鮮食品流通」, 1993. 2., pp.231)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소비지 판매선의 다양화, 양극화로 미곡종합처리장 개별로 거래처를 개발·관리하고 거래한다면 거래비용과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산지의 미곡종합처리장과 소비지 판매점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중개기구의 설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에 농협은 회원농협의 양곡사업에 대한 중앙회의 연합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96년 6월 수도권에 양곡마케팅본부 설립하였다. 양곡마케팅본부는 산지와 소비지 판매업체간의 직배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거래처의 개발 및 관리, 거래알선 및 중계, 대금정산, 미수금관리 및 각종 유통정보의 수집·분산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양곡의 경우 여타 농산물보다 선진적이고 능률적인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거래(EC), 자동수발주(EOS), 예약거래와 같은 선진기법이 도입되고 상적유통과 물적유통이 분리되는 선진적인 유통양상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도시 권역별로 이러한 중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IV. 맺 음 말

정부의 유통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과물의 유통단계는 여전히 5~6단계로 다단계이고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공정거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유통단계를 줄이고 공정거래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막강한 자본력과 선진적인 물류시스템을 앞세운 외국의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산지와 소비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농산물유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매단계의 기능이 특히 취약하다. 1998년까지 34개소를 건설하려던 정부의 공영도매시장 확충계획이 지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도매시장인 가락도매시장에서조차 기록상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을 차질없이 확충하고 전산경매의 도입으로 공정거래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유통개선의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지의 경우 최근 유통시설이 대폭 확충되었으나 시설활용도가 낮으며, 생산자조직의 취약으로 공동선별과 공동출하가 미흡하여 소비지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 또한 물류표준화와 물류자동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투자소홀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유통정보의 부족과 산지-소비지를 연계하는 유통정보망의 미비로 생산자의 생산 및 출하조절이 어렵고 자동수발주나 전자거래와 같은 선진 거래기법의 도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청과물의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내실화와 더불어 물류센터가 조기에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물류센터로는 이러한 차별화와 상품성 제고가 보다 용이하다. 또한 물류센터는 저온저장고, 농산물 포장센터나 가공공장과 같은 산지의 유통시설과 소비지 판매점을 효과적을 연계할 수 있고, 물류자동화 설비와 정보망의 구축으로 물류비용과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양곡의 경우, 청과물보다는 능률적이고 공정한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품질이 균일해 규격화가 용이하다는 쌀의 상품적 특성에도 기인하나, 보다 주된 요인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 확충을 들 수 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산지와 품종을 정확히 기재하고 20kg, 10kg, 5kg 등으로 규격화한 소포장 쌀을 생산하며, 중간과정에서 해포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므로 산지속이거나 신·구곡 혼합과 같은 부정유통이 개재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브랜드화로 쌀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생산농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양질의 생산 및 유통을 촉진하게 된다. 미곡종합처리장을 축으로 한 산지의 집산체계 구축으로 미곡의 산지유통이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소비지 대량판매점과의 직결거래도 한층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곡유통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1997년부터 실시된 20kg 이하 소포장미의 판매 자유화로 소비지의 판매선이 다양화되고 양극화될 경우, 거래처의 개발과 관리 및 물류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비지 판매점과 산지 미곡종합처리장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중개기구의 기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동 중개기구는 거래처를 개발·관리하고 미수금을 관리하며 각종 유통정보를 수집·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촉되는 도매시장을 대신해 가격을 발견하고 수급을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광역정보망을 구축하고 전자거래나 자동수발주제도와 같은 선진 거래기법을 도입한다면, 양곡부문에는 소위 상적유통과 물적유통이 분리되는 선진적인 유통구조가 조만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열린중남**

참 고 자 료

- 金成勳, “개방화시대의 농산물 유통전략”, 농업과 학십포지움 발표논문, 1990.
- 김완배,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체계 및 농안법 개정방안”, 한국식품유통학회, 1994. 3.
- _____, “농산물 가격 유통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농발위 발표자료, 1994. 4.
- 농협중앙회, 농산물의 산지유통과 농협판매사업강화방안, 1984. 12.
- _____, 일본의 물류혁신과 물류용어해설, 1996. 5.
- 成培永, “농산물 소비지유통의 개선”, 한국농업정책학회 세미나 보고서, 1991. 11.
- 성배영 외, 주요청과물의 시장유통체계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청과물의 유통비용 분석, 연구보고서 C93-11, 1993. 10.
- _____,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농협의 역할, 연구보고서 C94-12, 1994. 12.
- _____, 농산물 유통관련 서비스시장 개방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R307, 1994. 12.

- _____,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 및 운영방식, 연구보고서 C95-10, 1995. 7.
-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및 운영방안, 유통연구 95-07, 1995. 9.
- 현의송, “미국유통과 미국종합처리장의 실태와 과제”, 한국쌀의 재인식과 발전방향, 1996. 3.
- 農林水産省, 賣市場の現状と課題, 1994. 12.
- 高橋伊一郎, 農産物市場論, 東京, 明文書房, 1985.
- 北澤 博, 物流情報システム, 高度化の方向と可能性, 1994.
- 山本博信, 生鮮食料品流通 '90年代の課題, 食品流通研究所, 1991. 2.
- _____, 現代日本の生鮮食品流通, 1993. 2.
- Frederick Lundy Thomsen, Agritural Marketing, Mcgraw-Hill Book, 1951.
- Kohls, Richard L. and Joseph N. Uhl,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5th ed., The Macmillan Co., Inc., 1980.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방안

김 재 필
(金在弼)

순천향대학교
경제학부교수



- I. 머리말
- II.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현황
- III. 대전·충남 지역금융의 문제과 개선책
- IV.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발전방향
- V.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방안
- VI. 맺는말

I. 머리말

1967년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의 설립을 시작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자금공급 및 지역의 금융 중개기능 강화를 목표로 전국 각 시도에 설

립된 모두 10개의 지방은행은 1970년대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지방은행은 그 동안의 빠른 성장 속에서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여 온데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제한 및 중소기업 대출위주의 영업 제약과 이에 대한 보상조치로서金利면의 우대라는 틀 속에서 성장해 온 지방은행이 과연 변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하에서도 과거의 성장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자유화에 수반되는 금융시장의 효율성 추구는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바, 시중은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영업기반이 취약한 지방은행이 받게 되는 여파는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됨으로써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방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재고찰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방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 금융활동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야 하는데 이는 결국 지방은행의 역할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는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되기도 하고, 혹은 금융이 실물경제를 존립케하는 혈액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지역의 실물경제 발전과 금융경제의 발전이 호흡을 같이 할 때 지역경제가 발전되기에 지방은행의 역할과 기능은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경제의 발전과 서해안시대의 주역이 될 대전·충남지역의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지방은행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고, 이의 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대전·충남 지역금융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현황

본 장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 외형적 현황과 내부적 현황으로 구분하여 외형적 현황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현재의 위상과 자금의 조달과 운용현황을 분석한다. 내부적 현황에서는 주요 재무지표 분석을 통해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에 대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생산성을 분석한다.

1. 외형적 현황

가. 현재의 위상

대전·충남지역의 지방은행인 충청은행은 1968년 4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뒤를 이어 3번째로 설립되었다. 1995년말 현재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대전광역시에 63개, 충남에 30개, 서울에 5개, 인천과 충북에 각각 1개씩 총 10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납입자본금은 1,185억원, 자기자본은 3,429억원, 총자산은 4조1,360억원으로 우리 나라 10개의 지방은행 중에서 외형적 규모면에서 6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총자산 규모만을 비교하여 볼 때 1990년의 5번째에서 한 단계 내려간 위치이다.

물론 이러한 비교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1990년에 충청은행보다 한 단계가 낮았던 광주은행이 1991년부터는 충청은행을 추월하여 현재까지 총자산 규모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비슷한 정도의 지역내총생산과 인구수를 갖고 있는 지방은행간에 규모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은행경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현황

1) 예수금 현황

자금조달의 주요 원천인 예수금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1995년의 충청은행 원화예수금은 총예수금 1조8,529억원의 68.1%인 1조2,628억

〈표 1〉 지방은행 개요(1995년말 현재)

(단위 : 억원, 개)

은행명	설립일	납입자본금	자기자본	총자산	지점수
대구	1967. 10	2,100	5,793	98,385	184
부산	1967. 10	1,710	3,988	88,404	156
충청	1968. 4	1,185	3,429	41,360	100
광주	1968. 9	1,800	4,070	56,350	31
제주	1968. 9	500	1,378	11,995	40
경기	1969. 12	2,002	4,593	63,404	148
전북	1969. 12	1,153	2,731	27,892	76
강원	1970. 3	1,062	2,560	25,116	53
경남	1970. 5	1,470	4,200	59,777	136
충북	1971. 4	1,135	1,949	24,083	57
지방은행평균		1,412	3,469	49,677	108
시중은행평균		4,979	10,297	230,630	232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점유비율만 볼 때에는 10개 지방은행의 평균치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그 규모면에 있어서는 지방은행 평균인 1조4,217억원의 88.8%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 충남지역의 금융기반이 취약하고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조성 규모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시중은행은 총예수금의 21.5%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충청은행과 지방은행 평균은 각각 2.6%와 5.6%의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외화예수금에 있어서 충청은행과 지방은행 평균과의 차이는 충청은행의 외환부문 영업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지적해 주는

것으로 은행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외환부문에 있어서의 취약성은 시중은행과의 지방은행간의 외화예수금의 비중차이 약 7%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충청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의 영업이 국내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즉 시중은행에 비하여 여러가지 면에서 불리를 인정하더라도 금융환경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양도성 예금증서가 총 예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중은행 13.8%, 지방은행 18.1%, 충청은행 22.7%로 나타났다.

〈표 2〉 형태별 예수금 현황(1995년 평잔)

(단위 : 억원, %)

구 분	원 화			수입부금	양 도 성 예금증서	외 화 예수금	합 계
	예수금	요구불 예 금	저축성 예 금				
충청은행	12,628 (68.1)	3,413 (18.4)	9,215 (49.7)	1,202 (6.6)	4,211 (22.7)	488 (2.6)	18,529 (100.0)
지방은행	14,217 (68.2)	3,486 (16.7)	10,731 (51.5)	1,701 (8.1)	3,780 (18.1)	1,163 (5.6)	20,861 (100.0)
시중은행	47,877 (61.2)	9,765 (12.5)	38,112 (48.8)	2,638 (3.4)	10,782 (13.8)	16,767 (21.5)	78,064 (100.0)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2) 대출금 현황

1995년말 현재 충청은행의 대출금은 1조5,468억원으로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즉 기업자금대출이 1조1,756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76.0%, 가계자금대출이 2,632억원으로 17.0% 등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은행 평균 총대출금은 1조7,434억원으로 이중 82.7%인 1조4,420억원이 기업자금대출이고 12.1%인 2,110억원이 가계자금대출인데 이 수치들을 충청은행의 것과 비교해 볼 때 기업자금대출은 그 절대액 규모나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에서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자금대출은 기업자금 대출과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금의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생산의 주체인 기업보다는 소비의 주체인 가계부문에서 자금수요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충남지역의 생산기반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자금의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 충청은행의 자금운용은 상대적으로 보다 부실화의 위험이 적은 가계부문에 집중되고 있어 자금운용에 있어서 안전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은행의 기업자금대출을 지방은행 평균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시설자금보다는 운전자금에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자금이 갖는 단기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장기성 자금인 시설자금의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경제력을 확충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담보별 대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은행이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와 보증이 되어 있는 대출은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표 3〉 용도별 대출금 현황(1995년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계	기 업 자 금 대 출			가계자금	공공및기타	재형저축	근로자주택	은행간	합 계
		운전자금	시설자금	특별자금	대 출	자금 대출	자금대출	자금대출	대 여	
충청은행	11,756 (76.0)	11,120 (71.9)	636 (4.1)	0 (-)	2,632 (17.0)	779 (5.0)	3 (-)	144 (0.9)	154 (1.0)	15,468 (100)
지방은행	14,420 (82.7)	12,204 (70.0)	2,215 (12.7)	0 (-)	2,110 (12.1)	356 (2.0)	2 (-)	211 (1.2)	336 (1.9)	17,434 (100)
평 균										
시중은행	40,302 (75.7)	35,579 (66.9)	4,718 (8.8)	5 (-)	9,934 (18.7)	470 (0.9)	608 (1.1)	1,703 (3.2)	190 (0.3)	53,205 (100)
평 균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표 4〉 담보별 대출금 현황(1995년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계	담 보 대 출					보 증	신 용	합 계
		부 동 산	동 산	유가증권	예 수 금	기 타			
충청은행	7,092	6,673	0	61	341	17	1,397	6,979	15,468
지방은행평균	9,419	8,008	320	63	632	397	1,593	6,422	17,434
시중은행평균	24,728	19,361	1,553	285	3,018	511	4,077	24,401	53,205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신용을 통한 대출은 담보와 보증을 통한 대출보다는 대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충청은행은 신용대출/총대출의 비율이 45.1%를 차지하여 지방은행 평균의 36.8%보다 높아 대출이 안전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시중은행의 45.9%와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은행 중에서 광주은행과 강원은행은 동 비율이 52.5%, 48.9%로 충청은행의 비율을 초과하고 있는데 광주은행의 경우 1991년 이래로 여타의 지방은행보다 높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은행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미시적이기 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¹⁾

1) 1995년말 현재 광주은행은 신용대출이 9,643억원이고 총대출은 1조8,380억원이다. 한편 강원은행은 신용대출 3,879억원, 총대출 7,930억원이다.

즉 지방은행은 대표적인 지역금융기관으로서 해당지역의 실물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지역의 유망중소기업이 담보나 보증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기에 자금의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면 신용대출/총대출의 비율이 높은 광주은행이 그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실물경제 발전은 지역의 금융발전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출의 객관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확대는 은행예수금의 증대라는 반사작용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표 5>에서는 최근 3년 동안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충청은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총대출에서 차지하

는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은행 평균은 대체로 76%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동비율이 점차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충청은행의 경우와는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이 주는 의미를 살펴 보자. 최근 대전·충남지역은 다가올 서해안 시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지역으로서 각종 공단과 신도시의 건설 등 경제발전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각종 기업들의 대전·충남지역으로의 입주도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대전·충남지역 금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충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역의 경제력 확충을 위한 충청은행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5> 중소기업 대출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993			1994			1995		
	원 화 대출금	중소기업 대 출 금	점유비율	원 화 대출금	중소기업 대 출 금	점유비율	원 화 대출금	중소기업 대 출 금	점유비율
충청은행	8,943	6,245	69.8	11,722	7,796	66.5	15,314	9,958	65.0
지방은행 평 균	12,198	9,386	76.9	14,505	11,010	75.9	17,098	13,039	76.3
시중은행 평 균	33,453	16,567	49.4	40,373	20,119	49.8	53,015	27,516	51.9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표 6〉은 부실여신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부실여신은 은행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지표로 차후에 충청은행의 내적 현황을 살펴볼 때 재차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여기서는 총여신 중에서 부실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충청은행 대출 현황의 일면을 보고자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부실여신 발생 억제를 위한 각종 정책의 실시로 인하여 시중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은 점차로 개선되고 있으나 지방은행 평균과 충청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은 최근에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특히 충청은행의 경우에는 1994년에 1.4%, 1995년에 1.5%로 지방은행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지방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충청은행이 총대출 중에서 신용대출의 비중이 여타의 지방은행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부실여신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지역의 경제력

확충을 위하여 신용대출의 비중 또한 늘려야 하는 상황임을 염두에 둔다면 부실여신을 줄이면서 신용대출 비율을 높이는 조치의 시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 재무지표 분석

가. 수익성 분석

은행경영에 있어서 수익성은 총자산 당기순이익률(ROA), 자기자본 당기순이익률(ROE), 예대금리차 등의 지표들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충청은행의 수익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총자산 당기순이익률을 보기로 하자.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기관간의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비교대상 모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충청은행은 신탁계정을 포함하여 ROA가 1990년 1.31%에서 1995년 0.65%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은행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는 있으나 감소 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표 6〉 부실여신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994			1995		
	총여신	부실여신	부실여신비율	총여신	부실여신	부실여신비율
충청은행	21,060	286	1.4	27,886	410	1.5
지방은행 평 균	25,154	221	0.9	30,840	295	1.0
시중은행 평 균	13,057	1,088	1.0	140,658	1,333	0.9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표 7〉 총자산 당기순이익률

(단위 : %)

구 분	90	91	92	93	94	95
충청은행	1.31	0.87	0.72	0.86	0.69	0.65
지방은행	1.11	0.89	0.68	0.67	0.53	0.56
평 균						
시중은행	0.55	0.54	0.54	0.41	0.40	0.28
평 균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표 8〉 자기자본 당기순이익률

(단위 : %)

구 분	90	91	92	93	94	95
충청은행	8.69	6.83	6.25	8.22	6.53	5.54
지방은행	7.45	7.18	5.87	6.36	5.73	5.63
평 균						
시중은행	5.97	6.42	6.88	5.80	6.17	3.91
평 균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표 9〉 예대금리차

(단위 : %)

구 분	90	91	92	93	94	95
충청은행	6.63	4.55	5.45	5.32	5.50	4.99
지방은행	5.79	3.79	3.99	3.90	4.20	4.21
평 균						
시중은행	4.25	1.78	1.79	1.42	1.83	2.77
평 균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자기자본 당기순이익률은 <표 8>에 나타나 있다. 충청은행의 ROE는 1990년 8.69%로 지방은행 평균인 7.45%보다 높았으나 1995년에는 5.54%로 오히려 지방은행 평균인 5.63%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물론 연도간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충청은행 ROE의 감소 추세는 지방은행 평균보다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고있는 은행의 경우 한정된 자산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 이는 향후 은행의 대출행태가 대기업에 대한 '박리다매' 식의 대출보다는 소매금융으로 확대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분야는 기존 중소기업기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ROE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충청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995년 현재까지 지방은행 평균과 시중은행 평균수준을 월등히 초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것은 은행의 수익성만을 고려하면 그리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예대금리차를 유지하면서도 충청은행의 총수익은 1995년도 현재 3,119억원으로 지방은행 평균인 3,510억원의 88.9%의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총대출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신용대출의 비중이 높다는 것과 이로 인한 부실여신 비율이 높다는 것 등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때 예대금리차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수단일 수도 있을 것이다.

충청은행의 수익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1995년에 총수익은 3,119억원이고 이중에서 대출관련 수익이 58.1%, 유가증권관련 수익이 29.1%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은행 평균의 대출관련 수익 54.6%, 유가증권관련 수익 2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 이자수입과 외환관련 수입은 각각 2.9%와 0.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은행 평균인 6.2%와 3.5%

<표 10> 부문별 수익상황(1995년도)

(단위 : 억원, %)

구 분	총수익	대출관련	수 익	기타수입	이 자	유가증권	관련수익	외환관련	수익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충청은행	3,119	1,812	58.1	92	2.9	907	29.1	29	0.9
지방은행 평 균	3,510	1,915	54.6	216	6.2	836	23.8	124	3.5
시중은행 평 균	13,070	6,889	52.7	846	6.5	2,070	15.8	1,080	8.3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보다 낮다. 한편 지방은행 평균의 외환관련 수익은 시중은행 평균의 외환관련 수익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8.3%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충청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의 전통적인 예대업무와 유가증권 투자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수입원의 발굴과 외환관련 수입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11〉에서는 수수료 수입내역을 보여 주고 있다. 금융자유화가 진전되고 금융이 개방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은행산업의 경우 수수료의 중요성은 다시금 강조할 필요성이 없다. 일반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1990년 이후 1995년까지 1994년의 34%를 제외하고는 매년 15-25%의 증가를 보였다. 충청은행의 경우 수수료 수입은 1990-1995년 사이에 11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용카드 수입 수수료와 지급보증료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수입의 절대규모 면에서는 지방은행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수료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 금융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상황하에서 신용카드는 소비자 금융의 가장 중요한 상품이며 소액 신용대출 또한 신용카드를 통하여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입 수수료가 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금리자유화에 따라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수료 수입의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영업에 있어서 지역성과 함

께 지방은행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충청은행은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안정성 분석

자기자본비율과 예대율 및 부실여신 현황을 통하여 은행경영의 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예대율이 낮고 부실여신 비율이 낮다면 은행의 경영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기자본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자. 은행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의 하나는 최저 자본금요건(minimum capital requirement)이다. 은행의 자본금은 한 은행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은행의 도산과 폐업을 야기할지 모르는 자산가치의 일시적 하락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보유된다. 그러나 은행은 지나치게 많은 자본금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기에 자본금 완충장치가 작아지는 데에 따른 비용과 자본금이 적어질 경우에 생기는 높은 자기자본수익률을 서로 견주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모든 은행들은 BIS규제에 의하여 은행의 모든 자산과 부외항목(이자율스왑, 선물 및 옵션에 대한 거래포지션 등)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여 위험조정자산을 산출하고, 총위험조정자산의 8%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말 BIS기준 충청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1.6%, 지방은행 평균은 11.4% 그리고 시중은행 평균은 9.0%로 BIS에서 정한 최저기준인 8%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충청은행의 경우에는 1992년 이래로 시중은행 평균과 지방은행 평균보다 높은

〈표 11〉 수수료 수입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지급보증료	신용카드 수입수수료	원 화 수입수수료	외 환 수입수수료	계	총수익대비율
1990	충청은행	5	22	23	3	53	4.4
	지은평균	9	26	30	7	72	5.1
	시은평균	70	194	147	163	574	8.5
1991	충청은행	8	28	29	4	69	4.5
	지은평균	12	30	41	9	92	4.8
	시은평균	75	1,912	179	166	611	8.7
1992	충청은행	19	30	36	6	91	4.9
	지은평균	18	29	48	9	104	4.8
	시은평균	100	184	199	169	652	8.5
1993	충청은행	28	34	58	6	126	6.7
	지은평균	25	40	60	11	136	6.0
	시은평균	120	257	228	189	794	10.1
1994	충청은행	36	47	57	7	148	6.3
	지은평균	32	67	76	16	191	6.9
	시은평균	130	429	274	228	1,061	10.1
1995	충청은행	40	72	41	10	163	5.2
	지은평균	36	99	54	18	207	5.9
	시은평균	130	594	173	260	1,157	8.9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실시와 은행제도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신뢰성 상실시 개별은행의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는 이유로 인하여 자기자본을 작게 보유하려는 유인이 있지만 자기자본의 확대를 통해서 대출이나 기타 자산운용의 규모를 증

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는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대율이 낮으면 예수금보다 대출금이 작다는 것으로 대출의 부실화에 따르는 위험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13〉에서 볼 때 충청은행의 경우 예대율은 1995년을 제외하고는 1990년

〈표 12〉 자기자본 비율

(단위 : %)

구 분	90	91	92	93	94	95
충청은행	12.4	11.2	17.0	14.8	14.5	11.6
지방은행	13.0	11.6	16.3	14.9	13.1	11.4
평 균						
시중은행	8.5	8.2	10.4	10.4	10.2	9.0
평 균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표 13〉 예대율 추이

(단위 : %)

구 분	90	91	92	93	94	95
충청은행	79.4	80.5	71.9	65.6	68.2	71.6
지방은행	85.1	82.3	74.7	72.1	70.2	70.4
평 균						
시중은행	115.5	94.8	81.4	78.1	76.6	75.9
평 균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부터 1994년까지는 지방은행 평균보다 예대율이 낮다.

예대율만을 가지고 보면 충청은행은 은행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부실여신비율이 여타 은행들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은행경영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충청은행의 신용대출/총대출 비율이 여타 지방은행의 동비율보다 높다는 사실로

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은행경영의 안정성 측면만을 고려하면 예대율이 낮아야만 하지만 이는 다음 장에서 논의되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상의 심화와 관련지어 지역금융의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한편 앞서 〈표 6〉의 부실여신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충청은행의 총대출에서 부실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은행 중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

〈표 14〉 총자산 증가율

(단위 : %)

구 분	91	92	93	94	95
충청은행	17.9	12.6	5.6	24.6	20.1
지방은행	22.9	6.6	13.5	25.9	25.2
평 균					
시중은행	18.5	19.0	18.5	27.2	35.1
평 균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로 상당한 정도의 대출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만큼 은행경영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결국 충청은행은 자기자본은 BIS기준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신용대출에 따르는 사전적인 심사기능과 사후적인 위험에 대한 대비책의 부족으로 인하여 은행경영의 안정성이 저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 성장성 분석

은행의 성장성은 총자산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을 통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표 14〉는 총자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충청은행의 경우에는 1992년을 제외하고 총자산 증가율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지방은행 평균보다 낮아 성장성 측면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과 비교하여도 동일한 분석이 가능하다.

〈표 15〉 순이익 증가율

(단위 : %)

구 분	91	92	93	94	95
충청은행	-16.1	-5.3	33.6	0	-2.1
지방은행	2.5	-13.1	10.5	-0.8	9.4
평 균					
시중은행	21.8	20.3	-7.6	22.4	-22.5
평 균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순이익 증가율을 보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알 수 있다. <표 15>에 제시되어 있듯이 충청은행의 경우 1993년까지는 순이익 증가율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후부터 1995년까지는 다시 악화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지방은행 평균과 시중은행 평균의 경우에는 연도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충청은행과의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로 지방은행 평균의 경우에는 등락폭이 충청은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순이익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상위 그룹에 속하는 지방은행들과 충청은행간의 규모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 생산성 분석

생산성지표를 통해 충청은행과 지방은행 평균 및 시중은행 평균을 비교하기로 한다. 최근 3개년 동안의 생산성지표는 <표 16>과 같다. 1인당 여수신 실적에 있어서 충청은행은 지방은행 평균과 시중은행 평균보다 저조한 형편이다. 그러나 예수금 및 대출금의 증가율은 비교대상의 수치들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인당 순이익은 시중은행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나 지방은행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

치를 나타내고 있다.²⁾ 1인당 부가가치는 절대액에서 비교대상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1995년에는 지방은행 평균보다 530만원이 높은 7420만원을 기록하여 시중은행 평균에 근접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충청은행이 여수신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절감 노력이 타지방은행에 비해 두드러진 때문인 듯하다.

한편 점포당 순이익의 경우에도 1인당 순이익과 마찬가지로 시중은행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나 지방은행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 그러나 점포당 여수신 실적은 비교대상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은행의 점포당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은 지역별 시장전략을 재검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포를 점포지역의 주변여건과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수신실적, 계좌수, 당기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여 필요시 점포와 인원을 재조정하는 전략의 수입이 요청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충청은행의 생산성은 지방은행 평균과 시중은행 평균에 비하여 열세에 놓여 있으나 점차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1995년 1인당 순이익의 시중은행 평균은 750만원으로 비교대상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동화은행과 평화은행이 각각 -1,150만원, -1,280만원을 기록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면 998만원 수준이다.

3) 1995년 시중은행의 점포당 순이익도 1인당 순이익과 마찬가지로 동화은행과 평화은행이 각각 -270백만원, -316백만원을 기록한데 기인한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의 점포당 순이익은 276백만원이다.

〈표 16〉 생산성 지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인당 총자산	1인당 예수금	1인당 대출금	1인당 순이익	1인당 부가가치	1인당 총수익	1인당 총비용	점포당 순이익	점포당 예수금	점포당 대출금
1993	충청은행	883	923	491	10.0	46.0	98.8	88.8	289	26,694	14,196
	지은평균	1,062	1,009	683	8.9	53.1	116.0	107.1	245	27,831	18,849
	시은평균	1,525	1,610	1,163	11.0	59.6	148.6	137.6	386	56,561	40,841
1994	충청은행	1,097	1,120	631	10.1	53.1	123.2	113.1	266	29,386	16,564
	지은평균	1,259	1,269	823	8.8	59.8	140.4	131.6	221	31,866	20,678
	시은평균	1,808	2,169	1,376	12.7	78.6	201.9	189.2	406	69,207	43,905
1995	충청은행	1,473	1,400	877	10.1	74.2	169.1	159.0	246	33,979	21,271
	지은평균	1,571	1,571	1,010	9.6	68.9	177.5	168.0	222	36,465	23,439
	시은평균	2,016	2,500	1,512	7.5	76.7	218.5	211.0	225	75,143	45,430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III. 대전·충남 지역금융의 문제점과 개선책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상호 보완적이어야 활성화가 가능하다. 지방산업의 육성 또는 지방사회간접자본의 건설시 경제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이러한 기본원리를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부분적이었고 임기응변적이어서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경제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에 적합한 금융지원을 수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금융을 확충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은행, 지방투신사, 지방리스사, 지

방생보사 등이 설립되었지만 이도 역시 지방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취약성 등으로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방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역금융은 제도상의 문제점, 금융기관 소유구조상의 문제점, 지역의 생산 및 유통체제의 문제점 등으로 많은 구조적 문제점과 취약성을 안고 있는 바 대전·충남 지역금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제력의 취약

우리 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가 극심하다. 서울의 면적은 전체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총인구 4,551만 명의 23.7%, 지역총생산의 27.4%, 광공업 사업체 수의 22.7% 등을 점유하고 있어 대체로 실물경제

의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전·충남지역의 면적은 전국토의 8.9%, 인구는 6.8%를 점유하고 있으나 지역총생산 규모는 6.5% 수준에 불과하다.

〈표 17〉의 지역별 광공업 및 부가가치 생산액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전·충남지역은 전국 대비로 광공업 생산액의 5.0%, 부가가치의 5.3%, 사업체수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충남지역은 지역내총생산 중에서 농림어업이 22.6%, 광공업이 23.6%, SOC 및 기타가 53.8%를 점유하여 제주도를 제외하고 1차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구조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의 재정자립도 역시 서울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1994년 기준으로 서울이 86.3%인데 반해 대전이 62.6%, 충남이 30.7%이다. 충남

〈표 17〉 지역별 광공업 및 부가가치 생산액(1993)

지 역	사업체수(개)	생산액(10억원)	부가가치(10억원)	인구(천명)
전 국	90,506(100.0)	257,776(100.0)	109,715(100.0)	45,512(100.0)
서 울	20,532 (22.7)	24,737 (9.6)	1,195 (10.9)	10,799 (23.7)
부 산	9,262 (10.2)	14,456 (5.6)	6,332 (5.8)	3,847 (8.5)
대 구	6,089 (6.7)	8,200 (3.2)	3,792 (3.5)	2,347 (5.2)
인 천	6,403 (7.1)	20,796 (8.1)	8,124 (7.4)	2,208 (4.9)
광 주	1,103 (1.2)	4,571 (1.8)	2,037 (1.9)	1,274 (2.8)
대 전	1,342 (1.5)	3,787 (1.5)	1,976 (1.8)	1,235 (2.7)
경 기	22,914 (25.3)	63,758 (24.7)	2,915 (26.6)	7,438 (16.3)
강 원	1,476 (1.6)	3,871 (1.5)	2,069 (1.9)	1,531 (3.4)
충 북	1,827 (2.0)	9,802 (3.8)	4,747 (4.3)	1,427 (3.1)
충 남	2,601 (2.9)	9,084 (3.5)	3,704 (3.4)	1,845 (4.1)
전 북	2,252 (2.5)	5,843 (2.3)	2,663 (2.4)	2,005 (4.4)
전 남	3,113 (3.4)	12,915 (5.0)	4,909 (4.5)	2,198 (4.8)
경 북	4,965 (5.5)	23,401 (9.1)	9,429 (8.6)	2,876 (6.3)
경 남	6,334 (7.0)	52,260 (20.3)	18,682 (17.0)	3,968 (8.7)
제 주	293 (0.3)	296 (0.1)	151 (0.1)	,514 (1.1)

* 인구는 1994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5.

의 경우는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지역 경제력의 취약은 지역산업의 부도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도 파악이 가능하다. 대전·충남 지역의 어음부도율은 금액기준으로 1994년말 0.52에서 1995년말에는 0.85로 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동안에 전국평균이 0.19에서 0.18로 감소하고 지방평균이 0.61에서 0.68로 약간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대전·충남지역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지역 경제력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2. 금융기반의 취약

지방에서 조성되는 자금의 규모는 수도권에 비해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1994년 기준으로 총점포의 70.6%인 1,894개가 수도권에 소재한 시중은행의 경우 지방은행 평균과 점포당 예수금 실적

〈표 18〉 지역별 예금은행 예금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10억원, %)

지 역	예 금		대 출 금		예 대 율	
	1993	1994	1993	1994	1993	1994
전 국	115,732	135,190	108,091	127,066	91.3	91.7
서 울	58,976	68,747	53,634	62,701	86.9	86.9
부 산	9,056	9,916	8,762	9,885	95.9	98.7
대 구	6,158	6,900	6,183	7,532	100.4	106.3
인 천	4,321	5,090	4,343	5,007	100.4	98.3
광 주	2,505	3,035	2,513	3,045	100.3	100.3
대 전	2,541	2,883	2,445	2,876	96.2	99.8
경 기	12,070	14,680	10,154	12,699	84.1	86.5
강 원	2,009	2,341	1,651	1,926	82.2	82.3
충 북	1,716	2,038	1,806	2,965	105.3	101.4
충 남	1,864	2,261	1,684	1,938	90.3	85.7
전 북	2,444	2,963	2,632	3,085	107.7	104.1
전 남	1,895	2,292	2,166	2,479	114.3	108.2
경 북	3,341	4,061	3,292	3,933	98.5	96.9
경 남	6,004	7,012	6,085	7,230	101.4	103.1
제 주	834	974	741	844	89.0	86.7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1995. 11.

을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표 16 참조). 또한 동년을 기준으로 전체 지방은행이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금융기관의 총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하며, 지방총수신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금융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표 18>의 지역별 예금은행 예금 및 대출금 현황과 <표 19>의 지역별 비통화금융기관의 예수금 및 대출금 현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예금은행의 경우 예대금의 50% 내외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경기, 부산, 대구, 경남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예대금의 규모는 아주 저조한 수준으로 전국대비로 예금과 대출금이 각각 3.8%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비통화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전·충남지역이 예수금은 전체의 4.7%, 대출금은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금은행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한편 지역의 금융저축 수준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1인당 예금은행 예금액을 보면 1994년의 경우 대전은 서울의 36.7%, 충남은 19.3%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저축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아 저축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금융기관의 보급정도를 나타내 주는 인구 10,000명당 평균 점포수는 1991년의 2.2개에서 1995년말 현재는 2.6개로 늘어나 전국 평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11개로 전국 평균보다 0.3개 적은데 반해 비통화금융기관은 1.5개로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0.3개가 많은 실정이다(대전·충남 지역경제동향, 1995). 이는 다음에 논의되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키는 요인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3. 자금의 역외유출

지금까지 대전·충남지역의 경제력이 취약하고 금융기반이 취약하다는 사실들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은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그 지역의 경제활동에 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4년말을 기준으로 비통화금융기관을 통하여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은 약 162조원인데 그 중에서 58.5%인 약 95조원만이 지방에서 대출되었다.

한편 동년말을 기준으로 대전·충남지역의 비통화금융기관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규모는 전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4.7%로 약 14조9천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대전·충남지역에 대출된 금액은 51.7%인 7조8천억원 수준이다.

대전·충남지역의 자금 유출입 상황은 <표 20>과 같다.

1994년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예금은행의 은행계정과 비통화금융기관의 개발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금융기관에서 예수금보다 대출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비통화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전·충남지역의 자본시장이 미미한 상태인데다 여신기반

〈표 19〉 지역별 비통화금융기관의 예수금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10억원, %)

지 역	예 수 금		대 출 금		예 대 율	
	1993	1994	1993	1994	1993	1994
전 국	255,797	321,335	157,988	200,758	61.8	62.5
서 울	125,495	158,933	84,014	105,893	66.9	66.6
부 산	19,941	23,971	9,912	12,797	49.7	53.4
대 구	12,383	15,360	5,849	8,030	47.2	52.3
인 천	8,124	9,952	4,686	6,187	57.7	61.9
광 주	6,505	8,297	3,415	4,536	52.5	54.7
대 전	6,587	7,934	2,785	3,489	42.3	44.0
경 기	19,830	25,912	12,361	16,149	62.3	62.3
강 원	5,354	6,479	2,965	3,801	55.4	58.7
충 북	4,878	6,140	2,881	3,653	59.1	59.5
충 남	5,909	7,305	3,683	4,389	62.5	60.1
전 북	7,159	9,134	4,004	5,337	55.9	58.4
전 남	6,765	8,441	4,301	5,481	63.6	64.9
경 북	9,808	12,462	61,090	7,596	63.1	60.9
경 남	14,178	17,435	9,276	11,393	65.4	65.3
제 주	2,881	3,581	1,657	2,058	57.5	57.5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1995. 11.

〈표 20〉 대전·충남지역의 자금 유출입 상황(1994년말 기준)

(단위 : 10억원)

구 분	은 행 합 계	개 발 기 관	종 합 금 융	투 자 신 탁	은 행 신탁	상 호 금 융	상 호 신 용	새마을 금 고	신 용 협 동	생 명 보 험	재2금융 합 계
예금a	5,145	66	117	2,450	2,798	3,611	1,647	880	1,004	2,248	14,870
대출b	5,783	661	84	26	687	2,572	1,283	604	805	1,060	7,781
b-a	638	595	-33	-2,424	-2,111	-1,039	-364	-276	-199	-1,188	-7,089

자료 : 한국은행대전지점, 「대전·충남 지역경제연보」, 1995. 9.

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상호금융,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외, 신용카드업무 등 여수산업무 이외의 수익성 부문을 가진 은행과는 달리 여수산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높은 수신금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높은 여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영세한 지역고객들의 대출수요는 계속 미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별로 금융기관의 예대율을 살펴보면 1995년말 현재 예금은행의 경우 전국평균은 89.6%인데 대전은 95.9%로 전국평균보다 높으나 충남은 87.6%로 전국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로 미루어 볼 때 대전지역의 예금은행들은 대출에 적극성을 띠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충남지역은 산업구조가 농업·농림업 비중이 높고 광공업 비중이 낮아 예금은행을 통한 자금대출의 수요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비통화금융기관의 예대율을 살펴보면 대전은 40.8%, 충남은 58.8%로 전국평균인 62.3%보다 낮게 나타나 이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상당부분이 비통화금융기관을 통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대전·충남 지역금융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대전·충남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금융저축도 낮고 금융기관도 매우 취약하다. 이처럼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취약한 이 지역에서 지방은행으로서 충청은행의 역할제고와 이에

따른 지역금융의 확충에 대한 기대는 여타 지방은행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전·충남지역은 다가올 서해안시대의 중추역할을 할 전진기지로서 향후 상당기간동안 산업시설의 확충,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주민생활 편의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이 지역금융의 중추역할을 할 충청은행의 역할제고와 위상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금융 확충에 대해 충청은행에 거는 기대는 큰 형편이나 지방은행으로서의 여러 가지 한계점과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충청은행은 아직도 지역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은행의 전반적인 경영실적은 지방은행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후발 전국형은행의 수준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다. 또한 이 지역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성자금의 유치수준 역시 미미한 형편이다. 게다가 충청은행은 이 지역의 타 금융기관들과 치열한 수신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지역밀착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정부도 지방은행에 대한 규제에 차별성을 부여하고 선별적인 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방은행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측면에서의 지원도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차별화 하여야 할 것이다(장충식 외, 1993).

Ⅳ.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발전방향

1. 충청은행의 장기계획

충청은행의 장기계획(1995-1999년)에 따르면 경영목표를 '21세기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최고의 은행으로 도약'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객감동, 둘째 지역경제 선도, 셋째 인재양성, 넷째 경영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으로는 첫째 경영체질의 강화, 둘째 경영 효율성의 강화, 셋째 지역밀착화 전략의 확산, 넷째 종합 정보전산시스템체제 구축, 다섯째 종합금융서비스체제 확립, 여섯째 국제화 기반조성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경영전략의 확실한 수행을 위하여 부문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가. 경영관리 부문

- ① 조직의 효율성 제고
- ②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인재 양성
- ③ 리스크 관리기능 강화
- ④ 고객중심의 영업체제 구축
- ⑤ 경영합리화의 지속적 추진
- ⑥ 자기자본의 충실
- ⑦ 영업기반의 확대
- ⑧ 수익기반의 확충
- ⑨ 자산 재구축

나. 수신 부문

- ① 수신기반의 확충
- ② 예수금의 지속적 증대

- ③ 유동자금의 유치 강화
- ④ 상품의 개발능력 강화
- ⑤ 신탁부문 확대
- ⑥ 고객중심의 영업체제 구축

다. 여신 부문

- ① 여신의 수익성 제고
- ② 대출심사 업무의 효율화 추진
- ③ 여신의 안정성 제고

라. 외국환 부문

- ① 외환부문 하부구조 구축
- ② 외환 실적 및 손익 증대
- ③ 외환업무 관리강화
- ④ 외환 취급점포의 저변화
- ⑤ 금융국제화 기반구축

마. 정보 및 전산 부문

- ① 사무자동화 및 합리화 추진
- ②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 ③ 자동화코너 확대
- ④ 전산시스템 기능강화
- ⑤ 전산자원의 생산성 향상

바. 조직 부문

- ① 조직의 고객 지향적 개편
- ② 조직운영의 효율화

사. 인사 부문

- ① 효율적 인사관리
- ② 인재양성
- ③ 복지후생제도의 확대로 인간존중 실현

2. 충청은행의 발전방향

충청은행의 장기계획을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가.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금융자유화, 국제화 및 개방화가 1990년대 초부터 급속히 추진되면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는 등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즉, 3단계 금리자유화의 실시로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상품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동시에 금리 변동폭도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금리구조가 합리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자금조달시 은행보다는 조달 비용이 적게드는 자본시장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은행들은 불가피하게 대기업에 비하여 도산 위험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가 및 환율의 일중 변동 허용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밖에 장기적으로 금리옵션, 금리선물, 금리스왑 등을 취급하는 원화과생금융시장이 설립되면 외화부문 뿐만 아니라 원화부문에서도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각종 위험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은행의 신용위험, 금리위험, 가격·환율변동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경영위험의 증대를 초래함으로써 은행의 위험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경영위험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도산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수익극대화를 도모

하기 위하여 금리 및 유동성 위험을 정확히 측정하고 능동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구성 및 만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거나 통제하는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 ALM)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전통적인 신용위험중심의 위험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합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정익준, 1996).

나.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금리자유화 이후 은행들은 가격경쟁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위주로營業을 하여야 한다. 은행대출업무의 예를 들면 부가가치는 기본적으로 대출심사와 관련한 정보의 생산, 부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으로부터 창출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러한 부가가치의 창출에 보다 많은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은행업은 서비스업이며 서비스업의 핵심은 고객에게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최고은행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충청은행으로서 고객감동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종합정보전산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네트워크의 형성자로서 잠재력을 발휘하여 정보제공, 컨설팅업무 등을 통하여 자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부대서비스의 충실화를 기함으로써 지역은행으로서 지역주민의 기대감 충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표 21〉 위험요소들의 변동 허용폭 추이

위험요소	변 동 내 용
금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 11월 : 제1단계 자유화 시행 (CD, 거액RP,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재할인대상 제외) 및 2년 이상 회사채 등에 대한 금리) - 93년 11월 : 제2단계 자유화 시행 (2년 이상 정기예금, 재정·한은지원외의 모든 대출 및 2년 미만 회사채 등에 대한 금리) - 94년 7월, 12월 및 95년 7월, 11월 : 제3단계 자유화 시행 (요구불예금 및 일부 단기 시장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여수신 금리) - 96년 1월 : 은행대출 가산금리 자유화 - 97년 이후 : 모든 여수신금리 자유화
주 가	- 95년 4월 : 일일 주가변동제한폭이 가격대별 제한에서 전일 증가대비 $\pm 6\%$ 로 확대
환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94년 10월 : 일중변동허용폭 $\pm 1\%$ - 94년 11월 : 일중변동허용폭 $\pm 1.5\%$ - 95년 12월 : 일중변동허용폭 $\pm 2.25\%$

자료 : 정익준, 「금융환경변화와 은행의 위험관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1996. 5.

금융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표 16〉에서 본 바와 같이 충청은행의 1인당 부가가치는 1994년까지는 지방은행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1995년에는 지방은행 평균을 상회하여 시중은행 평균에 육박하는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 지역밀착화와 전문화의 강화

충청은행 자체가 갖는 특색이 없이 시중은행과의 경쟁은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할 것이기에 충청

은행의 발전방향은 전국형 은행화하는 것보다는 지역금융에의 토착화 및 전문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밀착화가 가장 바람직한 전략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개방이 진전될수록 정책당국은 대외경쟁력을 염두에 두게 되고 이에 따라 대형 시중은행을 활용한 규모확대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충청은행이 대형화 경쟁대열에 참여하기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므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는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전문은행으로의 성장이 시급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지역개발금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금융 및 금융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금융의 선도적 기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어느 지역의, 어떤 고객층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별, 고객별, 상품별 시장전략 등의 특화전략을 수립하여 예금섭외력을 융자섭외력으로 전환하며 심사기능의 신속화 및 고도화에 의한 융자섭외 기능에 대한 지원태세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충청은행 스스로도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업무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여 대고객 서비스를 개선함은 물론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및 금융상품의 개발추진 등 제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라. 타 지방은행과의 제휴 강화

주요국의 은행들은 대형은행과 소규모 전문은행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생산에 요구되는 방대한 투자비용의 부담으로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은행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또한 막대한 투자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일부 대형은행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며 따라서 경쟁력을

상실한 은행들을 매수, 합병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제한된 영업구역을 갖고 있는 지방은행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는 전략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합심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의 수립이 요청된다. 이것이 바로 대형은행, 외국은행 지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효과적인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청은행의 발전방향으로 타 지방은행과의 제휴 강화가 요청되는 바 대표은행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은행제도는 일본의 지방은행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서울에 지점이 있는 한 지방은행의 지점을 전 지방은행의 대표은행으로 지정하여 중앙 각 단체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전국 지방은행으로의 송금 및 예금업무의 처리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중앙의 관공서와 거래하고자 할 경우 1회만의 교섭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단결하여 거래처를 획득하기 위하여 설립된 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은행이 대표은행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 지방은행의 최대 취약점인 중앙단체의 각종 자금을 취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 지방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만일 서울지역의 점포수 제한이 완화된다면(10개까지 설치 등) 지방은행은 가장 편리한 전국은행의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중앙단체와의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중앙단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보다 깊게할 수 있어 지방

자치단체의 지정금융기관으로 지정받기가 용이할 것이다. 최근에 합의된 지방은행간 공동전산망의 구축은 10개 지방은행이 국내 최대의 점포망을 갖춘 은행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효율적 비용 구조의 구축

충청은행의 금융서비스 생산은 물론 점포망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점포망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표 1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청은행의 1인당 순이익은 지방은행 평균을 상회하여 시중은행 평균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1인당 부가가치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충청은행의 비용절감 노력이 두드러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충청은행의 점포당 순이익은 지방은행 평균보다는 높으나 시중은행 평균보다는 월등히 낮은 수준이고, 최근에는 이 수치가 뚜렷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총 점포의 70.6%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수신 규모가 작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점포망이 비용의 효율적인 구조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충청은행은 점포를 점포지역의 주변여건 및 특성에 따라 office지역, 준office지역, 상가 및 공장지역, 주택지역, 준주택지역, 지방지역 등으

로 구분하여 이 지역들을 수신실적, 계좌수, 당기 순이익 등의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여 점포와 인원을 재조정하는 전략의 수립이 요청된다.

바. 은행의 하부구조 개선

충청은행의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크 관리 기능의 강화, 상품개발 능력의 강화, 전산시스템 기능의 강화, 금융국제화 기반구축 등을 위해서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인재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즉 이러한 부문별 계획은 결국 양질의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은행의 하부구조를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기술상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은행산업에 있어서 은행원의 자질, 중간관리자와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기술 등을 향상시키는 것은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행되고, 직원들은 고객의 상담에 응하거나 신상품의 개발과 신규 고객수요를 파악하는 것으로 역할이 변모하게 될 것이다. 자금딜링과 포트폴리오 운용, 기업과 소비자들의 고객정보 관리, 국내외 경제동향에 관한 정보처리와 예측, 대출심사 등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전문요원의 확충이 시급한 형편이다.

경영관리, 상품개발, 전산, 국제금융 등에 관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충청은행의 장기계획은 그 수행 속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V.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방안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지역간, 부문간, 계층간의 소득 불균형의 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의 시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 지방산업의 육성, 지방주민의 편익시설 및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대전·충남지역은 앞으로 다가올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기에 더욱더 막대한 투자가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대전·충남 지역금융의 핵심인 충청은행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앞장서서 논의들을 바탕으로 제도 및 시장환경 측면의 강화방안과 은행 내부적 강화방안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1. 제도 및 시장환경 측면의 강화방안

충청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 및 시장환경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요구되며 정책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대전·충남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유출 문제, 충청은행의 수신기반 취약 문제, 중앙자금의 지역유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먼저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는 자금의 역외유출 문제이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지역자금은 주로 비통화금융기관을 통하여 역외로 유

출되고 있는 형편인데 대전·충남지역은 앞의 <표 20>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신탁과 생명보험회사 등을 통한 역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조성자금의 역외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투자신탁회사나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펀드의 지방채 편입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대출시 일정비율을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채신예금 등은 상환준비금의 일부를 지역의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자금의 지역순환시스템을 강화하여 영세한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지역자금은 그 지역을 위해 투용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충청은행의 수신기반이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지역의 경제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결과로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충청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에 있어서 종합전산망의 구축, 경영정보시스템의 개발, 사무자동화 등의 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생산성과 수익성 하에서는 투자비용의 조달이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영업구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최소한 수도권 및 인접 경제권역에의 추가적인 점포의 신설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중앙자금의 지역유치 문제이다. 영업구

역의 제한으로 인하여 충청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은 중앙자금을 지방에 유치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즉 전국적인 거래가 수반되는 대부분의 기금은 점포망이 없는 지방은행과의 거래에 큰 불편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각종 기금의 지역자금화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에 의해 대표은행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은행 내부적 강화방안

충청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은행 내부적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ALM시스템의 도입이다. 은행금융기관은 자금잉여자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 자금부족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기능과 고객에 대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은 불가피하게 신용위험, 금리위험, 가격·환율변동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들은 1980년 중반이후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급속한 진전 등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표 21 참조).

또한 자금 조달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예대마진 축소와 경영자율폭 확대에 따른 투자재량권 확대로 주식 등 고수익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금리의 구조가 합리화되고 가격경쟁력이 회복되면 만성적인 자금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지금까지 은행대출에 크게 의존하던 대기업들이 자금조달시 자본시장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은행들은 대기업에 비하여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확대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은행들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출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로 자산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ALM시스템의 도입이 요청된다.

둘째는 중소기업 신용평가 모델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향후 은행의 대출이 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ALM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강조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 신용평가 모델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지금까지의 금융기관들은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법을 개발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다. 과거에는 한국은행이 재할인 적격업체 선정기준으로 정했던 '기업체 종합평가표'를 이용하였으나 이 평가표는 재무항목 위주로 되어 있어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성이나 경영능력 등의 반영비중이 낮아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각 은행들이 올바른 신용평가기법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나 기초자료 및 신용평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신용평가모델의 개발이 부진하였다. 이에 한국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비재무항목의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한 중소기업 신용평가표를 신규 개발하여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지역적인 특성을 지님과 동시에 경영주의 능력이나 경영성실성, 경영진의 구성, 노사관계, 환경변화에의 대응력, 자금관리 능력 등에서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지방은행이 타은행보다 정보의 우위 확보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재 최고 수준의 부실여신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신용대출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충청은행으로는 대출에 따른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기존의 신규 개발된 중소기업 신용평가표를 보완하고 이를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업무영역의 다각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화로 인하여 은행의 수익원은 전통적인 예대업무에서 발생하는 예대금리차에서 고객대상의 금융부대서비스의 개발에 따른 수수료사업으로 이전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충청은행도 다양해지고 고도화되어 가는 지역고객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단순한 자금매개의 기능을 넘어선 경영정보, 기술정보, 재테크정보를 부가시킨 컨설팅 등 부대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충청은행 경제연구소를 통한 지역사회의 동정, 경제, 산업 및 금융동향에 대한 풍부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외환부문의 확대 및 강화이다. 충청은행의 부문별 수익상황을 살펴보면 외환관련 수입은 지방은행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10 참조>. 이는 현재까지 금융국제화에 대한 충청은행의 대비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충청은행이 담당할 역할을 고려한다면 외환부문의 확대 및 강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충청은행은 국제화의 추진과 함께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외환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선물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의 새로운 시장성 업무를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외환부문의 확대 및 강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수료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섯째는 지역밀착 경영의 전개이다. 충청은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개발금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금융 및 금융외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금융 선도적 기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각종 상공단체와의 제휴에 의한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비전을 구축함과 동시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으로 이들이 은행과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금융지원 방법은 기업육성형 대출 실시, 지역기업 육성기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금융외적 지원방법으로는 기업종간의 교류회 개최, 경영자 세미나 및 중간관리자 지도, 유망중소기업가나 근로자의 해외시찰

등의 방법이 있다. 또한 향우회와 같은 지역출신 인사 모임에도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금융기관으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역외자금의 유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교류네트워크를 형성하여 know-how의 상호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지역개발에의 투자는 지역권에서 사회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망한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안정수익원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전·충남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충청은행에 저축하면 그것이 다시 자신의 소득원으로 환원되고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저축향상을 제고시킬 것이다.

여섯째는 대전·충남지역소재 타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이다. 금융시장의 개방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갖고 있는 지방은행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씨티뱅크와 같은 외국은행들이 지방에 점포를 늘려 가는 현재 지역의 금융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지방은행은 지역의 타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한계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충청은행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경제권의 지방은행과의 합병 및 재편, 지역의 타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공동판매계약, 시설의 공동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야 할 것

이다.

일곱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화 추진이다.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지역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동안 일부은행에서 운영해 온 지자체금고 및 법원공탁금에 대한 각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들의 유치경쟁은 수성과 탈환을 둘러싸고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도금고는 시중은행이 독점하고 교육금고는 농협이 거의 전담하고 있다. 광역시금고는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는 해당지역의 지방은행이 담당하고 있으며 시금고의 경우는 전체금고를 지방은행과 농협이 거의 취급하고 있고 군금고는 농협이 독점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은행이 전적으로 지자체금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내의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지방금융과 지방재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단체는 경제를 포함하는 모든 부문에서 지역발전을 주도하여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충청은행이 지자체금고업무를 유치하면 충청은행은 영업기반을 확충하게 되고 대전·충남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단체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는 상호 보완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VI. 맺는말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효율성 추구는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

방은행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들의 경쟁력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1년이 막 지난 지금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방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재고찰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대전·충남지역은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대규모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 지역주민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에의 투자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금융환경의 변화 및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대전·충남지역의 지방은행인 충청은행에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호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쟁력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은행의 현황 및 대전·충남 지역금융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분석함으로써 충청은행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세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충청은행의 장기계획을 토대로한 발전방향으로는 첫째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둘째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창출, 셋째 지역밀착화와 전문화의 강화, 넷째 타지방은행과의 제휴 강화, 다섯째 효율적인 비용구조의 구축, 여섯째 은행의 하부구조 개선 등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장기 발전방향으로 충청은행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시장환경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충청은행 내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은행산업은

수신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중개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정책당국의 규제를 많이 받아 왔고 그만큼 자율화의 진행정도도 완만하였다. 따라서 충청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 및 시장환경 측면에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지방은행의 수신기반 취약에 따른 영업구역 규제의 완화, 중앙자금의 지역유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표은행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정책당국의 지원이 선결 과제이다.

이와 같은 정책당국의 지원 하에 충청은행 내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첫째 ALM시스템의 도입, 둘째 중소기업 신용평가표의 적극적 활용, 셋째 업무영역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넷째 외환부문의 확대 및 강화, 다섯째 지역밀착경영의 전개, 여섯째 지역소재 타금융기관과의 업무 제휴,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화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모색은 충청은행으로 하여금 자행의 발전과 더불어 대전·충남 지역의 경제발전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지름길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전개될 21세기에는 금융거래에서 국경의 개념이 없어지는 금융의 범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수지개선과 비용통제에 힘쓰도록 하고 있으며, 통신 및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금융기관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은행도 이러한 금융

환경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세부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자행의 경영규모, 업무특성에 적합한 국제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선진 금융기법을 신속히 체득하여 구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적자생존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경쟁력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열린충남**

참 고 문 헌

- 구재운, “지역성장과 금융”, 전남지역경제조사, 1995. 4.
- 김시담, “21세기의 금융산업”, 한일금융, 1994. 9.
- 김재필, “지방은행의 과제와 선택”,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제2권1호, 1996.
- 김태혁,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익성과 자금흐름성 비교분석, 한국금융연구원, 1994.
- 류덕위, “금융환경변화와 지역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한국은행대전지점 심포지움, 1996. 6.
- 엄봉성, “21세기 지역금융산업의 발전방향”, 부은경제, 1995. 11-12.
- 오성동, “지방화시대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의 방향”, 전남지역경제조사, 1994. 10.
- 유승종, “시중은행의 지방경쟁력”, 조흥경제, 1995. 9.
- 이수호, “은행의 중소기업금융 실태와 효율화 방안”, 부은경제, 1996. 5-6.
- 이영수, “은행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과 효율성 추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6.
- 장충식 외 2, 금융산업개편에 따른 광주은행의 경영전략, 미래경제연구원, 1993. 9.
- 정구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은행의 지역밀착 영업전략”, 국민경제리뷰, 1992. 4.
- 정익준, “금융환경변화와 은행의 위험관리”, 한국은행 경제분석, 1996. 5.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5.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5.
- _____, 지역금융통계, 1995. 11.
- _____, 한은정보, 1996. 2.
- 한국은행대전지점,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체 경쟁력 강화방안, 1994. 12.
- _____, 대전·충남 지역경제연보, 1995. 9.
- _____, 대전·충남 지역경제동향, 1995. 12.
- _____, 최근의 대전·충남 지역경제동향, 1996. 2.
- _____, 충남지역의 경제분석, 1996. 3.
- 한국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5.
- Mishkin F.S., *The 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Harper Collins, 1995
- Patrick H.T.,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an, 1966
- Stiglitz J. E. and A. Weiss,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981.

서산기지 민항취항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이 인 배
(李仁培)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



- I. 들어서는 글
- II.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 가능여건 분석
- III. 서산공항 개발 기본구상
- IV.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 파급효과
- V. 나가는 글

I. 들어서는 글

오늘날은 하이테크(high-tech) 시대의 도래로 정보산업 및 항공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은 개인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다양화가 요구됨에 따라 정보산

업, 항공산업, 관광위락산업, 컨설팅산업, 이벤트산업 등의 선진국형 서비스산업의 수요급증이 예상되며, 아울러 이상의 서비스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고급화되고 다양한 물류유통 및 운송관련 산업의 성장도 예상되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의 질적 향상으로 첨단 운송수단 개발산업이 발전될 전망이다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교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쾌적성, 고속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항공교통의 경우 쾌적성 및 고속성 등의 고급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최근 교통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수요는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연평균 2.7%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항공교통은 동기간동안 여객운송의 경우 연평균 19.7%, 화물운송의 경우 25.7%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사회·경제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교통의 양적 수요증

가와 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정치·사회적 변화, 지방자치의 실시, 세계화와 지방기능 등을 감안하여 지역간 항공교통망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산업의 고도화와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항공관련 산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농업비중의 감소, 공업분야의 지속적 확대, 새로운 3차산업 생성 등의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간 사회·경제적 유대관계의 강화에 따른 운송수요 패턴의 변화가 예상되고 특히, 정보산업과 서비스산업 성장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교통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간 국내 항공수요가 급증 추세이고, 항공기 이용환경이 변화하여 관광객, 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고급 교통수단인 항공교통 이용률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적으로는 WTO의 출범으로 국제경제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국제경제 교류는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며, 화물운송을 위한 항공교통 비중이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환(環)황해권 대동북아 교역의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충청남도는 서해연안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배후 신도시 건설, 서해안·백제문화·금강권 관광개발 등에 따라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본격화 되는 2000년대에는 물동량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수송문제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서해안권 교역 거점지역과 서북부 신산업지대 개발촉진을 위한 화물의 운송, 백제문

화권과 서해안 주변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고급 고속 수송수단으로써, 1997년 완공계획으로 사업이 진행중인 서산기지의 민간항공 병행 사용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와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산기지 민항취항과 지역파급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 가능여건 분석

1. 충남광역권 및 서북부지역의 현황분석

충남 및 서북지역의 공업단지 건설계획, 신도시 건설계획 및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계획은 충남의 미래상, 특히 교통수요의 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도건설종합계획에 포함된 공업단지 건설계획은 3건의 국가공단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1994년 현재 이미 조성된 5개의 지방공단 이외에 9개의 지방공단 건설이 추진중이거나 준비중에 있다.

신도시 건설계획은 서해안의 공단 배후신도시인 대산, 당진, 장항신도시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륙지역인 계룡신도시 건설계획과 경부고속전철 역세권 개발지역인 천안-아산간 신도시 건설계획 및 홍성신도시 건설계획이 추진중에 있다.

또한 관광지 개발계획으로 백제문화의 중심지였던 부여와 공주 일원에 역사재현촌과 연구교육촌으로 구성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해안 안면도 부근에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 및 신규 공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최근 현대그룹은 위성 및 항공사업과 관련하여 서산기지의 1차 역세권에 포함된 서산을 항공우주산업기지로 육성하기로 결정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산지역에 항공기 제조 및 공항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규모 신규공업단지 입지계획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계획이 완료될 경우 5,339천㎡의 대규모 공단이 조성될 것이며, 총 예상 고용 인원도 약 30,000명 이상이 될 것이며, 그로인해 화물 및 여객 등 서산공항의 이용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면 현대우주항공(주)는 서산시 성연면과 장동 일원에 항공기 제조공장을 입지할 계획이며, 현대정공(주)도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제조공장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성연농공단지에 입주할 항공기 제조업종은 외국기업과 기술제휴 업체로 외국인 현지 체류 및 엔지니어의 진출입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고, 기타 대산면 대죽리의 금강유리, 고북면 정자리의 현대강관, 대죽리의 한국석유개발공사 등이 입지할 계획이다.

2. 서산기지 제원과 민항기 취항 가능성 분석

가. 민항기 취항 가능성의 시설측면과 취항사례 분석

현재 건설중인 서산기지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항인 김포공항 및 제주공항과 비교해 볼때 민항기 취항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부지면적에 있어 김포 221만坪이나 제주 81만坪 보다 월등히 넓어 민간항공 취항을 위한 항공관련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둘째로 활주로의 상태도 제주공항보다는 훨씬 양호하고, 김포공항과도 거의 비슷하며, 활주로의 두께 역시 김포공항 보다 두꺼워 대형 민항기의 취항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¹⁾.

또한, 군비행장에 민항을 취항하고 있는 사례는 1996년 현재 전국의 총 14개 공항중 김포, 제주, 울산, 여수 등의 공항을 제외한 10개 공항은 군·민공용 공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서산과의 접근성에 의한 비행기 운항 가능성 분석

서산과 민항기 취항이 가능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과의 육로거리를 살펴보면 서산과의 거리가 400Km 이상되는 지역이 부산, 여수, 진주, 울산, 포항, 속초, 제주 등이고, 250Km 이상되는 지역이 대구, 광주, 목포, 예천, 강릉 등이며 서울까지는 약 170km이다.

이러한 거리비교 결과 서산과 기존 공항과의 거리와 현재 운항하고 있는 공항간의 거리를 비교하여 살펴볼 때 이용수요가 뒷바침 된다면 접근 거리상으로는 민항기 취항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공항시설의 제원에 관한 통계자료는 군사시설이므로 본 연구내용에서는 제외하였고, 세부 통계자료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 타당성 분석(1996)을 참조.

〈표 1〉 서산과 민항취항 대상공항 거리(육로기준)

구 분	경 유 지	거리(km)	비교노선	거 리(km)
서산 - 서울	서산-천안-서울	182.5	서울 - 예천	173
	서산-서울	164.5		
서산 - 부산	서산-대전-대구-부산	435.3	광주 - 강릉	438
서산 - 대구	서산-대전-대구	299.8	김해 - 강릉	310
서산 - 광주	서산-군산-광주	279.8	청주 - 강릉	277
서산- 대전	서산-대전	151.1	-	-
서산 - 청주	서산-청주	186.4	제주 - 광주	182
서산 - 군산	서산-군산	139.1	-	-
서산 - 목포	서산-군산-목포	354.0	제주 - 울산	355
서산 - 제주	서산-목포-제주	558.0	제주 - 원주	563
서산 - 여수	서산-광주-여수	416.8	광주 - 강릉	438
서산 - 진주	서산-대전-진주	400.6	서울 - 진주	394
서산 - 울산	서산-대구-울산	400.6	서울 - 진주	394
서산 - 포항	서산-대전-포항	401.7	서울 - 진주	395
서산 - 예천	서산-대전-예천	308.7	김해 - 광주	310
서산 - 강릉	서산-천안-원주-강릉	360.8	제주 - 울산	355
서산 - 속초	서산-서울-속초	488.8	강릉 - 여수	502

자료 : 철도여행문화사, 「관광열차시각표」, 1996.

다. 국내 공항기상 여건 비교분석

기상은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요소이며, 인위적인 변화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이 입지하게 될 경우 그 지역이 갖는 기상여건의 고찰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서산공항과 미개항공항 및 기존의 국제·지방공항

들간의 기상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여러 기상여건 중 먼저 항공기의 이착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해면기압의 경우 다른 공항들과 비교해 볼때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²⁾.

2) 기압이 높으면 항공기의 출력이 감소하여 여객 및 화물을 기압이 높은 곳에서 보다 줄여야 함.

〈표 2〉 국내 주요공항의 기상현황

구 분		미 개 항 공 항			기존 국제 및 지방공항				
		서 산	인 천 (영종도)	청 주	김 포	김 해	제 주	광 주	대 구
평균해면기압(hP)		1,016.3	1,015.6	1,017.0	1,016.3	1,015.8	1,017.1	1,016.3	1,017.4
기 온(℃)	평 균	11.6	11.7	12.0	12.2	14.5	15.6	13.4	13.9
	최 고	33.8	33.8	35.7	33.7	32.8	35.8	35.9	39.2
	최 저	-14.4	-11.0	-13.9	-11.1	-6.7	3	-8.4	-8.9
강 수 량(mm)		1,448.3	1,326.2	1,339.8	1,598.6	1,005.7	1,472.9	1,005.7	728.8
평균상대습도(%)		73	70	65	63	65	72	68	61
일 조	시 간	2,344.7	2,507.3	2,402.9	2,290.6	2,565.8	1,945.8	2,375.9	2,532.5
	백분율	52.7	56.3	54.0	51.5	57.7	43.8	53.4	56.9
바 람	평균풍속(%)	2.4	3.1	1.8	2.3	4.0	3.5	2.1	2.6
	폭풍일수	2	0	0	0	8	6	3	0
	최대풍향	SW	NNW	SW	WNW	NNE	NNE	NNE	WNW
천 기	맑 음	94	114	93	110	138	48	85	125
	흐 림	91	84	92	84	90	132	102	80
	눈	35	25	27	28	5	28	36	15
	우 박	2	1	-	4	1	6	1	-
일 수	뇌 전	15	17	18	24	18	19	16	21
	안 개	43	30	25	14	15	10	15	7
	서 리	112	69	115	82	101	6	101	46
	결 빙 설	126	113	127	124	110	6	110	103
	적 설	31	16	26	19	20	1	20	7

구 분		기존 국제 및 지방공항								
		울 산	포 항	사 천	강 릉	속 초	여 수	예 천	목 포	군 산
평균해면기압(hP)		1,016.1	1,016.6	1,016.1	1,015.3	1,014.4	1,016.7	1,017.1	1,017.4	1,016.8
기 온(℃)	평 균	13.7	14.1	2.5	13.1	12.2	14.1	11.5	13.9	12.7
	최 고	37.2	37.0	36.2	36.5	34.3	32.8	36.2	34.0	34.4
	최 저	-8.0	-8.4	-11.7	-10.0	-19.3	-5.9	-14.6	-5.4	-9.3
강 수 량(mm)		693.0	744.8	975.0	962.2	1,097.5	1,083.5	793.3	613.2	1,001.0
평균상대습도(%)		61	58	64	61	67	67	64	66	71
일 조	시 간	2,133	2,480.2	2,377.8	2,247.6	2,251.0	2,722.3	2,261.7	2,227.5	2,337.1
	백분율	49.8	55.7	53.5	50.5	50.6	61.2	50.8	50.1	52.6
바 람	평균풍속(%)	2.1	2.7	2.1	2.4	2.9	3.8	1.7	4.4	3.5
	폭풍일수	0	0	1	2	9	5	0	22	22
	최대풍향	N	SW	SSW	WSW	WNW	WNW	NW	NNW	WNW
천 기	맑 음	133	129	122	104	104	151	126	110	99
	흐 림	90	93	92	100	93	75	77	94	87
	눈	7	5	6	25	15	10	19	26	34
	우 박	-	-	-	-	-	-	1	1	-
일 수	뇌 전	13	17	18	11	9	14	16	11	14
	안 개	3	0	96	9	8	19	88	14	42
	서 리	57	9	115	34	14	3	92	36	46
	결 빙 설	102	79	125	113	99	84	140	77	97
	적	3	3	1	16	10	1	12	22	23

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1995.

항공기 운항 중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바람은 평균풍속과 폭풍일수 모두 다른 공항들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풍속은 전 공항들의 평균인 2.8m/초 보다 낮은 2.4m/초로 나타났으며, 폭풍일수의 경우도 전체평균 4.6일 보다 낮은 2일로 나타났다. 천기일수 면에서 서산공항은 다른 공항들에 비해 양호하지는 않지만 흐린 날의 경우는 양호하며, 뇌전일수는 다른 공항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서산기지의 기능·역할 확대 가능성

가. 서산기지의 이용권 설정 및 분석

기존 공항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김포 및 제주공항을 제외한 12개의 공항 중 강원지역에

2곳, 호남지역에 4곳, 영남지역에 6곳이 입지하고 있으며, 충남지역에는 한곳의 공항도 입지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공항 역세권의 경우 충남지역은 그 어느 공항의 2차 역세권에도 들어 있지 않아 항공교통 서비스 공급의 지역간 편중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충남지역에 공항입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서산기지의 역세권별 수요결정요인이 되는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1·2차 역세권의 총인구는 약 72만2천명이며, 이 중 1차 역세권이 약 43만8천명(60.6%), 2차 역세권이 약 28만4천명(39.4%)으로 나타났다. 8곳의 1·2차 역세권 중 2차 역세권에 속하는 보령시의 인구가 약 12만1천명으로 가장

〈표 3〉 서산기지의 역세권별 인구현황

구 분	역세권	세 · 대	인 구(인)			인구밀도 (인/km ²)	혼인신고
			계	남 자	여 자		
1 차 역세권	서 산 시	16,593	57,901	28,836	29,124	1,095.0	1,6831 ¹⁾
	서 산 군	23,062	82,371	41,884	40,487	141.1	
	태 안 군	20,489	74,035	37,223	36,812	157.4	949
	당 진 군	34,078	120,917	60,836	60,081	202.5	1,788
	홍 성 군	28,712	102,823	51,498	51,325	243.3	1,609
2 차 역세권	청 양 군	13,586	47,271	23,871	23,400	98.6	1,064
	보 령 시	35,893	124,886	63,172	61,714	222.7	1,586
	예 산 군	31,031	112,136	56,150	55,986	206.3	1,670
계		203,441	722,399	363,470	358,929	197.3	10,349

주 : 1)은 서산시와 군의 합계임

자료 : 충청남도, 「통계연보」, 1995.

한국공항진흥협회, 「신규노선 수요예측 - 국내선항공편」, 1995.

많았으며, 2차 역세권의 청양이 약 4만7천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1차 역세권중 서산시, 태안군 및 당진군은 주변의 대규모 공업단지의 건설, 신도시 개발 및 관광지 개발의 추진으로 앞으로 현저한 인구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서산기지 1·2차 역세권의 총 제조업체수는 763개이며, 이중 57.1%인 436개 업소가 1차 역세권에, 42.9%인 327개 업소가 2차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또한 종업원 규모면에서는 1차 역세권이 68.2%, 2차 역세권이 31.8%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서산기지 역세권별 제조업체 등록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합 계		식료품·담배		섬유·가죽		가구·목재		종이·인쇄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1 차 역세권	서 산 시	96	4,891	28	344	5	110	10	124	1	9
	당 진 군	178	10,058	15	532	16	1,103	19	737	-	-
	태 안 군	33	429	15	129	1	6	-	-	-	-
	홍 성 군	129	2,387	40	351	7	339	5	41	3	50
2 차 역세권	청 양 군	38	1,367	8	161	-	-	3	21	3	4
	보 령 시	165	2,074	25	247	7	202	4	29	6	28
	예 산 군	124	4,839	26	492	5	1,619	6	143	4	8
합 계		763	26,045	157	2,256	41	3,379	47	1,095	17	99

구 분		전기·전자		화학·석탄		비금속광물		금속·기계		기 타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1 차 역세권	서 산 시	4	306	13	3,215	21	559	14	188	-	-
	당 진 군	15	1,239	29	1,300	38	1,446	46	3,701	-	-
	태 안 군	-	-	3	38	10	219	4	37	-	-
	홍 성 군	5	148	16	264	38	959	15	235	-	-
2 차 역세권	청 양 군	4	76	10	518	7	364	3	61	-	-
	보 령 시	5	84	11	175	91	1,064	16	245	-	-
	예 산 군	8	638	32	486	26	698	17	643	-	-
합 계		41	2,491	114	5,996	231	5,309	115	5,110		

자료 : 충청남도, 「통계연보」, 1995, pp.164-165.

나. 영종도 신공항, 청주 국제공항 등과의 기능 분담 방안 및 효과

영종도 신공항의 건설배경은 국력신장으로 인한 동북아 거점으로서 역할의 증대 즉, 향후 항공 교통 이용객의 연평균 10% 성장 예상에 따른 항공 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미래형 공항건설을 통한 동북아 항공교통의 관문 및 거점적 역할을 증대하는데 있다. 기능 및 역할은 동남아지역에서의 HUB공항으로서 항공 중심거점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있다.

입지적 여건은 한반도의 중심지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며, 서울도심에서 52km, 인천시 해안에서 15km 지점이고, 동북아의 1백만 이상 각국 도시 43개를 3.5시간 이내의 활동권역으로 할 수 있다.

청주신공항의 일반현황으로는 충북 청원군 북일면 입상리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비는 661억 6,400백만원이고 1995년 9월 현재 총공정의 62% 완료, 1997년초 개항 예정이다. 청주공항은 중부내륙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공항으로서 서산과는 육상교통으로 3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서산공항과는 중복·경쟁의 관계보다는 보완의 기능을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산주변의 영종도 및 청주신공항의 기능은 국제선 중심의 HUB공항으로 지방을 연계하는 거점공항으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산에 국내선 민항기가 취항할 경우 경쟁의 관계가 아닌 보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대중국 민항기 운항 가능성 분석

가. 대중국 관광객 교류현황

대중국 교류는 1994년말 현재 외국인의 입국은 358만명이며, 내국인의 외국 출국은 약 315만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94년 한해동안 정기 및 부정기 국제항공교통을 이용한 이용객과 화물현황을 살펴보면 이용객의 경우 입국 6,531,759(49.9%)명과 출국 6,544,220(51.1%)명을 합쳐 총 13,075,979명에 달하며, 화물의 경우 입국 533,559톤(48.7%)과 출국 562,125톤(51.3%)을 합쳐 총 1,095,685톤에 이르고 있다.

1994년 항공기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이용객수는 116,860명이었으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이용객수는 120,928명으로 그 반대의 경우보다 약간 많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표 5〉 중국 교류와 항공교통의 이용

(단위 : 명, kg)

구 분	이 용 객 수	화 물 량
한국 → 중국	116,860	5,880,683
중국 → 한국	120,928	3,907,366
계	237,786	9,788,049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 교통편」, 1996. pp.426-433.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한 화물량은 약 5,880톤이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화물량은 약 3,907톤으로 나타났다.

나. 대중국 민항기 취항을 위한 서산공항의 개발 필요성

1994년 국교가 수립된 이래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류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풍부한 천연자원과 막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국제무역에 있어 원료공급기지, 제품 및 투자시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실제로 1994년 이후 양국의 교역은 양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경제적 교류 이외에도 관광객, 연수생, 유학생 등과 같은 사회적인 교류도 아울러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교류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공급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러 교통수단중 항공교통의 수요 및 공급이 앞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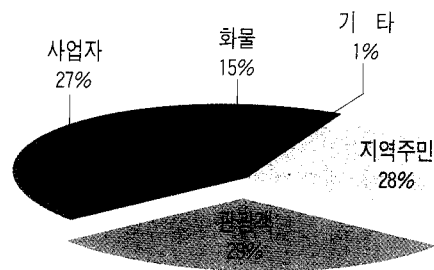
서산 해미공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 나아가서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수행을 위하여 개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5.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가. 서산기지 민항기 운항에 대한 전문가 조사 분석

서산기지 민항기 운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의 파악 및 주변지역 개발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1996년 1월 29일부터 1996년 2월 3일까지 학계, 연구기관, 업계, 관련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55명을 조사하였다.

민항기가 취항할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 이용주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관광객(26.6%), 지역주민(27.7%), 사업자(27.0%)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화물이 주된 이용주체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15.1%로 나타났다.



〈그림 1〉 공항 이용주체

서산공항과 타 지방공항과의 비교시 입지성, 사업성, 지역파급효과 및 교통개선효과에 관한 각 조사대상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① 입지적 양호, ② 지방공항과 보완적 관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③ 산업운송역할 강조 등으로 요약된다.

연구기관의 경우 수도권과 인접하여 불리한 점

은 있으나 향후 지역개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항공업계나 관련기관의 의견으로는 ① 노선 및 운항시간의 적절성, ② 주변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업체는 ① 서해안 시대의 도래로 입지성 양호, ②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항의 필요성 등의 의견이 제

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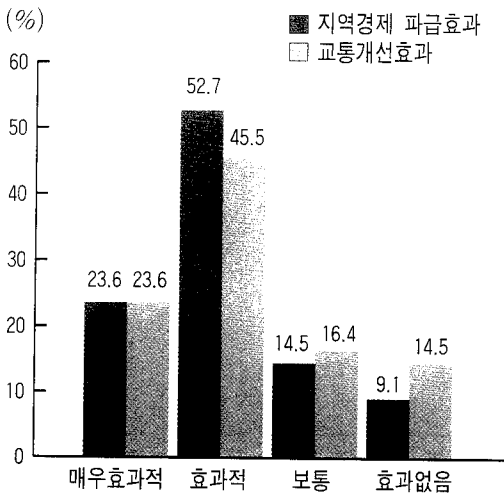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의견을 종합정리해 보면, 서산공항은 타 공항과 비교해 볼 때 첫째로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아 입지성이 매우 양호하며, 둘째로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타 지방공항과의 비교

구 분	응 답 내 용
학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서산간은 근거리로 사업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타 지방공항에 비하여 산업운송기지의 역할이 강조될 것임 · 중부권과 서해안권의 중심지로서 각 지방공항과 보완적 관계 · 영종도, 김포, 청주 등의 국제공항 세력권내는 사업성이 크지 않으나 지역균형발전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임 · 수도권 이외 지역보다는 입지성 양호 · 화물항공 수요는 고부가가치(반도체 등), 시효성 제품에 의하여 창출됨을 고려
연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방공항의 주연계는 수도권인데 서산은 수도권과 인접하여 불리한 입지임 · 지역이미지 제고, 고급관광객 수요 흡수, 향후 지역활성화 시대를 대비한 기간시설확충 효과 등 기대할 수 있음 · 지역간 접근시간과 연결시간 등을 고려 · 군공항의 별도 지방공항부지 확보 필요
항공업계 및 관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신공항, 청주공항, 군산공항과 이용권역이 중복되어 다른 지방공항에 비해 입지성이 불리 · 노선의 선정과 운항회수 및 시간대를 적절히 편성 · 소음 등 지역주민 민원해소방안 강구 · 공항 주변 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근성 제고
지역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도국제관광지, 덕산 및 칠갑산도립공원 등 충남관광권의 중심지로서 입지성이 비교적 좋음 · 지역균형발전과 도의 자생력 강화라는 지리적 측면에서 공항 필요

서산기지에 민항기가 취항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매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23.6%,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52.7%로 나타났으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은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지역 접근성에서 교통개선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도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효과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효과가 없다는 경우가 14.5%인 반면 매우 효과적 및 효과적이라는 경우가 69.1%로 나타나 결국 서산기지의 민항기 취항으로 서해안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산지역에 민항기 취항을 위한 공항이 건설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에서는 제조업 부문의 수출증대 효과로 인한 기업유치가



〈그림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교통개선효과

촉진(25.5%)될 것이라는 견해와 인근도시와의 연계로 인해 도시권이 확대(23.6%)되리라는 전망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관광객 증대로 인한 지역발전 및 지역소득 증대와 지역 접근성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동일하게 16.4%를 차지하였고, 민항공항 입지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리라는 의견은 12.7%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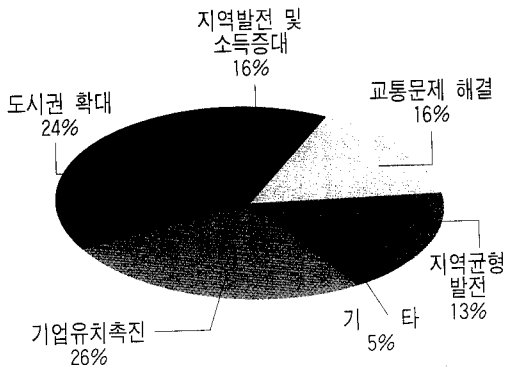
나. 서산기지 민항기 운항에 대한 공항이용객 의견 조사분석

서산 해미 서산기지의 민항기 취항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김포공항 및 전국 주요 지방도시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항 이용객에 대한 설문은 김포(100명), 김해(52명), 속초/강릉(52명), 제주(50명), 대구(50명), 목포/광주(59명), 포항/울산(49명) 등 총 412명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항공교통의 이용행태와 서산공항의 개발방향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공항 이용객 설문조사중 서산공항 민항 취항시 항공기 이용목적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업무와 여행 및 관광이 각각 38.4%와 35.9%로 항공기 이용의 주된 목적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지방문 20.7%, 통근 및 통학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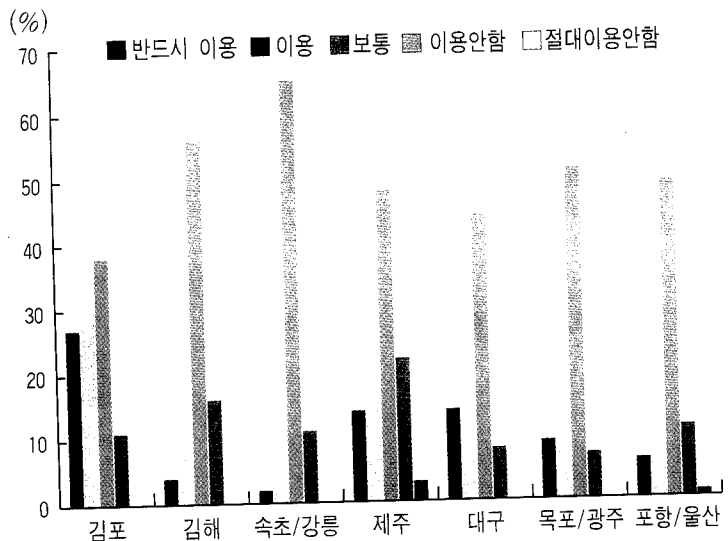
서산공항이 건설될 경우 이용여부에 관한 조사에서는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5%, 이용 안함이 10.7%, 보통이 48.8%로 나타났다. 반드시 이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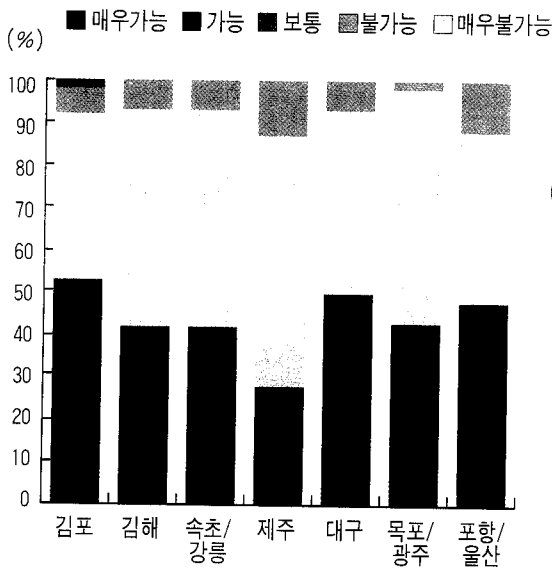
〈그림 3〉 서산공항의 지역발전 파급효과

하겠다는 응답과 이용하겠다는 응답을 합친 비중이 비교적 높은 공항으로는 김포 (51.0%), 대구(48.0%), 목포/광주(42.4%), 포항/울산공항(42.8%) 등으로 나타났고, 특히 김포공항 이용객의 응답에서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보아 수도권권의 교통혼잡을 반영해 주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항공수요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겠다.

〈그림 5〉 서산공항 민항취항시 이용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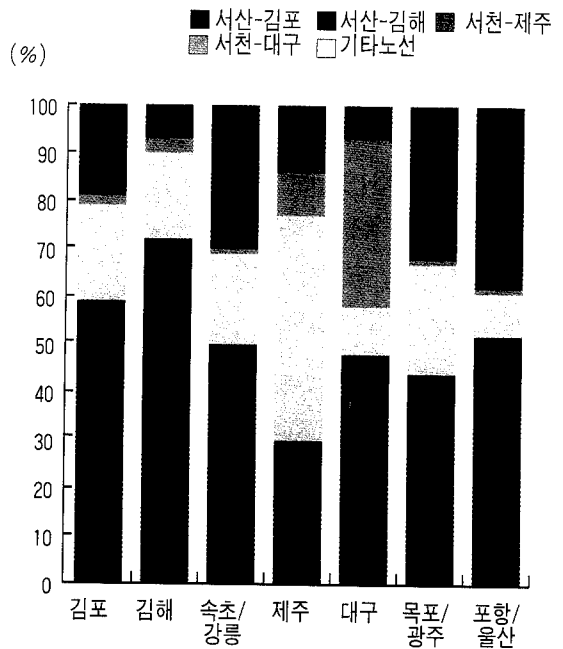
서산공항의 국내선 민항기 취항 가능성에 관한 조사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매우 불가능과 불가능을 합쳐 7.3%에 지나지 않는 반면 긍정적인 응답은 매우 가능과 가능을 합쳐 44.5%로 나타났다. 공항별로 보면 김포공항(52.5%), 대구공항(50.0%), 포항/울산공항(46.0%)의 경우 가능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보통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외의 공항들의 응답은 보통의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6〉 서산공항 국내선 취항 가능성

서산공항에 국내선 민항기가 취항 할 경우 희망 노선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서산-김포간 노선의 비중이 36.7%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산-제주노선 20.2%, 서산-김해노선 15.0%, 서산-대구노선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취항시 노선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관한 조사에서는 서산과 비교적 인접해 있는 중국 및 동남아노선이 전체의 약 %에 달하는 65.6%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 11.3%, 미국 및 북미 8.1%, 소련 및 동구권 5.2%, 유럽 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동 및 아프리카의 경우는 0.3%로 나타났다.



〈그림 7〉 서산공항 국내선 취항 희망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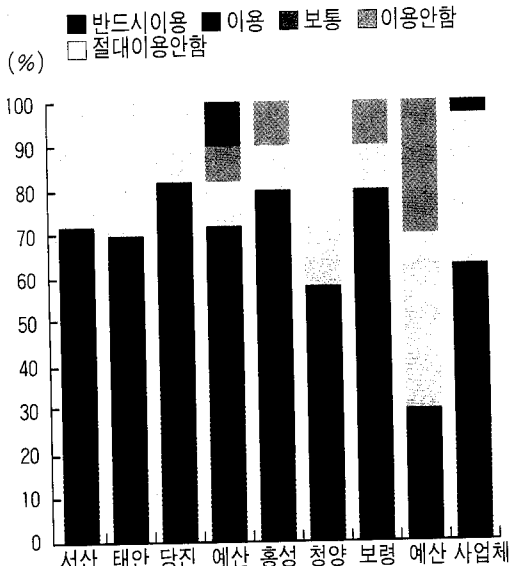
다. 서산기지 민항기 운항에 대한 주변 지역주민 및 사업체 조사분석

서산에 민항기 취향을 위한 타당성 검토의 일환으로 항공기 이용 성향과 서산해미 공항의 수요예측 및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모색을 위하여 충남의 지역주민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충남 지역주민 및 사업체 조사의 경우 서산기지에 민항기가 취향할 경우 직·간접적인 역세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산, 태안, 당진, 예산, 홍성, 청양, 보령, 아산 등 8개 시군의 지역주민 83명과 3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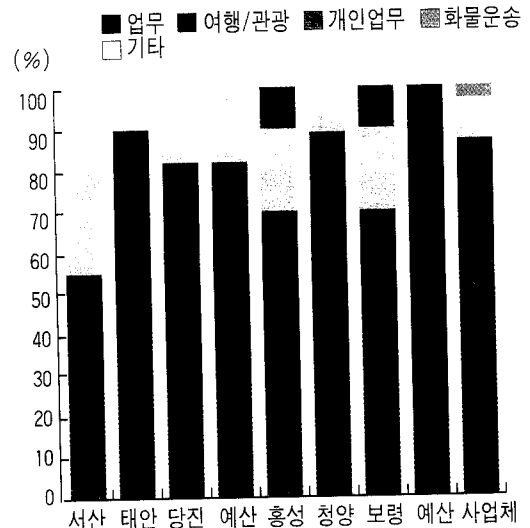
서산공항이 개발될 경우 공항 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반드시 이용하겠다는 의견(23.2%)과 이용하겠다는 의견(45.5%)이 전체의 68.7%를 차지

하고 있어, 공항 사용여부에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반드시 이용하겠다는 응답과 이용하겠다는 의견을 합쳐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당진(81.8%), 보령과 홍성(80%), 청양(77.7%), 서산과 예산(72.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의 경우 63.4%로 나타나고 있다.

서산공항이 건설될 경우 어떤 목적으로 이용될 것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여행 및 관광이 4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직업과 관련한 업무가 37.2%, 개인적 업무가 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외 화물운송은 3.3%이고 통근 및 통학을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응답자가 서산공항을 업무와 여행 및 관광 등 여가를 목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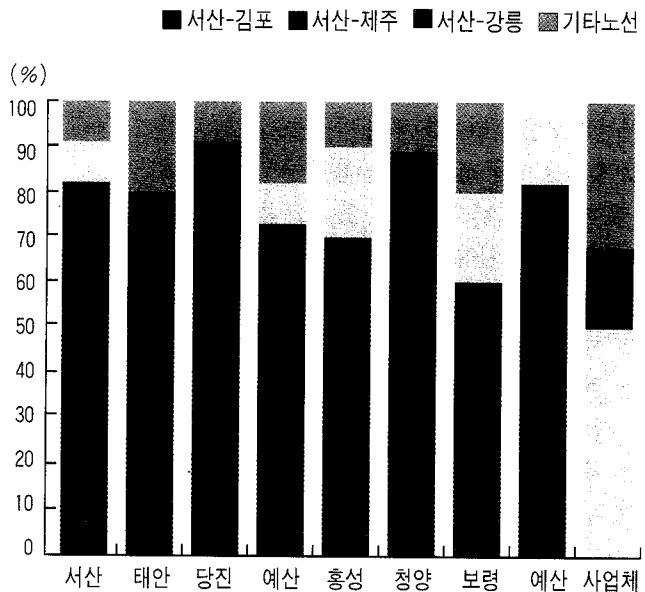


〈그림 8〉 지역주민 및 사업체 서산공항 이용의사



〈그림 9〉 지역주민 및 사업체의 서산공항 개항시 이용목적

서산공항에 민항기가 취항할 경우 가장 시급한 노선에 대한 조사에서는 서산-김포노선 46.9%, 서산-제주노선 28.3%, 서산-강릉노선 7.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산과 그외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들은 5%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세 노선중 서산-서울(김포)노선은 개인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노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서산-제주 및 강릉노선은 여행 및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0〉 지역주민 및 사업체의 서산공항 개항시 희망노선

Ⅲ. 서산공항 개발 기본구상

1. 서산공항 개발의 개발전략 및 방향

가. 국내선 개발전략

국내선 개발전략은 첫째, 교통환경에 적합한 공항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상 지점간 운송(point-to-point)시스템이 적합하고, 커뮤터(지역간)항공산업의 발달이 예상됨에 따라 각 지방공항과 연계된 지점운송공항으로 개발한다.

둘째, 부여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로 기존의 군비행장에 민항기를 취항함으로써 복합기능(multi-function)을 부여하여 대규모 투자시설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셋째, 서해안시대의 교통중심지로 개발하여 서해안 신산업단지의 사업자 및 항공화물을 운송하고, 신산업단지 배후도시 및 지역주민의 운송, 태안 해안국립공원, 안면도 국제관광지 등의 관광객을 운송한다.

나. 국제선 개발전략

국제선 개발전략은 첫째, 환황해권 중심지역의 공항으로 개발하여 충남이 현재 교류중인 중국 허베이성, 일본 구마모토, 러시아 아무주르지역의 환황해권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중심지역으로서 이들을 연결하는 중심공항으로 개발하여, 환황해권 협력지역의 인적·물적 교류를 직접 연결하는 공항으로 개발한다.

둘째, 중국 무역확대 및 관광객 교류를 위한 공항으로 개발하여 서해안 항만과 연계한 물류중심과 관광중심의 공항으로 개발한다.

셋째, 영종도 국제공항의 역할을 분담하는 공항으로 개발하여 향후 영종도의 수용력이 부족할 경우 역할을 분담하는 공항으로 개발한다.

다. 서산공항 개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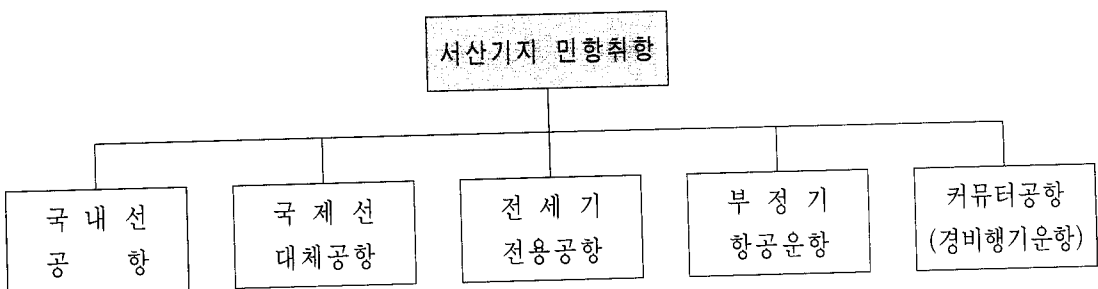
서산공항을 국내선 중심의 지역간 연계 커뮤니티공항(commuter : point-to-point)과 국제선의 대체공항으로 개발하여 서해안권의 교통결절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발기본구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중·장거리 지역간을 연결하는 국내선 중심공항으로 개발, 국내의 수도권지역, 영동지역, 영남지역, 호남지역, 제주지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계 국내선 중심 공항으로 개발한다. 영동지역과 강원지역 연계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중심

의 국내선 중심 항공노선으로 개발하고, 수도권, 영남지역, 호남지역은 각 지역의 주민과 서해안권의 산업체와 지역간의 산업체를 연결하는 항공노선으로 개발하는데 국내선의 연결노선은 수요와 거리를 감안하여 최소 30인승에서 150인승까지의 커뮤니티항공 중심으로 개발한다.

둘째, 영종도, 김포, 청주국제공항의 수용능력 초과 및 기상에 의한 이착륙 불가능시 국제선 대체공항으로 개발하여 영종도, 김포, 청주국제공항이 기상악화로 이착륙이 불가능할 경우 서산공항을 국제선 대체공항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향후 영종도, 김포, 청주공항의 수용능력 초과시 수도권과 중부권 국제공항의 기능을 분담하는 국제선 공항으로 개발한다.

셋째, 대중국 교류를 위한 대중국 연계 국제공항으로 개발하여 중국의 공업지역과 연계하는 비지니스 항공노선의 국제공항으로 개발하고, 대중국 관광지와 서해안권 관광지 및 국내 관광지를



〈그림 11〉 서산기지 개발 기본구상

3) 커뮤터(commuter)항공이란 소형항공기로 상대적 단거리노선을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항공운송을 의미하며, 커뮤터공항은 지역공항이라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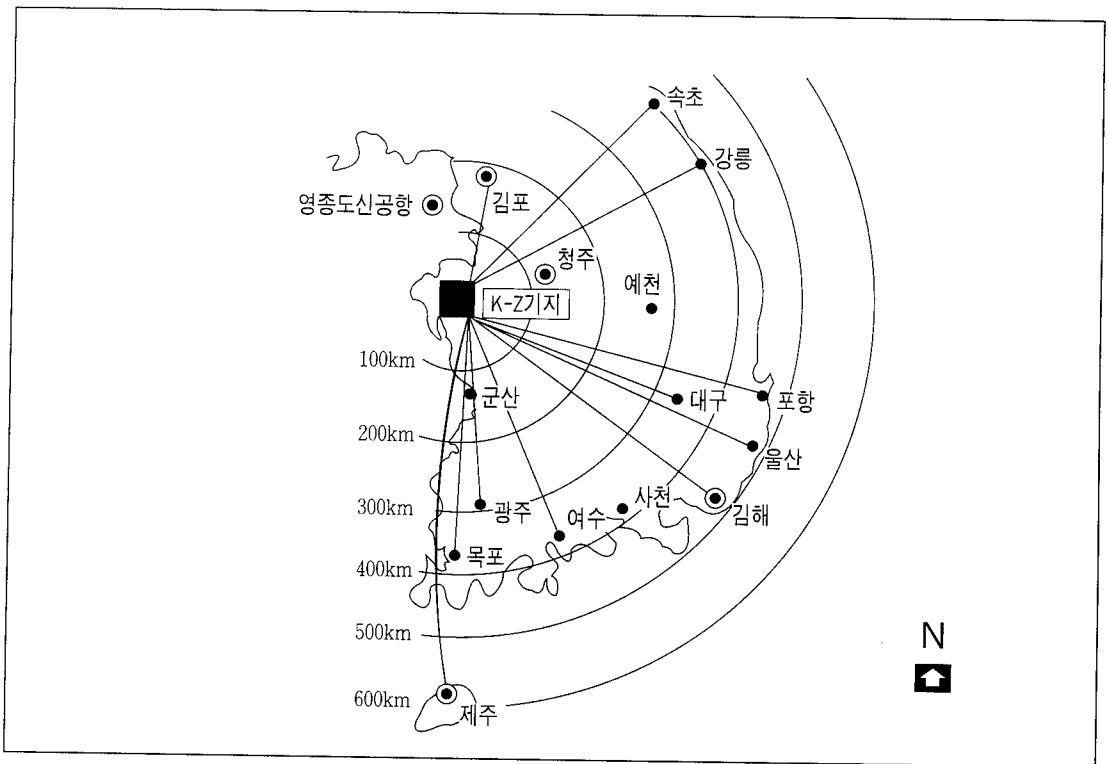
연결하는 국제관광공항과 대중국 환황해권 교류지역간을 연계하는 공항으로 개발한다.

넷째, 영종도, 김포, 청주국제공항의 일반 이용객 이외의 관광객, 항공화물 등의 전세기 전용공항으로 개발하여 영종도, 김포, 청주공항은 국제선과 국내선의 종합적인 거점공항(HUB)의 기능을 가지는 공항으로, 서산공항은 관광객과 항공화물만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관광객, 항공화물 전세기 전용공항으로 개발한다.

다섯째, 수요의 불규칙성과 특수 화물의 운송을

위한 부정기 항공운송을 위한 부정기 취항의 공항으로 개발, 초기 수요의 불규칙성과 산업체의 특수화물을 고려한 부정기 취항을 위한 시범공항으로 개발·육성한다.

여섯째, 소형 항공기(경비행기) 중심으로 수도권과 영동, 영남, 호남, 제주간을 연결하는 컴퓨터 공항으로 개발하여 향후 컴퓨터항공(경비행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경비행기 운항을 위한 시범공항으로 취항가능한 경비행장을 개발하여 경비행장의 공항으로 시범 육성한다.



〈그림 12〉 지방공항 연계 운항로

2. 민항기 취항을 위한 항공수요 분석

가. 항공수요 예측방법

2001년 서산공항의 이용수요는 기존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으로 예측, 아울러 이용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지표, 지역내 1인당 GRP, 출발지와 목적지간의 시간차 등과 기존 설문분석 결과를 定量 定性的으로 분석하였다.

여객운송 수요예측을 위한 적용 회귀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ln T_{ij} = f(\ln pop, \ln pgrp, \ln fare)$$

T_{ij} = i지역에서 j 지역을 방문한 이용수요

pop_{ij} = i지역과 j지역의 인구의 평균

$pgrp_{ij}$ = i지역과 j지역의 1인당 총생산(GRP) 평균

$fare_{ij}$ = i지역과 j지역간의 항공과 대체수단의 운임차

또한, 화물운송 수요예측을 위한 적용 회귀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ln C_{ij} = f(\ln grpt, \ln fare)$$

C_{ij} = i지역에서 j 지역

$grpt_{ij}$ = i지역과 j지역의 지역내 총생산(GRP)의 평균

$fare_{ij}$ = i지역과 j지역간의 항공과 대체수단의 운임차

이용 수요예측에 이용한 대상공항은 기존의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여수, 울산, 포항, 진주, 제주 공항 등이며, 보다 정확한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횡단면자료(10개의 기존 항공노선)와 시계열자료(1990-1993년)를 합친 패널자료(panel data)를 사

용하였으며 회귀분석 방법으로는 오차항이 3가지 요인, 즉 시간, 횡단면 단위 그리고 두항목의 복합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여 복합오차 모형(Error Components Model)를 사용하였다.

나. 지역간 서산공항 수요예측

서산공항의 수요는 지역별로 관광객을 포함한 여객과 화물 등으로 구분하였고 연도별로는 1996년 현재 기준치와 향후 2001년과 2010년으로 구분하여 예측하였다.

여객수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의 계수값에 따른 수요예측 회귀식은 다음과 같고,

$$\begin{aligned} \ln T_{ij} = & -18.19526ij + 1.71128 \ln POP_{ij} + \\ & 1.40541 \ln PGRP_{ij} - 0.25898 \ln FARE_{ij} \\ R^2 = & 0.97584 \end{aligned}$$

$$\text{Durbin-Watson} = 1.34882$$

또한, 화물운송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의 수요예측 회귀식은 다음 식과 같다.

$$\begin{aligned} \ln T_{ij} = & -3.35673 + 1.51448 \ln GRPT_{ij} - \\ & 0.47131 \ln FARE_{ij} \\ R^2 = & 0.97723 \end{aligned}$$

$$\text{Durbin-Watson} = 1.6309$$

위의 식을 적용하여 서산을 방문하는 전국 각 공항간 항공수요를 1996년, 2001년, 2010년으로 살펴보면 <표 7>과 같으며, 이는 서산공항에 여객과 화물의 수요로 여객수요는 관광객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광객은 공항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중 서산공항의 이용자에 설문분석 결과에서 관광객 이용에 대한 27%를 적용하여 관광객 수요를 예측하였다.

최소한의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수익성이 보장 되는 70%의 탑승률을 고려한 노선을 선정하여 노선개설을 검토하고, 운항기의 기종은 노선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노선선정은 최소형 항공기 F28의 1일 왕복 운항기준으로 연간 약 50,000인 이상의 항공수요 발생노선으로 선정하였다.

- 85인(F28기)×2(왕복)×0.7(탑승률)×365일×0.85(비수기 수요비중) = 51,000인

이러한 분석결과 서산공항의 이용수요는 1996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0년까지 추정하되 지역공항으로서의 여건,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전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서산에서 취항이 가능한 지역노선은 김포, 김해, 대구, 제주, 서울, 광주, 울산, 진주를 최종수요에 포함하고 포항, 여수, 속초는 제외하였다.

〈표 7〉 지역간 서산공항 수요예측

구 분	운송여객 수요(왕복, 천명)									화물수요 (왕복, 톤)		
	소 계			일반 여객			관 광 객					
	1996	2001	2010	1996	2001	2010	1996	2001	2010	1996	2001	2010
서산-서울	205	467	957	150	341	699	55	126	258	2,000	3,403	8,876
서산-부산	35	57	114	26	42	83	9	15	31	222	360	912
서산-광주	19	30	59	14	22	43	5	8	16	174	313	907
서산-대구	50	68	134	36	50	98	14	18	36	175	298	800
서산-속초	3	5	8	2	4	6	1	1	2	105	183	515
서산-여수	6	9	15	4	7	11	2	2	4	292	535	1,586
서산-울산	16	25	47	12	15	34	4	7	13	569	995	2,727
서산-포항	9	13	23	7	9	17	2	4	6	270	453	1,171
서산-진주	16	25	47	12	15	34	4	7	13	569	995	2,727
서산-제주	33	58	125	24	42	91	9	16	34	224	412	1,233
계	391	757	1,529	287	547	1,116	105	204	413	4,600	7,947	21,454

3. 서산공항 도입시설 및 시설배치계획

가. 시설 및 시설규모 산정

서산공항의 도입기능 및 시설로 활주로, 유도로, 진입로 등은 기존 시설을 이용토록하고, 새롭게

설치가 필요한 여객청사 및 주차시설에 대한 시설 규모를 산정하였다.

서산공항의 기본 이용시설의 총 부지면적은 김포 및 제주보다 넓은 약 360만평 규모이고, 활주

로, 유도로, 진입로 등도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국제공항의 시설규모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여객청사의 수용능력을 산출하는 방법은 FAA에서 권고하는 방식중에서 연간 승객수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적정 청사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국내선 여객청사 용량은 FAA의 기준에 의거하여 추정하고 있는데, FAA기준은 어느 공항의 年間出客數(Annual Enplanement)에다 0.007~0.100㎡를 곱한 청사면적이 적정 여객청사 면적으로 권고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기준으로는 첨두시간의 1명당 여객이 14㎡만큼의 청사규모가 필요하다고 추천하고 있다. 이를 적용한 결과 2010년 목표년도의 서산공항 여객청사의 면적은 10,800㎡로 산정되었다.

주차장은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화송객, 공항 종사자 등의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주차장은 청사 전면에 설치하여 청사진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는데, 주차장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첨두시 주차대수 선정은 다음과 같다.

- 여객 1인당 출영객수 : 2.0인
- 항공기 탑승객수 : F28/85인, F100/106인, B727/166인

- 총 출영객 및 탑승객수 : $166 \times 2\text{인} \times 4\text{대} \times 0.65 = 863\text{인}$

- 비행장 상주인원 : 50인

- 총인원 : 913인

항공여객과 출영객의 차량혼합은 버스와 승용차 각각 20:80의 비율로 차량대수를 추정(전라북도, 군산공항 민항시설 보고서, 1991)하였다.

- 승용차 : $913\text{인} \times 0.8 \div 2.5 = 292\text{대}$

- 버 스 : $913\text{인} \times 0.2 \div 30 = 6\text{대}$

따라서 승용차 292대분과 버스 6대분의 주차면적이 소요되며, 승용차와 버스에 소요되는 순수 주차면적은 총 7,831㎡가 필요하였다.

나. 민항청사 선정 및 시설배치계획

시설배치계획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항공기 이착륙시의 안전성 확보이며, 공항운영의 원활성 유지, 저렴한 공사비,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민항시설 부지는 활주로의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즉, 장애물 제거지역(Clear Zone) 등 비행공역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비행기의 이착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상에서 고려된 장애물 제거구역에서 벗어나 접근성이 양호하며, 기존의 군사시설과 마찰이 일어

〈표 8〉 주차장 소요면적

차 량 구 분	추 정 방 법	소요면적(㎡)
승 용 차	$292\text{대} \times (5.0+6.0) \times 2.25$	7,227
버 스	$6\text{대} \times (18+13.0) \times 3.25$	604
계	-	7,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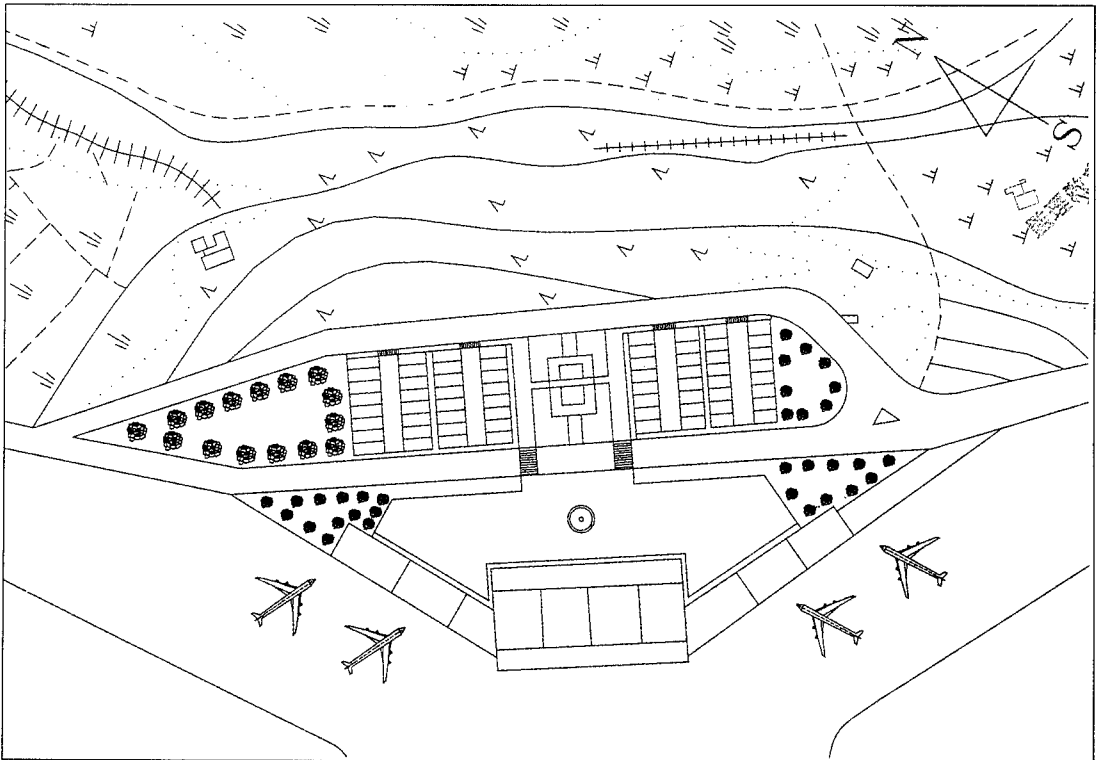
나지 않는 장소에 민항청사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여객청사부지의 선정은 지표면의 장애물 및 접근도로, 군사적 제한구역 등 제한 요소 등과 부지의 주변 조건을 고려할때, 여객청사 부지 선정조건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서산공항 민항시설 배치안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항에서 적용하는, 유도로쪽으로부터

駐機場, 청사, 주차장 등의 순서로 배열하는 기본 패턴을 적용하였다.

시설배치계획에서 진입도로, 주차장, 여객청사는 이용객의 편리성과 기존 군비행장과와의 관계, 토지이용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한 서산공항의 여객청사 평면도는 그림과 같다.



〈그림 13〉 서산공항 여객청사 평면도

특히, 여객청사내의 시설종류와 시설규모에 대한 계획을 2010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기존 지방비

행장의 시설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9〉 서산공항 여객청사 시설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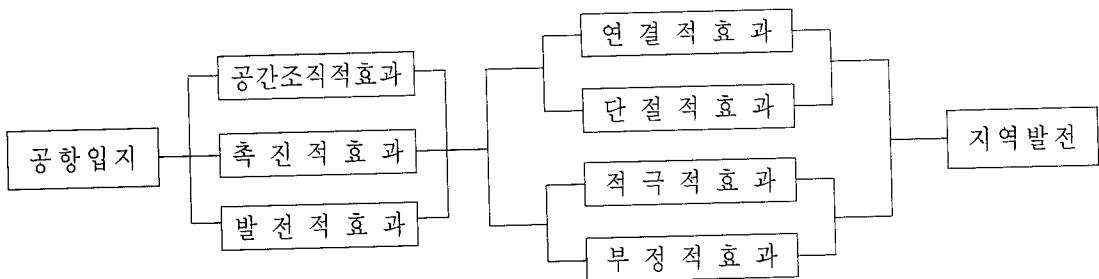
구 분	면 적(㎡)	구 분	면 적(㎡)
일 반 대 합 실	2,992	항 공 사 Ⅰ	162
도 착 대 합 실	1,090	항 공 사 Ⅱ	162
출 발 대 합 실	1,274	공 조 실	356
귀 빈 실	388	전 기 실	280
지 사 장 실	108	청원경찰대기실	226
운 항 실	108	X - R A Y 실	130
공 단 사 무 실	356	지 상 조 업 실	108
상 주 기 관 Ⅰ	108	창 고	130
상 주 기 관 Ⅱ	108	수 하 물 처 리 장	534
상 주 기 관 Ⅲ	226	기 타 지 역	1,846
다 용 도 사 무 실	108	계	10,800

Ⅳ.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 파급효과

1.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 파급효과

일반적으로 공항의 입지는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에 상당한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향후 서산기지에도 민항기가 취항할 경우 많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항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4〉 공항의 지역발전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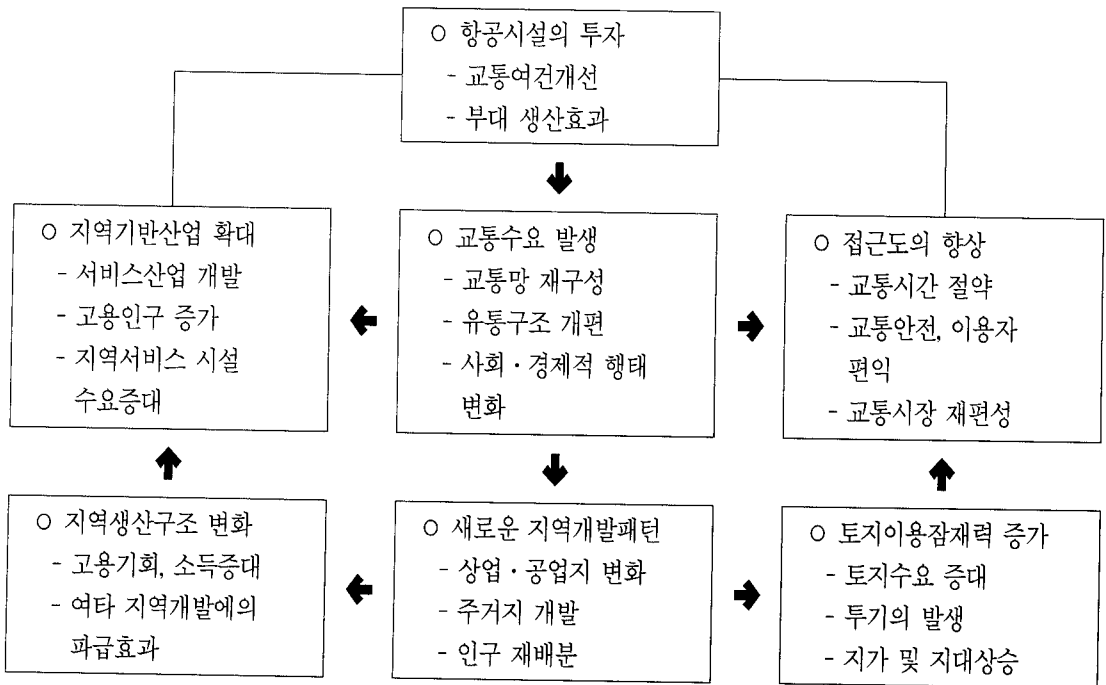
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공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각종 토지의 기능을 서로 연결하여 생산 및 소비활동에 따른 공간적 거리감을 극복시켜 주며, 공항의 발전은 지역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교류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파급효과를 단기적으로 볼때, 공항은 사람과 화물의 통행 및 유통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즉, 교통이 편리한 지역간에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관광객도 증가하며, 원료의 구매권, 제품의 시장권도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효과는 지역

산업의 규모경제를 통해 연쇄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공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역 서해안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내 산업입지와 주거입지 패턴을 변화시킨다. 즉, 각 개인과 사회는 더욱 효과적인 입지를 찾아 이동함으로써 토지이용 그 자체가 변하고, 이에 따라 고용의 이동은 인구의 이동을 낳고, 서비스산업 또는 이에 종사하는 인구의 이동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이동은 지역경제의 규모 및 구조에 큰 변화를 수반하는데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5〉 공항과 지역개발과의 관계 개념도

공항개발에 따른 일반적인 지역개발효과 중 서산공항개발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권 확대에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편중된 경제를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다. 둘째, 지역소득증대로 지방경제발전의 파급효과가 있는데 서해안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경제 및 생활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신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셋째, 주변지역의 개발과 토지이용이 변화하고 접근도가 향상되어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의 변화, 지가 및 지대 상승, 생활권의 변화를 가져온다. 공장입지 확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공업입지의 확대, 지역경제의 특화, 농외소득의 증대와 생활편익시설의 확충 등을 가져온다. 유통구조의 변화로 시장권의 확대와 산업이 특화된다. 관광지 개발로 지역의 관광지 개발이 촉진된다. 주민의 교류확대와 사회의식이 변화되어 지역간 인적교류의 촉진, 주민의 지방정착기지 조성, 문화 및 사회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다. 지방재정의 변화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다

따라서 서산기지에 민항기가 취항할 경우 지역 수송체계, 도시형성 및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공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공항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항공여객·화물의 증가에 따른 파

급효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 등이 있다.

1) 공항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공항건설에 따른 구체적인 산업파급효과를 지역 및 지역간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지역간 I/O모형과 산업은 26개 대분류를 사용하였다.

공항건설에 대한 연도별 신규투자액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건설 초기 단계에서는 토목사업과 건설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 자체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으로 제2차, 3차의 간접적인 파급을 유발하는데, 간접적인 효과는 각종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와 증가된 소득이 소비를 유발하고, 소비가 다시 생산을 유발하는 연관효과 등이 있다.

I/O분석 결과 서산공항의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와 생산유발액원 292억원, 노동유발효과와 노동유발인구는 493명, 부가가치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액은 116억원이다.

26개 산업중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분야는 요업토석제품, 제1차금속, 건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

〈표 10〉 공항건설에 따른 파급효과(1998)

구 분	생산유발액(백만원)	노동유발인원(명)	부가가치 유발액(백만원)
농림수산업	272	26	152
광업	916	5	138
음식료업	277	3	70
섬유 및 가죽	92	3	22
종이나무제품	864	11	199
화학제품	1,152	11	272
석유석탄제품	730	1	200
요업토석제품	1,713	27	617
제1차금속	2,522	13	452
금속제품	887	14	276
일반기계	823	8	182
전기 전자 기계	873	10	229
정밀기기	60	1	9
수송기계	201	2	54
기타 제조업	125	4	43
전력 가스 수도	389	2	183
건설	12,805	236	5,858
도소매	709	47	469
운수 및 보관	540	14	257
통신	143	2	115
금융 및 보험	887	17	58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563	18	1,086
공공행정 및 국방	-	-	-
교육 및 보건	45	2	34
사회 및 개인서비스	185	17	103
기타	484	-	-
총 계	29,256	493	11,605

2) 여객·화물의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

공항이 건설되면 그에 따라 전 산업에 신규 투자가 창출되는데 여객·화물의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는 중요한 산업수요의 변화로 항공여객과 화물의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즉,

공항시설의 확충으로 항공여객이 증가하고, 화물 터미널의 완공으로 화물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종 수요가 변화된다.

항공여객에 의한 최종 수요는 공항건설로 예측된 이용객수에 1인당 최종 수요에 공항 이용료와

주차장 이용료 등의 원단위를 곱한 값이고 또한 공항수익에 임대수입과 직영사업수입, 기타수입 등을 산정하여 수송부분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I/O분석에 의한 2010년 서산공항의 여객 및 화물의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와 생

산유발액이 86억원, 노동유발효과와 노동유발인구가 326명, 부가가치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액이 44억원이다. 26개 산업 중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분야는 음식료업, 운수 및 보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사회 및 개인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

〈표 11〉 여객 및 화물의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2010년)

구 분	생산유발액(백만원)	노동유발인원(명)	부가가치 유발액(백만원)
농림수산업	180	18	101
광업	159	1	24
음식료업	330	4	83
섬유 및 가죽	43	1	10
종이나목제품	124	2	29
화학제품	282	3	67
석유석탄제품	236	-	65
요업토석제품	47	1	17
제1차금속	124	1	22
금속제품	43	1	14
일반기계	65	1	14
전기 전자 기계	92	1	24
정밀기기	12	-	2
수송기계	85	1	23
기타 제조업	147	4	51
전력 가스 수도	171	1	80
건설	210	4	96
도소매	129	8	85
운수 및 보관	536	14	255
통신	69	1	56
금융 및 보험	277	5	18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523	30	1,752
공공행정 및 국방	-	-	-
교육 및 보건	19	1	14
사회 및 개인서비스	2,469	226	1,377
기타	252	-	-
총 계	8,626	326	4,443

3) 관광객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

건설부문과 수송부문의 신규수요 창출외에도 관광산업에 의한 신규수요 창출효과도 매우 높다. 공항시설의 완비로 인해 국내여객이 증가하면 충남지역 주변의 관광수요도 자연히 증가할 것이다.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최종 수요의 증가는 서해 안권 이용자수에 관광객 1인당 지출액 원단위를 곱한 값으로 관광객 1인당 지출액 원단위는 54,310 원을 적용(교통개발연구원, 관광산업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1992)하였다.

〈표 12〉 관광객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2010년)

구 분	생산유발액(백만원)	노동유발인원(명)	부가가치 유발액(백만원)
농림수산업	579	56	324
광업	736	4	111
음식료업	831	9	209
섬유 및 가죽	252	8	59
종이나목제품	666	9	154
화학제품	1,560	14	369
석유석탄제품	1,071	2	294
요업토석제품	171	3	62
제1차금속	480	2	86
금속제품	180	3	56
일반기계	251	3	55
전기·전자·기계	533	6	140
정밀기기	54	1	8
수송기계	261	2	70
기타 제조업	695	20	240
전력·가스·수도	1,050	5	494
건설	441	8	202
도소매	639	42	423
운수 및 보관	466	12	222
통신	395	5	318
금융 및 보험	1,044	20	68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711	43	2,577
공공행정 및 국방	-	-	-
교육 및 보건	107	4	80
사회 및 개인서비스	22,954	2,098	12,801
기타	1,534	-	-
총 계	40,660	2,379	20,042

I/O분석에 의한 2010년 서산공항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와 생산유발액은 406억원, 노동유발효과와 노동유발인구는 2,379명, 부가가치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액은 200억원이다.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분야는 사회 및 개인 서비스, 부동산 및 서비스, 전력가스수도, 화학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3. 서산기지 주변도시 개발방향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으로 유발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공항주변지역 개발의 성격 및 기능과 국내 항공여건 개선, 도내 수송체계 개선 및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산기지 주변도시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도시형성 규모를 전망해보고 주변도시의 개발방향과 도시기반시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방안을 살펴 보았다.

가. 공항주변지역 개발의 성격 및 기능

공항주변지역의 지역개발계획은 그 지역의 수용기능과 개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입지특성에 따라 주변지역개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은 공항의 관련도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공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기능, 둘째로 공항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기능, 셋째는 입지적 잠재력 등이 있다.

나. 도시형성 규모전망과 개발방향

1) 서산공항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서해안 지역의 무한한 성장가능성과 지속적인 정부의 개발정책의 수행으로 이 지역에서의 도시권 및 산업단지의 질적·양적 성장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인구 및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

〈표 13〉 주변지역과 공항기능의 관련성

구 분	내 용
상호보완적인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기능과 항공수송을 이용하는 산업기능 · 항공수송을 이용하는 첨단산업기능 ·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수요가 변화 → 불확실성 · 복합적 기능 수용이 바람직 · 제공될 서비스와 제공방법에 대한 사전고려 필요
공항의 필수적인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단지로서의 도시기능 · 공항 종사자 및 유입인구의 수용을 위한 배후도시 · 적정 규모의 개발
입지적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의 입지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개발 · 미래의 도시권 확장을 감안한 택지개발

이며, 서산공항의 역할과 기능도 아울러 확대될 것이다.

서산공항의 잠재적 이용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사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그에 적합한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서산공항의 주변여건은 북쪽으로 서해안 및 안면도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산과 대산지역에 대규모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이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이고, 내륙으로는 대천, 홍성 등과 같은 서해안 중심도시와 인접해 있다. 또한 중국 및 동남아시아와 근접하여 교역에 유리하며, 서해와 접해 있어 해상교통과 항공교통의 연계가 용이하다.

2) 도시규모 전망과 개발방향

현재 서해안지역에서 추진중인 신도시건설계획 중 서산공항의 직접적인 역세권에 포함된 곳은 대산, 당진, 홍성 등의 신도시지역이며, 대산과 당진 신도시는 2001년에, 홍성신도시는 2006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산공항 주변 신도시 및 지역개발의 기본방향은 자족적 도시로 개발, 개발의 규모에 따라 수요가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 개발 추진, 쾌적한 지역개발을 위해 인구 및 개발밀도를 낮추고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로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 미래지향적인 첨단 산업도시로의 개발 등이다.

다. 서산공항을 중심으로한 주변지역 개발방향

1) 지방중심 공항으로의 개발

서산공항 인근에는 영종도공항과 청주공항과 같은 국제공항들이 개항을 앞두고 있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산공항은 1차적으로 국내

선 중심의 지방중심 공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산공항과 그 주변지역은 지방중심 공항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수도권과 인접하여 수도권의 기능분산에 유리하며, 둘째로 서해안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정책으로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될 전망이며, 셋째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지방 및 외국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며, 마지막으로 서산공항 개발시 항공교통과 해상교통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해안지역이 지방중심 공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은 주변지역의 도시화, 쾌적한 도시로 개발, 도시의 정보화 기능 강화, 각종 편의시설 제공 등에 있다.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서해안지역이 대규모 신산업지대로 개발됨에 따라 최근 이 지역의 지역경제는 상당히 활기를 띄고 있으며, 서산공항이 개발될 경우 신속한 지역간 정보 및 화물운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서산공항 주변지역의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비되어야 할 조건들은 첨단 산업 및 항공관련 산업의 입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경제활동 지원시설 및 편의제공 등이다.

3) 지방화와 지방문화의 보존 및 개발

최근 국제화·세계화와 함께 지방화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화를 통해 국내외의 지방들과 교류 및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및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서산공항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 지방문화의 보존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전략은 지방문화 및 문화재 보존, 각종 문화 이벤트 추진 및 문화의 국제화 등이다.

4) 서해안 교통중심지로의 개발

서해안 개발정책으로 향후 이 지역에는 인적·물적 이동량이 급증할 것이다. 이에 서산공항 인근지역이 서해안지역의 교통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 뿐만 아니라 육상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

서산공항 주변지역이 교통중심지로서 개발되기 위한 전략은 도로의 확충, 수송체계의 정비 등이다.

5) 우주기지 및 항공관련 산업 중심지와 연계 개발

서산지역에 계획중인 서산 성연면 오사리·덕지천 등의 현대 우주항공 제 1, 2 공장과 지곡면 무장리, 양대동·장동일대의 비행기관련 제조업체가 완공될 경우 서산공항은 산업체에 의한 유입 인구 뿐만 아니라 항공기관련 산업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들 항공산업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산공항과 주변지역의 우주기지 및 항공관련 산업을 연계하여 개발하기 위한 전략은 항공우주의 거점지역으로 개발, 항공우주 중심센터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서산공항 및 주변지역의 개발 전략은 <표 14>와 같다.

라. 서산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반시설 및 연계교통망 개발방향

1) 도시기반시설

서산공항의 개항으로 인근지역이 도시로 개발될 경우 많은 기반시설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도 서산공항은 대산공단 주변의 유입인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신산업지대의 서비스 지원도시로 개발될 대산신도시, 서북신산업지대의 배후도시로 지역주민과 유입인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되는 당진신도시와 홍성신도시의 연결을 위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서산공항과 이상의 신도시들간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기반시설로는 첫째로 이상의 세 도시를 연결하는 신속한 도로망, 둘째로 향후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산업체 및 개인에게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셋째로 서산공항과 신도시들간의 교류가 확대될 경우 방문객을 위한 보다 쾌적한 숙박 및 편의시설 등을 들 수 있다.

2) 연계 교통망 확충

서산공항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방도시, 관광지 및 산업지대와의 연계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현재 충청남도의 '지역경제발전 6개년계획'중 도로망 확충계획을 살펴보면 정책의 기본목표는 첫째로 중부권의 개발촉진과 균형개발 도모, 둘째로 서해안 부존자원 및 산업관광자원 개발촉진, 셋째로 서해안지역 공단 가동에 따른 원활한 화물수송여건 마련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다.

동 계획에 포함된 서산중심의 도로망 신설 및

〈표 14〉 서산공항 주변지역의 개발전략

전 략	세 부 전 략	내 용
지방중심 공항 개발	주변지역 도시화	- 해미와 서산의 결절지역으로 도시개발 - 해미과 서산의 광역도시화
	쾌적한 도시개발	- 도로, 주거, 녹지지역 확보 - 쾌적함 제공
	정보 기능 강화	- 국제회의장, 컨벤션홀, 지역박물관 설치
	편의시설 제공	- 숙박시설, 위락시설, 쇼핑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산업 및 항공 관련산업 유치	- 경량박소 첨단산업 유치 - 항공기 및 소재 개발, 정비산업 유치
	사회간접자본 확충	- 노후시설의 보수 - 새로운 시설의 제공
	경제활동 지원시설 및 편의제공	- 기업인 전용 회의장, 숙박시설 - 산업도서관, 연구소, 인력양성소 - 행정절차의 간소화
지방문화 보존 개발	지방문화 및 문화재 보존	- 문화재의 보존 - 지방정부의 행 재정 지원
	문화행사의 이벤트화 및 국제화	- 문화행사의 주기적 이벤트화 - 지역문화 및 특산품의 상품화, 국제화
교통중심지 개발	도로의 확충	- 기존 도로의 보수 - 교통수요 예측을 통한 도로개설
	수송체계의 정비	- 중합교통터미널 건설 - 항공-해상-철도-육로의 효과적 연계
우주 및 항공관련산업 중심지로의 개발	항공우주 거점 지역으로 개발	- 항공우주관련 제조업체 유치 - 항공우주 관련 연구기관 유치
	항공우주 중심 센터로 개발	- 서산공항을 항공비행시험장으로 활용 - 서산공항을 항공우주 중심센터로 개발

확포장계획을 살펴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서산을 경유하는 노선계획은 세워있지 않은 상태이다. 단, 당진-홍성-대천-장항을 연결하는 130km의 서해안 고속도로가 서산 외곽을 경유할 계획이다.

국도의 경우 태안-안홍항-서산-삼교호-천안-충북 진천을 경유하는 동서간 도로, 대산-서산-홍성-대천-장항을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 서산-홍성-청양-공주-대전을 연결하는 내륙 교차축 등의 도로망 확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은 도전체의 원활한 수송체계에 기여하여 충남의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서산공항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지방공항 중심도시로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도로 확충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계획중인 노선중 서산과 신산업지대 중심지인 대산, 충남 내륙교통의 중심지인 천안, 안면도 국제관광지와 인접한 태안해안권과 백제문화권에 속해 있는 공주와 부여를 연결하는 노선은 다른 노선들에 비해 이용하는 물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계획에서의 4차선 보다는 그 이상의 넓은 도로를 건설하여 항공교통과 육로교통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교통망 연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V. 나가는 길

충남권의 서해안 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나 강원, 경북, 경남, 전남지역 및 제주도와는 거리가 멀고 접근노선과 육로 교통망체계가 매우 불량하여 지역간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서해안 지역과 전국을 연결할 수 있

는 교통망 개발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서산공항은 기존의 군비행장에 민항기를 취항토록 복합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시설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할 수 있으며, 서해안 신산업단지의 종사인구 및 항공화물, 신산업단지 배후신도시 및 지역주민과 태안 해안국립공원, 안면도 국제관광지 등의 관광객을 운송하여 서해안시대의 교통중심지로 개발이 필요하다.

서산공항의 개발은 서산, 태안, 당진, 예산, 홍성, 청양, 보령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공항에 의한 지역개발의 극대화 기대할 수 있고, 서산지역은 수도권 및 대전권 등과는 인접해 있으나 철도부재 등 실질적인 교통여건이 열악한 공동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한 서해안 교통거점 공항으로 개발함으로써 육로교통의 불리성을 보완할 수 있다.

서해안 신산업단지 사업자의 비즈니스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공항으로 개발하기에 최적지로서, 산업단지 배후도시의 거주자와 지역주민 등 총 약 100만명에 달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기반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태안 해안국립공원, 안면도 국제관광지 등 서해안권과 백제문화권 관광지 방문객의 2001년 예상수요는 태안해안권 2,177만 6천명, 공주·부여권 1,781만 7천명 등 총 3,959만 3천명으로서 충청권 관광객 운송을 위한 공항으로 개발할 수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호남지역을 연결하는 남북간의 연결 도로망이나 동서간 즉, 강원과 영남을 연결하는 교통연계는 미흡하므로 동서간의 교통연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공항으로

개발하고, 수도권과 호남권, 서해안권과 충청내륙권을 연결하는 육로 및 항공, 해상연계 교통결절지로 개발될 수 있으며, 지역간 운송(point-to-point) 시스템에 의해 영종도 및 김포공항 등 수도권 공항을 거점(HUB) 공항으로 연계하여 충남을 연결하는 지방공항으로 개발할 수 있다.

서산공항과 관련된 파급효과는 공항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여객 및 화물증가에 따른 파급효과, 그리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로 나누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연관자료를 이용하여 I/O분석을 실시 하였다.

I/O분석 결과 서산공항의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의 생산유발액원 292억원, 노동유발효과의 노동유발인구는 493명, 부가가치유발효과의 부가가치유발액은 116억원이다. 26개 산업중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분야는 요업토석제품, 제1차금속, 건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

서산공항의 여객 및 화물운송 증가에 따른 2010년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의 생산유발액이 86억원, 노동유발효과의 노동유발인구가 326명, 부가가치유발효과의 부가가치유발액이 44억원이다. 26개 산업 중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분야는 음식료업, 운수 및 보관,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사회 및 개인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

서산공항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2010년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의 생산유발액은 406억원, 노동유발효과의 노동유발인구는 2,379명, 부가가치유발효과의 부가가치유발액은 200억원이다. 파급효과

가 가장 큰 산업분야는 사회 및 개인 서비스, 부동산 및 서비스, 전력가스수도, 화학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서산공항 개발의 기본구상과 파급효과를 살펴본 결과 서산공항의 개발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파급효과에서 서산공항의 개발은 지역의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I/O분석에서 전국의 생산계수표를 이용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필요한 경우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열린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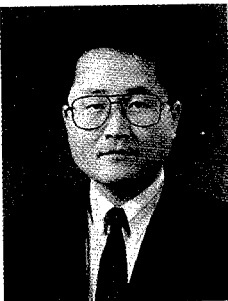
참 고 자 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1995.
 교통개발연구원, 관광산업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1992.
 국토개발연구원,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92.
 박병호,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한 지역의 연계개발 방안, 충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6.
 전라북도, 군산공항 민항시설 보고서, 1991.
 충청남도, 통계연보, 1995.
 한국공항진흥협회, 신규노선 수요예측 : 국내선 항공편, 1995.
 _____, 항공통계자료, 1995.

충남농정의 전개방향

농어촌활력화

10대시책을 중심으로

남궁 영
(南宮 英)충청남도
농정유통과장

1. 추진배경

지난 94년, UR이 타결되고 WTO의 신국경경쟁사회가 열리면서 우리 농업에 대한 걱정소리와 우리 농민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최소 시장접근에 의한 소비량 1%의 물량이나마 외국쌀이 국내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협상결과가 우리 전국민에게 충격으로 와 닿았었고 우리 농업의 존립에 대한 위기감마저 농민들은 물론 농정관계자들에게 까지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있는 이 즈음에서 96새해영농 설계교육시 2,630명의 농민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 농민들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아주 자신있다'는 응답이 20%, '농산물 개방에 자신있다'는 응답이 46%로서 결국 앞으로 농사도 해볼만하다는 생각들이 다시 우리 농민들에게 살아나고 있으며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는 농정관계자들의 의지 또한 보다 더 커지고 있다.

지난 95년 하반기부터 충남농정의 핵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활력화 10대시책」도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농정이 우리지역 농어민의 소리와 지역농정 책임자의 약속사항을 중앙정부의 주요 농정방향에 접목시켜 농어민과 농어민단체, 그리고 농정공무원들의 힘을 합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시책들인 것이다.

특히 우리 농정공무원들에게는 우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이러한 시책들 하나하나가 우리 농업과 농어민, 농어촌을 위해 풀어 나가야 할 크나큰 숙제이기도 하다.

우리도에서는 이러한 10대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우선 투자재원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우리도의 농어촌발전계획으로 수용하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100가지 실천사업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28%에 지나지 않는 우리도 현실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로 국비지원 사업이지만 적은 재원이거나 농

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과 행정서비스를 하고자하는 사업들이 41%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100가지 실천사업들은 매년 변화하는 농정환경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보완을 거듭하면서 사업별 지표를 근거로 매년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계획에 반영하는 이른바 「지표관리시스템」에 의거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지고 있다.

아직은 1년의 성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한해 한해 사업의 추진성과가 누적되어 가면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한결 튼튼해지고 우리 농어촌에도 부자농어민을 어렵

지 않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농어민들도 농업경영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I. 1차년(96)의 추진성과

지난해 100가지 실천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본 결과 우선 사업추진결과를 등급화해 볼 때 우수이상의 등급이 11%, 보통등급이 79%였으며 미흡하거나 부진하였던 사업이 9%, 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조정이 1건이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총 투융자 계획 7,156억원에서 7,045억원을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써 98%의 실적을 보였으며 농수축산물 물류센터 조성 15억원, 종축장 이전 16억원 등이 올해로 이월되어 투자되지 못했다.

탁월등급에 오른 농기계 이동순회수리사업은 도내 오지마을과 영세농을 위주로 18개반 54명이 총 22,400대의 수리서비스를 실시하였고 특히 전 화예약제를 정착시키고 1

만원 미만의 부품은 무료로 제 공함으로써 농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 농축산물의 수출에 있어서는 양돈과 인삼을 중심으로 9개 수출단지 14개 품목을 육성하고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95년 1억2천만불 수출실적을 지난해에는 1억8천만불까지 끌어 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천수만 철새공원 조성 계획이 토지사용 협의지연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공군비행 작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입지선정으로 타 지역으로 옮겨야만 하게 되었고 인삼종합전시관은 지난해 부지매입 및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올해 2월에 들어서야 착공하게 되었으며 발소형관정개발사업은 당초 기대한 것보다 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을 교체하여야만 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한편 지난해 농어촌활력화 10대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우수사례로서는 농촌진흥원이 농민서비스 차원에서 대

농어촌활력화 10대시책

- 시책 1> 프로농어민육성
- 시책 2> 농사현장서비스확대
- 시책 3> 마을단위생활환경혁신
- 새책 4> 농어촌지역문화창달
- 시책 5> 유통판매지원확대
- 시책 6> 생산기반시설현대화
- 시책 7> 지역농업기술전략추진
- 시책 8> 전략품목수출시장개척
- 시책 9> 농어촌소득자원확충
- 시책 10> 성과주의 농정체계정비

전MBC와 을지대학병원 공동으로 추진한 농촌주민 종합검진서비스가 총 6회에 걸쳐 1,734명의 농민이 무료검진과 투약 등으로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도와 시군의 홍보·판매 노력이 한층 확대되어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200여평 규모의 농산물 백화점이 개설되었는가 하면 농특산물 구매가이드, 해외 홍보용 판촉물 등의 개발과 시군별 홍보·판매전 등으로 우리도 농특산물의 판매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Ⅲ. 2차년(97) 추진계획

올해의 추진계획은 1차년도의 기본틀을 지켜 시책과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효과가 당초 기대치보다 떨어지는 사업을 교체하고 농어촌활력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가하였다.

특히 올해 도정의 3개과제분야(교통, 물가, 환경)를 우리 농정에서도 수용하여 환경농업적 사업들을 개발·보강하였다.

따라서 발소형관정개발, 도농

연계 고향목장 시범사업 등 4건의 사업이 조정되었고 농촌지도소 개방실습실 운영 등 11건의 사업은 사업내용의 보완에 따른 통합 또는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축산기술 교육센터의 건설과 농촌생활환

경시범촌 조성, 산림휴양공간 조성 등의 사업이 신규로 보강되어 추진중에 있다.

올해 보강된 새로운 사업 15건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활력화 10대시책 보강사업

□ 중점보강분야

- 환경농업과 산림공익성 제고 등 농어촌 환경보전 분야
- 인삼, 화훼 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및 발기반정비 분야
- 과실, 특용작물 등 성장유망품목 및 농외소득확대 분야

□ 시책별 보강 사업명

- 시책 1) · 선도경영체 육성
 - 축산기술 교육센터 건설
- 시책 3) · 농어촌주택개발
 - 농촌생활환경 시범촌 조성
 - 산림공익기능 제고
 - 산림휴양공간 조성
- 시책 4) · 농어촌발전대상제 운영
- 시책 5) · 농산물 간이포장센터 설치
- 시책 6) · 발기반정비 확대
 -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 시책 8) · 금산인삼 세계화 추진
 - 세계 꽃 박람회 준비
- 시책 9) · 과실생산 · 유통단지 조성
 - 특용작물생산 · 유통단지 조성
 - 농촌특산단지 조성

관리방식에서 보장된 내용은 시군별 인센티브제 도입과 지역 농정기관단체와의 횡적 연계를 강화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지난해에도 이러한 방침은 있었으나 시군별 인센티브제 도입은 평가기준과 방법측면에서 객관성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분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에는 농림부의 농림사업 평가규정을 지방적으로 수용하면서 가급적 우리도 자체사업에도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

즉,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절차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농어민의 사업선택이 올바르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한다.

이 사항은 92년 이후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42조원 투자계획과 농어촌특별세 지원사업에 따라 대폭 늘어난 농어촌투자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적정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보조지원에 따른 이른바 '공짜의식'을 불식시키

고자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보조비율을 낮춰 3년 후에는 공공성이 짙은 사업,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 보조사업을 없애고자 하는 방침(대신 저리·장기용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과 더불어 사업능력을 가진, 그래서 사업의 추진성과가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지역농정기관과 단체의 횡적 연계체계를 구축해 가고자 하는 것이야 말로 지역농정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간다는데 필연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당장 국비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하여 우리 지역 농어촌에 투자해야 한다는 표면적 필요만 보더라도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 농협, 축협, 각 직능별 연합회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하여 노력할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며 지역농민의 광범위한 농정참여를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도 관계 기관 및 단체간의 횡적

연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난해 23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바 있는 「지역농정협의회」에 올해부터는 농정분야 자문교수단(총 6명)까지 포함시켜 지역 농정현안을 해결해 가는데 공동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Ⅳ. 올해의 중요한 정책사업

올해의 농어촌활력화 10대시책 실천사업 중에는 앞으로 충남농정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정책사업들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그 추진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지만 그 중요성은 충남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지면 관계상 그중 몇 가지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중부 농수축산물 물류센터 건설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에 부지 36천평, 건물 1만평으로 건설중인 「중부 농수축산물 물류센터」

는 총사업비 44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농업의 특성상 농산물이 지역·품목·생산주체별 산발적으로 집하·유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이 다시 우리 지역으로 역류되어 그 손실액이 95년 기준으로 연간 1,003억원이나 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초현대식 물류흐름을 담당하는 전문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우리도에서는 이 사업을 토대로 보통 4~6단계 이상으로 불합리한 유통마진이 형성되고 있는 대부분의 농축수산물에 대하여 유통단계를 2~3단계로 대폭 줄이고 유통마진도 10% 내외에서 고정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 물류센터는 98년 하반기에 완공될 계획인데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축협 등이 공동 출자하여 주식회사의 전문가 경영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도민이 공동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도민기업으로 농어민과 도시소비자가 함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2. 충남농업종합센터 조성

충남농업종합센터 조성

- ▶ 위치 :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 ▶ 규모 : 부지 125ha
- ▶ 기간 : 1997~2001
- ▶ 총사업비 : 464억원
- ▶ 내용 : 충남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 원종장 등을 수용하여 농업의 중심단지 조성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부지 125ha에 조성예정인 「농업종합센터」는 21세기 우리 충남도 농업을 이끌어 갈 연구단지를 종합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농촌진흥원과 원종장 등 농업연구 및 지도기관을 총망라하고 전문적인 농민교육시설은 물론 문화, 복지시설까지도 한곳에 모여 우리 농업과 농민의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공주대학 등의 지역농정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보

고서에서 125ha의 부지내에 농촌진흥원 연구실험실, 포장디자인센터 등 60여종의 초현대식 농업관련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도에서는 이를 대폭 수용하여 내년도부터 부지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투자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에서는 농업종합센터 조성 전담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수립작업 등에 착수키로 하였다.

3. 인삼 세계화 프로젝트 추진

인삼종합전시관

- ▶ 위치 :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 ▶ 규모 : 부지 3,131평, 건물 1000평
- ▶ 내용 : 무역센터, 전시장, 판매장, 국제회의장

우리도의 금산인삼은 우리나라 고려인삼의 핵으로서 전국 유통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출량에 있어서도 도전체 1억8천만 불의 농수산물 수출액 중에서 79백만불을 수출하여 42%를 상

회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출전략 상품이다.

뿐만 아니라 인삼은 천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동양 최고의 명약으로써 건강지향의 세계적 물결속에서 세계화시켜 나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홍삼이 오랫동안 전매상품으로 머물러 오면서 세계인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우수성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아직은 세계적 명품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우선 금산을 중심으로 인삼타운조성을 위한 인삼종합전시관 건설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생산농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상품개발을 위한 인삼연구소 설치, 국제적 판매망을 형성해 나갈 판매시스템 구축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의 전담조직으로 구성된 인삼 세계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지역농정의 총체적인 역량을 모아 우리 인삼이 세계적 상품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4. 2002년 세계 꽃박람회 개최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꽃 소

세계 꽃 박람회 개최

- ▶ 시기 : 2002년 5월
- ▶ 장소 : 미정
- ▶ 규모 : 국제공인으로
박람회를 개최하
되 적정규모
- ▶ 준비 : 전담 프로젝트팀
(3명)구성

비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일본시장의 꽃수요가 확대일로에 있는 환경에서 우리도의 서해안 지방이 화훼구근류의 적지로 알려져 있고 절화류의 경우도 내 곳곳에서 시설재배가 확산되고 있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농정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화훼산업진흥의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국제 꽃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5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비공인 국제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도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을 얻고 국제공인을 사전에 준비하여 세계 어느 박람회에도 뒤지지 않는 멋진 꽃의 축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농

촌진흥원에서는 알맞은 화종을 개발하고 농산과 등 화훼생산 유통사업 추진부서에서는 화훼산업 육성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이다.

V. 맺음말

이러한 농어촌활력화 10대시책과 그의 실천을 위한 100가지 중요사업은 앞으로도 충남농업의 골간을 이루며 우리도 농어촌에서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다. 다만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농어촌의 누적된 어려움이 일시에 해소될 수 없고 여전히 많은 농어민이 낮은 의욕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은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는 무리일겠지만, 21세기 냉엄한 국제경쟁사회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어촌을 지켜 나가고자 열심히 일하는 우리 농어민을 만날때마다 더할 수 없는 용기를 얻고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믿게 된다. '항상 노력하는 자에게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때이다.

열린충남

연구원 사업

연구원 직무식

丁丑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97년도 직무식」이 지난 1월 3일(金) 오전 10시 안승주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원장은 신년인사에서 지난 해의 노고를 격려하였고, 새해에는 직원상호간 인화하는 가운데 연구의 질을 높이는 한 해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97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2월 28일(金) 오전 11시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심대평 이사를 비롯한 이사 18명, 감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97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이사 승인, 정관 개정, 직제규정 개정, 인사관리규정 개정, 보수규정 개정, 96년도 회계결산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준계 한마음 수련회 개최

3월 28일(金) 1일간 본원 안승주 원장을 비롯한 25명 전 직원

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등반, 장기자랑, 화합마당 등을 겸한 「준계 한마음 수련회」를 알차고 보람있게 개최했다.

1/4분기 현안연구사업

- ◆ 도지사표창 수상자 뺏지 디자인(97. 1. 15 - 97. 1. 20)

도지사표창 수상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수상뺏지를 패용토록 함으로써 수상자의 명예성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충남도의 독특한 개성을 살린 「도지사표창 뺏지 제작」에 관한 디자인 연구

- ◆ 충남도 농특산물 홍보용 종이 쇼핑백 디자인(97. 1. 17 - 97. 1. 20)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충남도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우리道 농특산물 종이 쇼핑백 제작」 디자인에 관한 연구

- ◆ 충남도 정보화 선언 엠블럼 및 포스터 디자인(97. 1. 21 - 97. 1. 21)

충남도 정보화 선언에 따른 심볼제작으로 정보화의 도민참

여 및 인식제고를 위해 「충남도 정보화 선언 현판 엠블럼 및 포스터 제작」 디자인에 관한 연구

- ◆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 상징뺏지 디자인(97. 1. 27 - 97. 1. 31)

충남도 농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추천 이미지를 표현한 상징마크를 뺏지로 제작하여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상징뺏지 제작」 디자인에 관한 연구

- ◆ 자매결연 외국지역 기뺏지 디자인(97. 1. 27 - 97. 1. 31)

충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지역을 방문시 기뺏지를 착용하여 방문지역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지역 기뺏지 제작」 디자인에 관한 연구

- ◆ 도정평가 책자 표지 디자인(97. 2. 28 - 97. 2. 28)

97년 도정 심사평가 과제로 선정된 「도정평가가 주요 책자에 대한 표지 제작」 디자인에 관한 연구

- ◆ 충남여성정책 대토론회 포스터 디자인(97. 2. 28 - 97. 3. 5)

충남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21세기 충남여

성정책 대토론회 개최에 따른
「엠블렘 및 포스터 제작」에 관
한 디자인

❖ 농어촌활력화 홍보 포스터 디
자인(97. 2. 28 - 97. 3. 11)

충남도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
책과 100대 실천사업을 홍보하
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어촌
을 만들고자 하는 도정의 모습
을 홍보하기 위한 「농어촌 활력
화 홍보용 포스터 제작」에 관한
디자인 연구

❖ 도정 지시사항 책자 표지 디
자인(97. 3. 7 - 97. 3. 15)

자치도정 조기정착을 위해 도
지사의 의지가 도정운영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의지를
담은 「도정 지시사항 책자 표지
제작」 디자인에 관한 연구

1/4분기 수탁연구사업

❖ 4대 권역별 개발경영사업 연
구(95. 12. 4 - 97. . .)

충청남도를 4대 권역별 특성
에 기초하여 권역별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최적의 개발대안을 모색하고, 계

획기간내 도정의 목표달성 및
기반구축의 기초를 확보하여, 지
방자치시대에 지역경쟁력을 강
화할 수 있는 「충청남도 장기 발
전계획」에 관한 연구

❖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 구상
연구용역(96. 6. 5 - 97. 6. 4)

4대권 개발경영계획을 기초로
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
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세계화·
정보화·지방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차원의 지역발전구도를
설정하고, 「중부권의 핵심리더」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축」
「환경해권의 거점지역」으로의
위상정립을 위한 「21세기 장기
비전(vision)」을 제시하기 위함

❖ 도정시책 평가 및 도민의식조
사 연구용역(96. 11. 22 - 97.
2. 19, 완료)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내부적
으로만 수행되어 오던 도정평가
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정시책 평가 및 도민의
식 조사」 연구를 통한 도정의 주
요시책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민들의 직접적인 평가와 반응

을 파악하여 향후 도정방향의
설정과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하
기 위함

❖ 천안 양곡리 유적 발굴조사 연
구용역(96. 11. 23 - 97. 3. 28)

충남 천안시 북면 양곡리 별
장골에 소재한 에스원(기계경비
회사) 연수원 부지내에 조선시
대 문화유적으로 추정되는 「백
자 및 분청사기 요지 발굴·조
사」를 실시하기 위함

❖ 태안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
획수립 연구용역(96. 11. 28 -
97. 8. 24)

태안화력 주변지역에 대한 지
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
발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안화력 주변지역 지
원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
기 위함

원 장 동 정

❖ 丁丑年 신년교례회 참석

1월 3일(金) 오전 11시 유성관
광호텔에서 대전일보사와 대전

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여 지역 기관장의 협조와 지도를 당부했다.

❖ 문화재위원회 참석

2월 28일(金) 오후 3시 문화재 사적 해제 및 보호구역 심의를 위해 문화체육부주관으로 개최된 「문화재위원회」에 참석했다.

❖ 삼일절 경축행사 참석

3월 1일(土) 오전 11시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된 「제78주년 삼일절 경축행사」에 참석했다.

연구원 활동

❖ 이강선 연구기획부장은

2월 21일(金) 엑스포국제회의장에서 국제통상연구회 주관으로 개최된 「대전·충남지역 유통업계의 경쟁력 강화전략 학술발표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 임선빈 역사문화부장은

1월 25일(土) 대전TJB 주관으로 개최된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과 과제 TV시사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2월 11일(火) 국사조사편찬위

원회 지역별 사료조사위원으로 위촉(97. 1. 1 - 99. 12. 21)되었다.

❖ 최병학 책임연구원은

2월 11~12일, 18~19일 등 2회에 걸쳐 계룡대 「民軍화합의 장, 기념공원, 역사보존 지역 및 장병휴양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전쟁기념관, 예술의 전당, 국토개발연구원, 건양대학교, 계룡대 등을 방문했다.

3월 3, 10, 24일 인본경영행정의 기본이념과 구현전략을 「도정이념과 실천」이라는 과목으로 충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특강을 실시했다.

❖ 박진호 연구원은

2월 12일(水) 오후 2시 대전시 공무원교육원에서 대전광역시 주관으로 개최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방안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 이인배 연구원은

2월 22일(토) 오후 11시 세종대학교 강당(용덕관)에서 한국관광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광개발의 수단화 연구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3월 6일(木) 오후 4시 충청남도(관광과)주관으로 개최된 「보령시 죽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자문회의에 참석했다.

❖ 송두범 연구원은

2월 15일(토) 오후 2시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주관으로 새마을금고대구시지부 강당에서 개최된 「새마을금고와 지역사회개발 토론회」에 참석했다.

원고투고요령

일반사항

1.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60매내외
2. 원고형식
 - 가. 첫째 페이지에 논문제목, 저자 국한문 성명, 소속기관, 현직위를 기재.
 - 나. 둘째 페이지에 300자 내의 논문요약과 저자의 소속기관 및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원고료 송금구좌번호 등을 기재.
 - 다. 세째 페이지부터 논문의 내용[기호체계는 1. 1, 가. 1), 가) 등의 순]을 기재.
3. 출력 물 : 아래아한글 2.5 또는 3.0을 이용하여 작성한 논문 2부와 디스켓 1개.
4. 원고심사 :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5. 원 고 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됨.

본 문 주

1. 본문안의 인용은 다음 예시에 따르고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은 미주로 처리
예시) (정지웅, 1995, p.30) 또는 정지웅(1990, p.30)
2. 내용주(content notes)는 일련번호를 명기하고 각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

참고문헌

저자, 논문명(또는 서명), 출판사(항), 연도, 페이지 순으로 기재하되 논문은 “ ”안에 기입하고 서명은 중고딕(외국의 서명은 이탤릭)으로 표시.

예시) ○ 국내논문 : 임양빈, 지방화시대의 충남지역 발전전략, 열린충남, 제1권 제1호, 충남발전연구원, 1995, pp.1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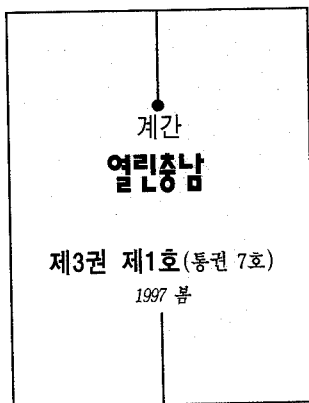
○ 단 행 본 : 오연천,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 박영사, 1995.

○ 외국논문 : Batina, R.G., Public Goods and Dynamic Efficien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41, 1990, pp.389-400.

○ 외국단행본 : Frenkel, J.A., and Razin, A., *Fiscal Policy and the World Economy*, Cambridge: MIT Press, 1987.

보 내 실 곳

(우) 301-060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48-1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
Tel. 042-222-2161~3 Fax. 042-222-2164



- 발 행 인 / 안승주
- 편집위원 / 이강선/김정연/이종상/임선빈/김상락/박진호
- 등록번호 / 대전 바-1018
- 등 록 일 / 1995년 11월 30일
-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48-1 (우)301-060
(전화) 042-222-2161~3
(팩스) 042-222-2164~5
- 디자인·인쇄 / 나리문화사
(전화) 042-253-8380
- 인 쇄 / 1997년 3월 24일
- 발 행 / 1997년 3월 31일

열린충남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는 아닙니다.



☎ 301-060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48-1
TEL.(042)222-2161~3 FAX.(042)222-2164~5